

인제문화

2023 | 제38집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에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나를 표현하고 기록하기

인제문화원장 이만철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글로, 말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발명으로, 일로, 정치로, 행정으로, 몸짓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형태는 모두 다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드러냄이 세상에 기억되고, 문자로 남아 전승되는 일은 모두 기록에 의합니다.

인제인이 살아온 역사도 기록이고, 인제인이 후손에게 남긴 교훈도 기록이고, 문학도 기록입니다. 내가 나를 기록하기도 하고, 내가 남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남이 나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록하는 행위는 모두 ‘나를 표현하기’입니다. 나를 찾는 일이 사유(思惟)라면, 나를 표현하는 일은 예술(藝術)입니다. 문학, 음악, 미술, 영화, 강연 등등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나의 몸짓, 나의 일이 예술일 수 있습니다. 나를 표현한 예술은 기록으로 남기면 위대해집니다.

여기 『인제문화』에는 인재인들이 자신을 표현한 아름다운 기록이 담겼습니다. 나를 표현한 행사, 강연, 공연, 발표, 수업, 춤, 시, 수필, 논문, 서예 등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재인의 예술활동이지요. 그리고 인재인들이 2023년을 치열하게 보낸 문화이면서 역사이지요.

앞으로 이런 귀한 기록이 이어져 인재인의 멋진 삶이 축적되고, 세계 만방에 휘날릴 것입니다. 시인 한용운, 시인 박인환, 서예가 김응현, 무산 오현 스님, 소설가 이외수 등처럼 훌륭한 예술가가 탄생할 것입니다. 멋진 예술가가 인재에서 소양강 흐르듯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문화원 전경



이사회의



문화학교 간담회



설악문화연합회



어린이 예절문화 교육사업



실버스타-K(색소폰 앙상블)



실버스타-K 경연대회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누림 - 미술 꽃이 활짝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누림 작품전시



문화학교 개강식



제2회 인제군민 전통목기 깎기 대회



제28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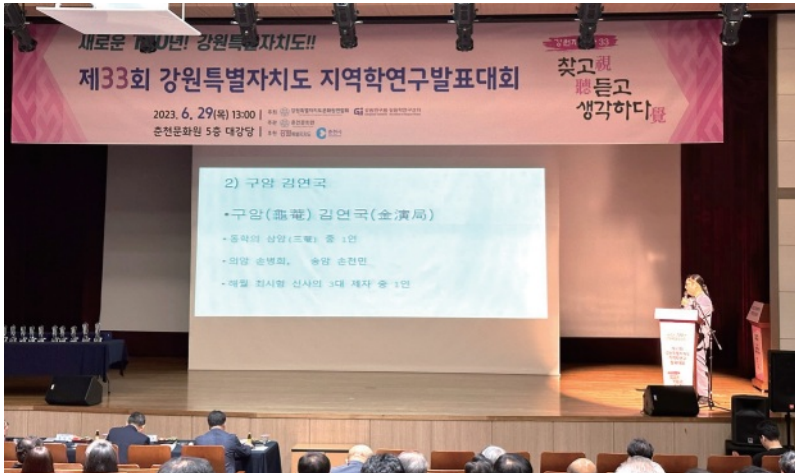
제28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하늘내린실버악극단 실버문화페스티벌



하늘내린실버악극단 실버문화페스티벌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학연구발표대회



찾아가는 문화캠프 마음을 전하다(3군단)



찾아가는 문화캠프 서울문화탐방(창덕궁 관람)



찾아가는 문화캠프 청마페스티벌 문화공연지원



찾아가는 문화캠프 합강문화제(향토음식체험관)



찾아가는 문화캠프 인제천리길걷기축제 산상음악회



찾아가는 문화캠프 인제군병영회 문화탐방 시집박물관



찾아가는 문화캠프 강원산림박물관 지역문화예술공연(색소폰)



찾아가는 문화캠프 강원산림박물관 지역문화예술공연(우쿨렐레)



찾아가는 문화캠프 가가호호요양보호센터공연(합창반)



찾아가는 문화캠프 임마뉴엘공연(합창반)



춘계문화탐방(철원)



춘계문화탐방(경주)



춘계문화탐방(경주)



추계문화탐방(여주)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 다도체험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사업(13항공단)



문화학교 노래교실



문화학교 다도



문화학교 라인댄스



문화학교 목공예



문화학교 민요



문화학교 사물놀이



문화학교 우쿨렐레



문화학교 한국무용



문화학교 한글서예



문화학교 한문서예



문화학교 합창반



문화사랑방 댄스스포츠(인제)



문화사랑방 색소폰(중급)



문화사랑방 서양화



문화사랑방 아코디언



문화사랑방 요가



문화사랑방 통기타(인제)



찾아가는 문화학교 댄스스포츠(상남)



찾아가는 문화학교 뗏목아리랑



찾아가는 문화학교 라인댄스(기린)



찾아가는 문화학교 민요



찾아가는 문화학교 색소폰(조금)



찾아가는 문화학교 수묵화



찾아가는 문화학교 오페라리나



찾아가는 문화학교 통기타(상남)



찾아가는 문화학교 통기타(용대)



전통혼례사업(한상철-김다경, 한길용-박금호)



전통혼례사업(전대원-이금란, 한종국-유옥선)



전통혼례사업(오영호-전금순, 방희태-안나영)



전통혼례사업(박유정-우성욱, 서성호-박옥희)



전통혼례사업(오금용-김옥화, 최중호-최기녀)



전통혼례사업(박수만-조옥순, 박병래-김옥순)



합강제 전통혼례(구사용-최순녀, 이종기-조복기, 장영호-이설희)



농업인의 날 문화공연



강원문화대축전(우쿨렐레 공연)



강원문화대축전 문화유공자표창 강원특별자치도지사(함연호 회장)



강원문화대축전 문화유공자표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최경복 강사)



색소폰 공연



제26기 문화학교 수료식



동네방네 '오감만족' 행복 콘서트



동네방네 '오감만족' 행복 콘서트



동네방네 '오감만족' 행복 콘서트

차례 Contents

- 발간사
- 2023 문화사업

제1장 특집

- 박인환 시의 문명 비판과 현실의식 고찰 _ 손흥기 36

제2장 향토사

- 김부대왕제 연구 _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이학주 50
- 地域學 研究 觀點에서의 麟蹄郡 歷史人物 콘텐츠事業 提言
_ 인제문화원향토사연구위원 한승윤 76

제3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 고은조 _ 호국의 6월 · 114
- 권순덕 _ 어른이 없다 · 115
- 김봉희 _ 청평암 · 117 / 설악산의 여름 · 118 /
대승폭포 · 119 / 내린천 · 120 / 이웃집 할머니 · 121

- 김영관 _ 까치 밥 · 122
- 문재림 _ 그냥 두어라 · 123
- 박돈녀 _ 배웅 · 124 / 이명 · 126 / 정 · 127 /
호박꽃 · 128 / 황태 · 129 / 황혼 · 130
- 박정옥 _ 강물과 나 · 131
- 박청미 _ 숲에서 · 132
- 박혜영 _ 욕심 · 134
- 원영애 _ 길 · 135 / 편 · 136 / 의지 · 137 / 4월 · 138 /
하룻밤의 꿈 · 139 / 하얀소리 · 140
- 정순덕 _ 각자도생 · 141
- 한용운 _ 內麟川 · 142 / 운 두 령 · 144 / 은빛 빙어 · 146
- 한우림 _ 능소화 · 148
- 허계홍 _ 가을 안부 · 150

산문 /

- 허순애 _ 오카리나의 명장, 노무라 소지로를 만나다 · 152
- 백송 김영관 _ 희망과 상처를 주는 말의 온도 · 163
- 박은덕 _ 건강검진을 받으며 · 173

제4장 특별기고

- 이만철 _ 문화원과의 인연 34년을 되돌아 보며... · 176
- 이학주 _ 인제 목기 · 187

제5장 백일장 입상작품

- 제22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 196
- 2023 청소년평화생명백일장 · 282

제6장 입서전

- 제27회 인제서회입서전 · 324

- 임원현황
- 직원현황
- 원고모집



박인환 시의 문명 비판과
현실의식 고찰

손흥기

제 1 장

특집

박인환 시의 문명 비판과 현실의식 고찰

손흥기 * 문학평론가, 인제문화원 이사



박인환 시인, 1955년 대한해운공사 소속 《남해호》 사무장으로 미국의 여러도시를 방문한다

• 문을 열며

박인환은 1955년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화물선 ‘남해호’의 사무장 자격으로 미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귀국 후 《조선일보》에 「19일간
의 아메리카」를 기고하였으며, 그 여행의 시적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아메
리카 詩抄」 12편을 발표한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여행지의 풍물이나 여
행자의 감상을 늘어놓고 있는 시가 아니다. 여기에는 광대한 문명대국인
미국에서 느끼는 약소국 지식인의 자화상과 냉철한 문명 비판이 내재하고
있다. 이는 30년대 김광균의 「외인촌(外人村)」이나 「와사등(瓦欺燈)」에

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문명 인식과 도회적·이국적 정서와는 구별되는 구체적 경험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이때 나타난 주된 정조는 여행자의 고독과 이국정서, 그리고 미국이 드러내고 있는 문명 현상에 대한 부정의식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의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의 비생명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인간 소외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STRAIT OF JUAN DE FUCA를 어제 나는
지났다.

눈동자에 바람이 휘도는
이국의 항구 올림피아
피를 토하며 잠자지 못하던 사람들이
행복이나 기다리는 듯이 거리에 나간다.

착각이 만든 네온의 거리
원색과 혈관은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거품에 넘치는 술을 마시고
정육에 불타는 여자를 보아야 한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나는
발버둥 치며 달아나야 한다.

세상은 좋았다
피의 비가 내리고
주검의 재가 날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올 수 없는 사람은 떠나야 한다
아니 세상은 불행하다고 나는 하늘에
고함친다
몸에서
베고니아처럼 화끈거리는 욕망을 위해
거짓과 진실을 마음대로 써야한다.

젊음과 그가 가지는 기적은
내 허리에 비애의 그림자를 던졌고
도시의 계곡 사이를 달음박 치는
육중한 바람을
충혈된 눈동자는 바라다보고 있었다.

— 「충혈된 눈동자」 전문

위 시는 박인환이 대한해운공사에 근무할 때 남해호의 사무장 신분으로 15일간 서구문명을 직접 체험하면서 쓴 작품이다. 처음으로 낯선 이국땅을 밟게 된 박인환은 한국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올림피아에서 느끼게 된다. 이곳에서 시인은 이국정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형형색색의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즐비한 거리를 방황하게 된다. 거리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정육에 불타는 여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원색과 혈관’을 볼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문명 속에 인간 본연의 생명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망각과 도취를 위하여 ‘거품에 넘치는 술’과 ‘정육에 불타는 여자’에 빠지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 거부감을 느낀 시인 자신은 “발버둥 치며 달아나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이런 세상이 불행하다고 하늘에 고함치게 된다.

결국 젊음과 그가 가진 모든 가능성은 비애의 그림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충혈된 눈동자로 도시의 계곡 사이를 달음박질치는 바람을 바라볼 뿐이다. 이것은 삭막한 도시의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이국땅에서 느낀 소외와 외로움을 기저(基底)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어느 날」에서는 점점 확대되어 회의적인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시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회한(悔恨)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 부조리한 미국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당신은 일본인이지요?
차이니스? 하고 물을 때
나는 불쾌하게 웃었다.
거품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나도 물었다.

당신은 아메리카 시민입니까?
나는 거짓말 같은 낱아빠진 역사와
우리 민족과 말이 단일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황혼.
태번 구석에서 흑인은 구두를 닦고
거리의 소년이 즐겁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여우(女優) 가르보의 전기(傳記)책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디텍티브 스토리가 쌓여 있는
서점의 쇼우윈도우
손님이 많은 가게 안을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비가 내린다.
내 모자 위에 중량이 없는 억압이 있다.
그래서 뒷길을 걸으며
서울로 빨리 가고 싶다고
센티멘탈한 소리를 한다.

— 「어느 날의 시가 되지 않는 시」 전문

전후(戰後) 약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국 땅을 밟은 시인은 일본인이 아니면 중국인으로 인식된다. 이때 시인은 그 반응으로 터져 나오는 불쾌감을 감추고 웃음과 함께 “당신은 아메리카 시민입니까?”라고 되묻는다.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오히려 야유 섞인 반문을 던짐으로써 대화의 우위를 선점한다. 이어서 시인은 ‘거짓말 같은 낱아빠진 역사’와 ‘민족과 말이 단일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민족과 언어의 단일성을 자랑하는 것은 민족적 자존의식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으나, 민족사를 거짓말 같은 낱아빠진 역사로 말하는 데는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언술 방식은 타자의 시선에서 그들의 비아냥거리와 조롱까지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해지는, 자학(自虐)을 가장한 공격적 대화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연에서 ‘女優 가르보의 傳記’나 ‘디텍티브 스토리’가 쌓여 있는 서점을 통해 미국식 대중문화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손님이 많은 서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단순한 이방인적 자아의

소외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문화를 경이원지(敬而遠之)하는 이중적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윽고, 비가 내린다. 시인은 “내 모자 위에 중량이 없는 억압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시인은 이러한 소외와 양가적(兩價的) 감정의 혼란 속에서 도시의 뒷길을 걸으며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감상적인 말을 주절거리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 김기림이 보여 준 「바다와 나비」라는 시를 통해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문명을 향한 동경과 좌절의식을 보여주었다면, 박인환은 미국으로 상징되는 근대문명의 한복판에서 전후 한국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망과 부정의 양가감정을 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낮보다도 눈부신
포틀랜드의 밤거리에
단조로운 글렌 밀러의 랍소디가 들린다
쇼윈도에서 울고 있는 마네킹.

앞으로 남지 않은 나의 잠시를 위하여
기념이라고 진피즈를 마시면
녹슬은 가슴과 뇌수에 차디찬 비가 내린다

나는 돌아가도 친구들에게 얘기할 것이 없구나
유리로 만든 인간의 묘지와
벽돌과 콘크리트 속에 있던
도시의 계곡에서
흐느껴 울었다는 것 외에는…….

천사처럼
나를 매혹시키는 허영의 네온.
너에게는 안구(眼球)가 없고 정서가 없다
여기선 인간이 생명을 노래하지 않고
침울한 상념만이 나를 구한다.
바람에 날려온 먼지와 같이
이 이국의 땅에서 나는 하나의 미생물이다
아니 나는 바람에 날려와

새벽 한 시 기묘한 의식으로

그래도 좋았던

부식(腐蝕)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 「새벽 한 시의 詩」 전문

이 시는 박인환의 「아메리카 시초(詩抄)」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문명 비판적 시선을 던져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미국으로 대표되는 문명사회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시인은 ‘대낮보다 눈부신’ 밤거리에서 ‘글렌 밀러의 랩소디’를 들으며 울고 있는 쇼윈도 안의 마네킹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미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진피즈’를 마신다. 시인은 휘황한 현대도시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 공간 속에서 그는 액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 현대적 문명에 매혹되어 부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화자는 말한다. 다만 “유리로 만든 인간의 묘지와 / 벽돌과 콘크리트 속에 있던 도시의 계곡” 속에서 흐느껴 울었다는 사실 외에는 “나는 돌아가도 친구들에게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명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불모의 도시 공간에서 시인은 비생명적 삶의 논리에 몸서리치고 있는 것이다. 그 문명의 불빛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영의 네온’이며 ‘안구(眼球)’도 없고, ‘정서(情抒)’도 없는 것이라고. 인간의 생명을 노래하지 않고 침울한 상념만이 스스로를 깨우치는 이 공간은 근대문명에 대한 냉혹한 반성을 포함하고 있다. 30년대 김광균이 “느러슨 고층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크러진 채 / 사념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처럼 「와사등(瓦欺燈)」에서 보여 준 문명 비판적 시선이 ‘까닭도 없이 눈물 겹고나’와 같은 관념적 차원의 우수와 상실감이었다면, 미국식 근대문명의 한복판에서 느낀 박인환의 정서는 그 체험의 구체성만큼이나 사실적이다.

이는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이 異國 땅에선 나는 하나의 미생물이다.” 이러한 자각은 단순한 여행자의 관점이나 문명 비판자의 시선으로 축소할 수 없다. 미국과 근대문명에 대한 선망과 좌절의 양가감정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그의 시는 50년대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과 정확하게 호응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매우 유효하고 적절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적인 삶의 양태를 잊은 인간의 모습과 거대한 공동묘지를 방불케하는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느끼는 시인의 절망감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 박인환의 많은 작품 속에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의 비 생명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인간 소외의 문제가 등장한다.

장미는 강가에 핀 나의 이름
집 굴뚝에서 솟아나는 문명의 안개
‘詩人’가없는 곤충이여
너의 울음이 도시에 들린다.

오래도록 네 욕망은 사라진 繪畫
무성한 잡초원에서
환영과 애정과 비벼대던
그 年代의 이름도
허망한 어젯밤 버려지……

기대었던 樹木은 썩어지고
電信처럼 가벼웁고 재빠른
불안한 속력은 어데서 오나.

침묵의 공포와 눈짓하던
그 무렵의 나의 운명은
기적인
동양의 하늘을 헤매고 있다.

— 「기적인 現代」 전문

이 시는 도시 문명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 시각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1연에서는 거대한 문명 앞에서 시를 쓰는 자의 무력함을,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2연에서는 ‘욕망’, ‘무성한 잡초원’, ‘환영과 애정’, ‘비벼대던’ 등의

생명적 · 역동적 심상을 구사함으로써 문명 이전의 삶의 원초적 생명성을 묘사하고 있다. 3연에서는 ‘기대었던 樹木’으로 상징되는 생명 세계에 대한 상실감이 엿보인다. 특히 ‘電信’을 보조관념으로 취하고 있는 ‘속력’은 기계 문명의 본질적 속성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이 ‘불안한’이라는 관형어를 동반함으로써 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간적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문명의 세례를 입은 동양이 기적처럼 변화되었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 극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시상을 반어적 상황으로 매듭짓는다.

입술에 피를 바르고
미스터 某는 죽는다.

어두운 표본실에서
그의 생존시의 기억은
미스터 모의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인도 없이 유산은 더욱 없이
미스터 모는 생과 작별하는 것이다.

미스터 모의 生과 死는
신문이나 잡지의 대상이 못된다.
오직 유식한 의학도의
一片의 소재로서
해부의 臺에 그 여운을 남긴다.
— 「미스터 某의 생과 死」 부분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미스터 모라는 3인칭 인물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망하는 형식을 취해 쓴 시이다. 그 결과 여타의 시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과잉이나 감상성이 배제된 채 관조적인 어조로 수미일관 할 수 있었다.

시적 화자인 미스터 모는 ‘어두운 표본실’로 표상되는 물질 문명의 비정함 속에 죽은 모습으로 누워 있다. 그의 죽음엔 원인이 없고 그가 남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원인이 없다는 것은 삶의 부조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죽음은 모든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채 시체마저 해부대 위에서 의학도의 물질적 소재로 제공되는, 즉 시체마저 문명의 행보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된다.

해방정국의 역사적 격동기에 자본과 문명의 유입으로 인한 정신의 황폐화와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현실 인식은 「자본가에게」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마니페스트*의 결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자본이 붕괴한 다음
태풍처럼 너희들을 휩쓸어 갈
위험성이
파장처럼 가까워진다는 것도

(중략)

그러므로 자본가여
새삼스럽게 문명을 말하지 말라
정신과 함께 태양이 도시를 떠난 오늘
허물어진 인간의 광장에는
비둘기 떼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중략)

성안은
꿈의 호텔처럼 부서지고
생활과 질서의 신조에서 어긋난
최후의 방랑은 끝났다.

지금 옛날 촌락을 흘려버린
슬픈 비는 내린다.

* 마니페스트 : manifest. 선언, 선언서, 격문(연구자 주)

— 「자본가에게」 부분

박인환은 ‘새로운 것’을 지향하면서 서구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자본주의나 과학 문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면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

회현실이 그만큼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황폐화되어가는 현실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자본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인간의 정신은 황폐하여진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그는 ‘정신과 함께 태양이 도시를 떠난 오늘’이라는 시대 인식과 직면한다. 그가 인식하는 현실은 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 문명의 모순과 불합리이다.

지나친 물질 문명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물어뜨리고 결국은 삶의 토대가 침해되고 인간성까지 파괴된다는 당대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 함께 태양이 도시를 떠난 오늘’은 황폐해진 정신과 암담한 해방정국을 드러내며 그러한 자본주의는 ‘허물어진 인간의 광장’으로 표상된다.

박인환의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현실 인식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반기에 속하는 시인의 대부분은 1920년대에 이 불안한 세계에 태어났다. 이들의 어떠한 한 사람도 그들이 성장되고 사고하는 방법이 그 기반을 황폐한 정신적 풍토에 두었다는 것을 부인치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최초의 결합과 종말의 목표는 항상 동일한 지적 불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현실의 시야에 전개되어 있는 살육과 허구와 황폐와 참혹과 절망을 현대의 문명을 통해서 반영할 적에 우리들로 하여금 강요케 하는 것은 ‘황무지적 반동’이며 전후적인 황무지적 현상과 광신에서 더욱 인간의 영속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 현대시의 의의가 존재된다고 생각한다.

당대의 ‘황폐와 참혹과 절망’을 현대 문명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시작(詩作)의 목표였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즉 통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문명 비판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시작(詩作)의 기본 지침이 됨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문명 비판적 현실 인식은 박인환이 주도했던 〈신시론〉, 〈후반기〉 동인들의 모더니즘 문학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의 발생 근거가 물질 문명에 대한 화해주의(災害主義), 문명사의 종말의

식 및 인간의 물화(物化) 현상 내지 소외 현상에 있었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이나 전쟁이 동기가 된 역사 전환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기 때문에 5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정신은 당연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의 정신이며 변혁의 정신이었다. 이러한 현실지향 내지 현실 비판의식은 물질 문명과 비인간화의 시적 토대를 마련한다.

• 문을 닫으며

해방 후 〈신시론〉, 〈후반기〉 동인을 주도하며 1950년대 전후 문단의 활동을 통하여 술한 일화와 화제를 뿌리고 3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박인환은 가장 1950년대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일제 치하, 해방 후 극심한 좌우익의 혼란 상황을 겪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적 현장을 종군 기자로 생생하게 체험했다. 그가 고백했듯이 “어떤 시대보다 혼란하고 불안정한 연대”에 살다 비극적 생애를 마감한 시인이었다.

박인환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모더니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인환은 모더니즘의 세계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다. 본인 스스로 모더니즘 기수로 자처했던 만큼 어찌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겠으나, 그의 시를 모더니즘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김춘수의 지적처럼 ‘실패한 모더니스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발표한 비판적 리얼리즘 시나 6·25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 인식의 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평가이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논의되었던 박인환의 작품세계에서 간과(看過)되고 있거나 혹은 방기(放棄)되어 온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 성향의 작품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박인환 시의 총체적 의미 규정에 일조를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45년 해방 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해방 공간에서의 현실 인식을 반제국주의 투쟁과 아시아적 연대, 현실 비판과 리얼리즘적 세

계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전쟁기(期)와 전후(戰後)의 작품을 전쟁의 가족사적 체험과 비극적 현실 인식,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한계상황 표출과 역사 인식으로 검토하였으며 해방과 종전(終戰) 이후 무분별하게 유입된 서구 자본주의의 문명으로 인한 물질 문명 비판과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방기 시의 경우 비판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사적 조류를 직시하고, 신제국주의 팽창 세력에 대해 경계의 눈빛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제국의 식민지 투쟁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해방정국의 국내 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외세의 문제가 해방정국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바, 박인환의 이러한 시적 지향은 그의 역사 인식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관심은 국내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적 연대의식 속에서 그의 인식을 세계사적 지평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현실의식의 바탕 위에 씌여진 비판적 리얼리즘 시들은 반제국, 반식민, 반자본주의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방정국의 역사적 격동기에 자본과 문명의 유입으로 인한 정신의 황폐화와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현실 인식은 박인환의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서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자본주의나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인간의 정신은 황폐해진다는 것이 박인환의 문명 비판적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손흥기

계간 《시와 세계》 신인상 문학평론가 등단

시론집 《시에게 길을 묻다》 문학평론집 《박인환을 다시 읽다》

한국문협작가상(평론), 강원도문화상(문학),

인제군민대상(문화예술), 고대문우회상 수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회장, 인제문화원 이사



김부대왕제 연구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이학주

地域學 研究 觀點에서의 麟蹄郡 歷史人物 콘텐츠事業 提言

인제문화원향토사연구원 한승윤

제 2 장

향토사

김부대왕제 연구*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목차〉

- | | |
|-----------------|----------------------|
| 1. 머리말 | 3. 김부대왕제의 변천과 지역적 특성 |
| 2. 김부대왕의 실체와 신격 | 1) 제의의 변천 |
| 1) 김부대왕의 실체 | 2) 제의의 지역적 특성 |
| 2) 김부대왕제의 대왕신격 | 4. 맺는말 |

〈국문초록〉

이 글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전승하고 있는 김부대왕(마의태자)제에 대한 고찰이다. 김부대왕(金富大王)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소위 마의태자를 이 지역에서 부르는 칭호이다. 이 제시는 현재 정사(正史)에 기록이 없으므로 역사적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김부대왕의 실체부터 대왕제의 신격, 대왕제의 실체, 변화 등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의 대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논란을 정리하면서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부대왕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김부대왕의 실체는 한자표기에서 혼란이 있었다. 경순왕을 『삼국사기』에서 한자로 김부대왕(金傅大王)으로 표기하였는데,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과 한글 음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논의 결과 한자음의 부(傅, 溥, 富)는 혼용되어 쓰였고, 한자표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金傅大王과 金富大王은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신격에 대한 것이다. 신격에 대한 논란은 마을에 흔히 있는 신당(神堂)이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김부대왕(마의태자)을 모시는 인격신으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원래부터 김부대왕을 모셨다는 주장의 대립이었다.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김부대왕제를 지낸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다음은 제사의 변화를 살폈다. 김부대왕제는 개인-마을-조상제사의 형태로 변해왔다. 그리고 동제는 복을 구하는 것과 인격신에 대한 것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부터 인격신을 제사하는 추모제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김부대왕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층의 신이었고,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제각의 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부대왕제는 김부리 지역의 인격신으로 좌정해 있었고, 이 지역에서만 전승했으며, 제의 속에 구국활동과 관련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논의는 천년 이상 이어져왔다고 추정하는 제사의 실체와 그 변화를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곧, 우리나라 인격신을 모시는 동제의 변천과 특성의 단면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 **핵심어**: 김부대왕(마의태자)의 실체, 김부대왕제, 김부대왕제의 성격, 역사적 사실, 민중적 진실, 제의의 변천, 제의의 특성

1 머리말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는 천년동안 이어져 온 제사가 있다. 이를 김부대왕제(金富大王祭)라고 일컫는다. 김부대왕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였던 소위 마의태자(麻衣太子)를 인제에서 부르는 칭호이다.

역사 기록에는 마의태자가 마의(麻衣)를 입고 초식(草食)을 하면서 개골산(皆骨山)에 가서 죽었다고 한 것이 전부이다.¹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마의태자가 김부리 일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신라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

* 이 글은 필자가 『동아시아고대학』25(동아시아고대학회, 201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한다.

1) 김부식, 『삼국사기』상, 이병도 역, 을유문화사, 1986. 243쪽.;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146쪽.



부안 김 씨의 김부대왕제 장면1(2012)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곳곳에 있는 지명과 유적과 설화와 동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부리(金富里)에서 지내고 있는 김부대왕제이다.

김부리와 원갑둔리는 현재 민간인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군사 훈련장이다. 허허벌판에 훈련

을 하는 군인들만 간혹 보일 뿐이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 민간의 것으로 대왕각(大王閣)이 서있다. 모든 민간인이 떠나고 건물도 헐렸는데, 오직 김부대왕을 모시는 대왕각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김부탑(金富塔)이라 부르는 5층 석탑도 갑둔리에 그대로 있다. 아울러 이곳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의 명칭이 김부대왕로(金富大王路)로 이름 지어졌다. 그러니 이곳에는 오직 민간의 것으로 김부대왕과 관련된 것만 남아 있는 것이다. 대왕각에서는 2012년 현재 음력 9월 9일 오전 11시에 마의태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안 김 씨에 의해 김부대왕제가 치러졌다. 이후 경주 김 씨와 법적 다툼 끝에 부안 김 씨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경주 김 씨들이 상남2리 마의태자마을에 설치된 비각에서 마의태자 축제 때 제의를 받들고 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그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그 성격 또한 제사 주체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실체에 대한 논란은 신종원에 의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나,² 제사와 유적과 설화와 지명이 남아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김부대왕의 실체와 김부대왕의 신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실체와 신격에 의해서 김부대왕제는 어떤 성격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역과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85-105쪽 참조.

이 논의는 막연한 마을신(洞神)의 개념이 아닌, 역사적인 인물신(人物神)을 모시는 제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적 인물신을 모시는 동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을 하므로 시대변화에 따른 그 지역인의 인식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부안 김 씨의 김부대왕제 장면2(2012)

2 김부대왕의 실체와 신격

이 항목에서는 김부대왕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그가 마을의 제사를 받게 되었으며, 마을제사에서 얘기하는 대왕신은 누구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곧, 인제에서 얘기하는 김부대왕의 실체와 동제의 신격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1) 김부대왕의 실체

김부대왕은 과연 누구인가? 한자로써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곧, 김부대왕(金傅大王)과 김부대왕(金富大王)이다. 스승 부(傅)자와 부자 부(富)자의 차이이다. 여기서 스승 부(傅)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傅大王)은 『삼국사기』〈金傅大王〉조에서 거론하는 경순왕(敬順王)임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이다. 이것은 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김 씨 성의 부자’를 뜻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의태자(麻衣太子)’라고 하는 경순왕의 첫 번째 아들인 신라의 마지막 태자를 일컫는다는 주장이다.



부안 김 씨의 김부대왕제 장면3(2012)

먼저, 현재 스승 부(傅)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傅大王)에 관한 설화의 전승과 신앙에 대해서보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³ 이들 설화는 현재 전국에 걸쳐서 약 20여 종이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사찰과 무교(巫敎)인들에 의해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서낭

신으로 좌정한 예도 나타난다고 하였다.⁴ 이처럼 설화의 전승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으며, 신앙의 대상으로도 폭넓은 전승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여기서는 모두 스승 부(傅)자를 쓰는 ‘金傅大王=경순왕’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음은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 김부(金富)는 김 씨 성을 가진 부자(富者)를 뜻하는 경우와 마의태자의 이름(金富)으로 두 가지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김 씨 성을 가진 부자로 보는 경우는 신종원에 의해서다. 이는 『한국지명총람』에 전제된 화천군의 ‘김부대’(김부터, 陳富垔: 陳 또는 金이라는 부자가 살았다는 마을)를 예로 들면서 “이 지명유래 또한 창작력이 뛰어난 好事家를 만나면 인제군 김부리와 같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⁵고 하였다. 따라서 인제군의 김부리는 경순왕이나 마의태자와 전혀 관련이 없

3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김용덕, 「경순왕 설화의 형성배경과 의미연구」, 최래옥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전신재,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권혁준, 「인제군 인물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윤형준, 「김부리 대왕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 10, 인제문화원, 1995.;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 金傅大王 신격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논문, 1999.; 신종원, 위의 책, 등.

4 신종원, 위의 책, 참조.

5 신종원, 「갑둔리 5층석탑 명문과 관련된 역사해석의 문제」, 『인제 갑둔리 일대 석탑 조사보고서』, 인제군·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84쪽.

는 곳이라고 하였다. 곧 인제군의 김부리가 경순왕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 것은 식자우환(識字憂患)의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미 이규경 당대에도 일부에서는 ‘김부’라고 불러서, 이 지명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이해된다.”라고 하였다.⁶ 여기서 ‘김부리’는 원래 ‘금부리’였는데, 김부대왕과 관련을 시키기 위해서 ‘김부리’로 읽혔다는 주장이다.

반면,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은 경순왕의 맏아들인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金鎰)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1980년 김종권에 의해서이고, 이어서 마의태자 후손이라는 부안 김 씨 등에 의해서 ‘金富大王(김부대왕)=麻衣太子(마의태자)’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⁷ 그 다음 이태두는 김부답을 발견하고 그에 적힌 “金富壽命長存家(김부수명장존가)”라는 명문을 바탕으로 역시 김부대왕은 마의태자라는 설을 주장하고,⁸ 인제 사람들은 이를 고착화 시켰다.⁹ 또 향찰 표기로 김일의 ‘일(鎰)=익(益)=부(富)’는 풍부하다는 의미로 같이 쓰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일(金鎰)을 김부(金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이처럼 아주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모두 지명과 김부대왕제에 초점을 두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다. 곧, 김부(金傳)와 김부(金富)의 혼돈과 역사적 사실이나 민중적 진실이냐의 차이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신종원은 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민중적 진실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다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6 위의 논문, 83쪽. 여기서 이규경이 거론되는 것은 그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는 <김부대왕변증설>에 따른 것이다.

7 김창원 편저, 『자랑스런 조상의 발자취』, 부령(부안)김씨소운공파총회, 2000.; 김춘식·김수선, 『金富大王 麻衣太子의生涯』, 마의태자숭모회, 2001.

8 이태두, 『金富史蹟記』, 감둔향토사적연구회, 1987.; 이태두, 『인제조상의 얼』, 강원도인제교육청, 2000.

9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문화원, 2007.

10 kbs역사스페셜 65회.



제사 후 기념촬영 장면(2021)

그래서 이를 ‘전설의 사실화 작업’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¹¹ 반면에 부안 김 씨와 이태두 등은 지명과 김부탑, 그리고 김부대왕제를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 믿은 것이다.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분리해서 기록해야 하고, 논

의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찾아가고, 민중적 진실은 그들의 또 다른 삶의 역사이므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 먼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입장은 김부대왕(金傅大王)이라고 표기하는 경순왕이 인제군에 올 리가 없고, 마의태자를 김부대왕(金富大王)이라고 부른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부(金傅)와 김부(金富)에 대한 혼돈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규경이 <金傅大王辨證說(김부대왕변증설)>에서 착각을 했던 것이다. 김부대왕(金傅大王)이 김부대왕(金富大王)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¹²

그렇다면 황응규(1518-1598)가 ‘金傅王墓(김부왕묘)’라 표기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¹³ 반면에 역사적 사실이며 김부대왕(金富大王)은 마의태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정사(正史)의 기록은 없는데, 여러 지명의 일치와 김부탑(金富塔)의 명문(銘文)과 김부대왕제(金富大王祭)의 신위(神位)를 사실(史實)로 믿은 데에 있었다. 이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

11 신종원, 앞의 책, 96쪽.

12 이것은 박신정도 경순왕=金傅大王=金富大王으로 보았고(박신정, 앞의 논문, 36-43쪽), 전신재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전신재, 앞의 논문, 82쪽) 주민들은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영험을 기대해서 지역마다 달리 믿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같은 논문, 같은 곳)

13 “金傅王墓至今有城門縣民諱之蓋其苗裔甚盛堆其墓則有弊云 김부왕묘는 지금 성문만 있다. 마을사람 지개는 그 후손인데 숲이 무성한 언덕이 그 묘인데 즉 피폐해졌다고 말한다.” 『송간고』. 인제군 최병현 제공.

록과 일단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개골산은 금강산의 이칭인데 설악산에 개골산이 있다고 주장했고, 마의태자 무덤은 금강산에 있는데 김부리에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증거가 인멸된 뒤였다. 그런데 여기서 철마상을 갖고 ‘金富大王=마의태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철마상은 어느 서낭당에나 있었던 것으로 특별히 대왕각과 관련을 지어서는 곤란하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왕각이 마을의 서낭당이었다는 주장 내지는 대왕각을 어느 특정 사람들이 서낭당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두 입장은 이렇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변이 전승된 설화일 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명과 설화와 김부답과 김부대왕제가 모두 ‘金富大王=마의태자’라는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경순왕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며, 마의태자가 이곳에 와서 살았으며, 여기 사람들은 김부대왕(金富大王)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면 더 좋겠지만, 민속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2) 김부대왕제의 대왕신격

김부리의 김부대왕제는 1천년 이상 전승되어 온 것으로 현재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의의 신격에 있다. 이는 제의 당사자와 논자들의 인식이 다르며, 그 신격과 제의 양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인제군 김부리의 김부대왕제의 신격(神格)에 대해 많은 사람이 언급했다. 이 중에 김부(金富)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신격은 김부답의 명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부답의 명문을 그대로 믿는다면 김부대왕제의 신격은 바로 김부(金富)가 된다. 그것이 1036년이니, 고려초기의 김부대왕제의 처음 신격은 바로 김부(金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황응규(1518-1598)의 지적인데 한자 표기는 김부왕(金溥王)으로 하였다. 물론 황응규의 언급에 제를 지냈다는 것은 없으므로 신격



부안 김 씨의 김부대왕제 장면4(2012)

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대왕제의 신격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이규경(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이다. 이때 이규경은 김부대왕(金傅大王) 곧 경순왕으로 인식했다. 그 다음은 지명으로 전하는데 『조선지리지』(1911)에서 ‘짐부왕(金富王)’

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1967)에는 대왕당(大王堂)이라 하고, “거릿말 서북쪽 산에 있는 신당. 김부대왕을 위하여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취떡과 제물을 차려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냄.”¹⁴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김부대왕은 다른 곳에 김부동(金富洞) 또는 김부리(金富里)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한자로 쓰면 金富大王으로 쓸 수 있다. 이후 1980년 김종권의 언급에 따라 부안김씨를 필두로 그 후손들은 모두 ‘金富大王=마의태자’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김부사적기』(1987)에서도 함께 인식하며, 서로 공조를 하고 있다. 『인제군사』(1996) 등의 인제군에서 출간한 문헌에서도 이를 따라 ‘金富大王=마의태자’로 굳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논자들에 의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다. 그중 윤형준은 신격을 구비전승된 신격과 위패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때 구비전승된 신격은 1982년까지 ‘경순왕(金富大王)’이며, 1984년대에서 1995년까지 ‘마의태자(金富大王)’로 변했다고 했다. 김부(金富)라는 한자 표기는 같은데, 경순왕에서 마의태자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패는 3개를 거론하고 있는데 표기만 조금 바뀌었을 뿐 모두 경순왕의 아들이라 했다.¹⁵ 다음 신종원은 일종의 마을에 흔히 있는 신당(神堂)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신격을 인물신으로 하는 것을 부

14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349쪽.

15 윤형준, 앞의 논문, 60쪽.

정하였다. 원래는 그냥 신당이었는데 전설에 부회하여 유교식 위패를 모시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¹⁶ 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실여부를 캐는 작업이므로 동제의 신격에 대한 여부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박신정은 분명히 경순왕인데도 불구하고 위패의 내용을 ‘金傅’



경주 김 씨 마의태자 추향대제2(2016) 제향 대상이
경순왕 태자와 대장군공 두 명임

가 아닌 ‘金富’로 잘못 썼다고 하면서,¹⁷ 이는 후대에 역사인식을 한 사람이 경순왕과 맞지 않자 그의 아들로 바꾸었다고 하였다.¹⁸ 전신재는 김부(金傅)와 김부(金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하지 않았으나 김부대왕이 서낭신으로 좌정하였고, 필요에 의해 자연신이 인격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변모하였을 것이라 하였다.¹⁹

위패의 변화를 통해서도 신격을 말하고 있다. 김부리 대왕각 옆에서 매일 대왕각을 청소하고 돌보며 동제를 마지막까지(1997년 5월) 치렀던 윤홍규 제보자의 구술에 의하면 6·25한국전쟁 전에는 위패가 “대왕지신위(大王之神位)”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²⁰ 그런데 신종원의 서술에 의하면 1944년 원래 있던 제당을 개축했는데 이때 위패가 “경순대왕일자신위(敬順大王一子神位)”였던 것이 “경순왕제일자김부지신위(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로 바뀌었다. 이후 1982년 부안김씨들이 개입하면서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鑑之神位)”로 바뀐다. 1987년 갑둔리 오충석답 곧 김부답이 발견되면서 “김부수명장존가(金富壽命長存

16 신종원, 앞의 논문, 90쪽.

17 박신정, 앞의 논문, 47쪽.

18 위의 논문, 48쪽.

19 전신재, 앞의 논문, 83쪽.

20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240쪽.



경주 김 씨 마의태자 추향대제2(2016) 제향 대상이
경순왕 태자와 대정군공 두 명임

家)”라는 명문 때문에 다시 “경순왕제일자김부지신위(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가 되었다고 했다.²¹ 이것은 2001년 부안 김 씨 종중에서 대왕각을 다시 짓고 위패를 “신라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鎰公金富大王神位)”로 바뀌서 현존하고 있다.²² 이때 윤홍

규를 비롯한 모든 제보자의 구술을 믿는다면 김부리 대왕각의 위패는 ‘대왕-경순대왕일자-경순왕제일자김부-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경순왕제일자김부-신라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김부(金富)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1944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대왕이란 칭호를 쓰게 된 것은 2001년에 와서 된 것이다.

이처럼 김부리 대왕각의 신격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를 초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을 자세히 보면 한자의 쓰임이 달랐을 뿐 ‘김부(金傳, 金溥, 金富)’라는 명칭은 계속 쓰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김부가 인명(人名)인가 ‘김 씨 부자’인가의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과 이태두 향토사학자, 인제 군민에 의해서 김부는 곧 마의태자라는 인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신격은 ‘金富大王=마의태자’가 되어 전하고 있다. 이것은 ‘대왕당(大王堂)’, ‘서낭당’, ‘대왕각(大王閣)’이라는 당집의 명칭에도 이견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자연신으로서의 산신(山神), 서낭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격신으로서 김부대왕을 보는 경우로 나뉘어 있었다. 현재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다만, 2012년까지는 제사를 부안 김 씨 후손들에 의해서 김부대왕(金富大王: 麻衣太子)을 추모하는

21 신종원, 앞의 책, 86-9쪽.

22 이학주, 앞의 책, 233쪽.

대왕제사를 지냈고, 그 후부터는 경주 김 씨 후손들에 의해서 상남2리 마의태자마을 비각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에 인격신(人格神)으로 완전히 굳어졌다.

3 김부대왕제의 변천과 지역적 특성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제군에서 전승되는 김부대왕제는 개인, 마을, 후손에 의해서 제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부대왕제는 이 지역에서만 있는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를 문헌과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의의 변천

(1) 개인적인 치성의 형태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는 토끼봉이 있고, 그곳에 얹힌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언제부터 향유되었는지는 모르나 인제군의 설화를 소개하는 책자에는 〈토끼봉의 전설〉이란 제목으로 모두 기재돼 있다. 설화에서 김부대왕의 신격화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다.

옛날 이곳에 한 부부가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김부대왕을 찾아가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하였다. 김부대왕은 이들 부부에게 절을 짓고 부처님께 백일기도를 드리라고 하였다. 이들 부부는 김부대왕의 말씀을 따라 백일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들딸 쌍둥이를 낳아 잘 길렀다. 김부대왕이 돌아가시자, 이들 부부는 김부대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대왕각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그 후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



경주 김 씨 마의태자 추향대제3(2016) 위패가 신라경순왕 태자경주김일(新羅敬順王太子慶州金鎰)로 바뀜

도 대왕각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²³

김부대왕의 신격화를 아주 잘 나타내는 토끼봉 유래의 전설이면서 김부대왕이 개인적인 치성의 신(神)으로 되는 신화(神話)이다.

설화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나, 이 설화를 인제사

람들이 향유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뒤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마을이 있었던 1997년까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 대왕각에 와서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이었다.²⁴ 설화와 실체가 공존하고 있다. 물론, 마을에서 공동으로 치성을 드리는 서낭당이나 산제당은 개인의 치성 장소로도 쓰이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부대왕에 대한 제의가 가장 먼저 행해진 것은 동제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개인치성의 형태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자식을 점지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시작해서, 나중에 김부대왕이라는 인격신(人格神)이 된 것이다.

(2) 마을주민에 의한 공동제사의 형태

김부대왕에 대한 제사는 개인치성의 형태에서 언제부턴가 마을공동의 제사를 행하는 동제가 되었다. 이것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관심사가 되고, 마을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체감을 주는 행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마을사람들은 김부대왕이 마을의 화복(禍福)을 결정짓고, 마을을 수호해 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23 『인제군의 유적·지명·전설』, 앞의 책, 360-1쪽.

24 이학주, 앞의 책, 241쪽.; 윤형준, 앞의 논문, 70-3쪽.

김부대왕이 마을공동의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마을 공동의 인격신으로 좌정한 것이다.

마을신앙으로서 김부대왕제는 그 전승에 있어 세 가지 입장에서 변화를 거론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신격이 마을 공동 신앙의 형태이거나 실존 인물에 대한 추모제의 형태이거나이다. 또 하나는 대왕신앙이 마을의 상위신으로 모셔졌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의 변천에 따라 개체 수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럼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김부대왕의 신격이 마을신의 존재에서 실존 인물에 대한 추모제의 형태를 취했다는 것은 아주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

(가)사람들은 이곳을 대왕이 계신 곳이라 하여 일반적인 서낭의 개념과는 달리 생각했다. 대왕은 서낭신이 아니라 인격신이라는 것이다. 간혹 서낭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보면 그냥 일반 신 모시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장을 볼 때 이것은 서낭당 식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왕이면 왕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2009년 채록자료)²⁵

(나)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마을사람이 평안하고 농사 잘 짓도록 지켜주십사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참석한 사람들이 절을 올린다. 대왕당 제사에는 산치성과 달리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김부대왕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어른이지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1996년 채록자료)²⁶

대왕제가 서낭신앙과 같이 일반적인 동신의 형태를 취하다가 어느 때부터 왕을 추모하는 제사의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가 이장을 볼 때이다. 그런데 인용문 (가)(나) 모두에 보면 과거에 지내던 일반 동신의 유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25 이학주, 앞의 책, 239쪽.

26 남근우 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도 인제군, 1996. 103쪽.

한 열댓 살 먹어서 그래 그땐 새로 다시 짓고 그릴 때는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한 번은 옛날엔 소잡고 돼지잡고 지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堂 안에는 철마가 있었는데 그 철마는 대왕당에는 없었고 서낭에 있었어요. 거 어제 대왕당에는 제사지낼 때는 제위 모시듯이 그 이제 김부대왕이라는 글씨 써서 있었어요. 위패에는 경순대왕일자신위라는 글자가 있었다는...²⁷

과거에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등 일반 동신의 형태로 제사를 지내고, 그 성격은 경순대왕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도 역시 동신과 왕에 대한 추모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차차 서낭당 식 동신의 형태는 사라지고, 김부대왕을 기리는 추모제의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둘째, 대왕신은 마을에서 상위신으로 하위신인 산신과 서낭신의 위에 있었다. 그래서 대왕당의 제사는 일 년에 두 번 고정적으로 있고, 산신제를 지낼 때 따로 대왕당에 제물을 올려 고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그 반대로 대왕당 제사를 지내고는 산신이나 서낭신께 고하지는 않았다.

산치성이 끝나면 도가가 서낭당과 대왕당에 메 한 그릇과 술 한 잔을 올리고 간단히 절을 한다. 대왕당에 올리는 것은 ‘대왕님께 인사드린다.’고 하고, 서낭당에는 ‘제를 올린다.’고 말한다. 대왕당 제사는 제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치성 때에는 간단히 메와 잔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서낭제는 산치성에 쓰였던 제물을 물려 진설하고 술을 붓고 절을 하는 것으로 간단히 치른다. 서낭당이 있었던 비독재와 본동 모두가 산치성 후에 서낭제를 지낸다.²⁸

이처럼 김부리의 마을제사는 대왕제, 산신제, 서낭제의 세 개가 있었다. 그런데 이의 상하위 신의 계층을 보면 ‘대왕신> 산신> 서낭신’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박신정은 대왕신은 마을 전체를 통어하는 신이고, 산신과 서낭신은 마을의 작은 골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신은 서낭신의 상위신

27 윤형준, 앞의 논문, 61쪽.

28 남근우·박신정, 앞의 책, 101-2쪽.

으로 보았다.²⁹ 그러면서 관념적 층위로 볼 때, ‘서낭신 <산신 ≒ 김부대왕신>’으로 동신의 층위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³⁰ 이처럼 김부대왕은 김부리에서 마을신의 상위층에 있었다.

셋째, 개체수의 변화로 대왕의 충신을 제사하는 충신각까지 있다가 인구가 줄자 다시 대왕각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남2리 마의태자권역(마의태자마을) 전경

김부리에는 본동의 대왕당 이외에 항병골과 단지골에도 대왕당이 있었다고 한다. 두 곳 모두 소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 두 곳의 대왕당을 충신각이라고도 부른다. 원래는 본동의 대왕당에 김부리의 모든 자연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를 올리던 것을 항병골과 단지골의 인구가 늘면서 모셔간 것이라 한다. 그러나 6·25동란 등으로 소실되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본동의 대왕각 제사로 모여들게 되었다.³¹

이런 변화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골의 인구가 늘면서 독립된 자치지구가 형성되고 그 자치지구는 그들만의 정치적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마을의 상위신인 대왕신을 모셔서 독립자치지구의 권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원래 대왕신을 모시고 있던 본동에서 파생된 골이라 항병골과 단지골에서는 대왕당의 명칭을 달리해서 충신각이라했던 것이다. 이때 충신각의 의미는 김부대왕이 신라의 충신이라 해서 붙여진 것인지, 아니면 김부대왕의 신하 중의 어느 충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구가 줄면서 더 이상 독립자치지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항병골과 단지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립된 제사를 그만두고, 다시 본동으로 귀의한 것이다.

29 박신정, 앞의 논문, 25-7쪽.

30 위의 논문, 31쪽.

31 남근우·박신정, 앞의 책, 102-3쪽.

이처럼 김부리의 김부대왕제는 마을의 최고신을 모시는 동신신앙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김부대왕을 추모하는 유교식 기제(추모제)의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대왕각은 세 곳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었고, 마을이 없어질 때까지 - 산신제와 서낭제는 없어졌으나 -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층위의 관념으로 볼 때 최고의 상위에 있던 동신(洞神)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3) 마의태자 후손에 의한 조상 제례의 형태

동제의 형태로 행해지던 김부대왕제는 김부대왕의 후손에 의한 제례로 바뀌게 된다. 정확한 연대는 1987년 중양절부터이다. 이때부터 부안김씨 후손들은 매년 150~300여 명 정도가 중양절에 와서 제례를 행하고 있었다. 아주 큰 제례행사이다. 전국의 지회에서 버스 한두 대씩 대절을 해서 제례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부리에서 마을주민에 의한 마지막 동제는 1997년 음력 5월 5일의 단오 때 제사이다. 이후에는 중양절에 지내는 문중제사만 남게 되었다. 1987년과 1995년까지는 마을 주민에 의해서 단오절과 중양절에 동제가 아침에 치러지고, 중양절에는 마을동제가 끝난 오전 11시에 후손들에 의해서 조상제례가 행해졌다. 1996년의 단오제는 마을의 사정으로 인해서 동제는 행해지지 못했다.³²

마을 단위에서 문중 단위로 제사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대왕당(大王堂)이 대왕각(大王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왕각의 건물도 2001년에 문중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 지었고, 위패는 “신라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鑑公金富大王神位)”라 하여 김부대왕으로 변경하였고, 영정을 4천만 원을 들여 그래서 걸어 놓았다. 또 제물은 대왕을 모시는 왕제사에 맞춘다고 하여 떡을 제외한 모든 제물은 날것으로 하였는데, 취떡과 미나리는 원래 김부대왕이 즐겨 먹던 것이라 하여 변함이 없었다. 흥기를 만들어서 제례절차를 왕의 제례절차

32 위의 책, 104쪽.; 박신정, 앞의 논문, 20쪽.

에 따라서 하며, 절도 2배에서 4배로 바뀌었다. 복장도 그에 맞춰서 입었다. 동제에서는 축원만 했는데, 축문을 써서 읊게 되었다. 그리고 축문의 날짜는 서기나 단기가 아닌 신라기원으로 하고 있다.³³

이처럼 김부대왕제는 마을에서 문중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면에서 변화를 보였다. 마을제사의 형태일 때는 마을의 안녕과 복락을 기원했다면, 문중으로 제사가 넘어가면서 문중의 궁지와 선양과 단결 차원에서 행해짐을 알 수 있었다. 후손들은 마의태자가 신라에 항복하지 않고 이곳에서 구국 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축문과 상량문에 보면 잘 드러난다. 축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誠深衛國 義大存宗 烈烈其心 卓卓其節(성심위국 의대존종 열열기심 탁탁기절)”³⁴이라 하였다. 이를 번역해 보면, ‘정성을 다해 나라를 구하고자 한 의리는 아주 높고, 세차고 굳센 그 마음과 높고 높은 그 절개’정도가 된다.

김부리에서 부안 김 씨 후손들이 지내던 제사를 경주 김 씨들이 상남2리에 가져와서 지내면서 위패도 바뀐다. 그리고 두 명을 같은 제각에 두고 함께 제사하고 있다. 위패는 신라경순왕태자경주김일(新羅敬順王太子慶州金鑑)로 바뀌어서 왕에서 태자로 강등되었다. 함께 제사 지내는 위패는 고려대장군경주김공순웅(高麗大將軍慶州金公順雄)이다. 제사 날짜는 마의태자마을인 상남2리에서 마의태자축제를 열 때이다. 축제에 후손들이 참석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2) 제의의 지역적 특성

김부대왕제는 논란이 많은 제사이다. 김부대왕의 실체부터 대왕당의 성격, 그리고 제의의 전승주체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변화와 논란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제사가 없어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전승되고 있어 흥미롭다.

김부대왕은 이 지역에서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를 일컫는다고 했다. 그리고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서 그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

33 이학주, 앞의 책, 234-270쪽.

34 위의 책, 258쪽. 상량문의 내용은 같은 책, 242-5쪽을 참고하기 바람.

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바로 망한 신라를 도로 찾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결국 마의태자는 나라를 도로 찾지는 못했지만, 그의 후손이 만주벌판으로 건너가 금나라를 세웠다고 『고려사』, 『만주원류고』, 『금사』, 『송막기문』 등에 전하고 있다.³⁵

그런데 마의태자 자신은 결국 신라의 패망을 떠안고 한 많은 생을 살다가 이 지역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냥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살아서 구국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민을 위해서 경주의 선진문화를 전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마의태자는 김부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를 이 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유품이 바로 김부대왕제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왔다.

김부대왕제가 갖는 제의 자체의 특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제의의 주체인 김부대왕과 김부리(상남2리)의 관계, 그리고 제의와 관련되어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김부대왕제를 통해 볼 때, 첫째는 김부대왕이 인격신으로 이 지역에 좌정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지역에만 머물렀다는 것이고, 셋째는 제사를 지내고 구국활동과 관련하여 씨름과 그네와 석전(石戰)을 했으며, 취떡을 감취두고 찾아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 김부대왕이 이 지역의 인격신으로 좌정한 것이다. 일찍이 김부대왕이 마을의 인격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원인을 비극적인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이 있다.³⁶ 이것은 결국 김부대왕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은 데에 따른 현상이다. 설화에 의하면 김부대왕이 이곳에서 구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진두지휘하던 맹 장군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³⁷ 그래서 그 증거로 옥새 바위 등이 이곳에 전한다는 것이다.

35 kbs역사스페셜65회 참조.

36 윤형준, 앞의 논문, 63-9쪽.

37 이태두, 『김부사적기』, 앞의 책, 12-3쪽.

둘째는 김부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만 동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신이 아닌 인격신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광포와 협의의 신이 그것인데, 협의의 인격신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태공의 부인 마 씨 할머니가



마의태자 축제(2016)

전국에 걸쳐 성황신으로 좌정한 경우는 광포의 신이다. 그런데 이런 신은 그 마을과 특별한 인연이 주어져서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영월 정선 태백의 단종대왕신, 홍천 내면의 권대감신, 인제 기린면의 박대감신, 강릉의 범일국사신 등등은 그런 인격신이 살아생전에 그곳을 거쳐 갔던가 특별한 인연이 주어졌을 때이다. 그렇다면 김부대왕신은 김부리와 어떤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김부대왕이 역적으로 몰려 이곳에 피신했다는 제보도 전한다.³⁸ 이는 『삼국사기』에 전하는 내용과 어느 정도 상통하고 있다. 개골산이 금강산이든 설악산이든 이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셋째, 제사를 지내고 나서 구국활동과 관련하여 씨름과 그네와 석전과 취떡 찾아 먹기를 했다는 것이다.

본동 김부대왕제에는 김부리 내 모든 골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오전의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뛰기도 하며 즐겼다. 골 단위의 돌싸움[石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³⁹

동제가 끝나면 취떡을 갈잎에 싸서 근처의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 놓았는데 이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다고 한다. 그 까닭은 김부대왕이 생존 시 취나 쭈을 먹으며 나라를 되찾으려 노심초사했었음으로 이

38 윤형준, 앞의 논문, 64쪽.

39 박신정, 앞의 논문, 20쪽.

것을 찾아 먹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여자는 길쌈을 잘 하게 되고 남자는 글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⁴⁰

단오절과 중앙절 때 모두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나, 단오절 때라면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풍속이다. 그런데 석전놀이와 취떡을 찾아먹기를 하면서 김부대왕의 구국활동과 연계를 짓고 있어 특이하다. 다시 말해서 단오절의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단오절의 행사도 김부대왕의 구국활동과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김부대왕제는 김부리에서만 동신의 역할을 했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단오절의 행사도 김부대왕의 구국활동과 연계하여 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김부대왕제는 이 지역과 관련을 맺는 독특한 제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부대왕이 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부대왕은 실제인물이든 신앙의 형태로 존재하는 신격인물이든 간에 이 지역 사람들의 정신적인 주체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잘 전승되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각각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여 법정 다툼이 전개되었고, 법정 판결에 따라 부안 김 씨에서 경주 김 씨로 제의의 주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제각의 위치도 군사시설 때문에 김부리에서 상남2리 마의태자권역(마의태자마을)로 바뀌었다.

4 맺는말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군 김부리에 전승하고 있는 김부대왕제에 대해서 고찰했다.

이 제시는 그동안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다. 김부대왕이 누구냐 하는 실체부터, 신격이 그냥 신당형태인가 아니면 인격신으로서 역사적

40 윤형준, 앞의 논문, 72쪽.; 남근우 박신정, 앞의 책, 103쪽.

실체인 마의태자인가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제사를 지내는 양상도 개인, 마을, 조상제사로 바뀌었고, 그 때문에 김부대왕제만의 특성도 드러났다.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 배경은 김부대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여부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부대왕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입장과 사실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는 현재 전승하고 있는 제의에 담긴 민중적 진실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바탕을 두고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본다.

먼저 김부대왕의 실체는 한자 표기에서 혼란이 있었다. 경순왕을 『삼국사기』에서 한자로 김부대왕(金傅大王)으로 표기하였는데,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과 한글 음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논의를 결과 한자음의 부(傅, 溥, 富)는 혼용되어 쓰였고, 한자 표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부대왕(金傅大王)과 김부대왕(金富大王)은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그 신격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냥 마을에 흔히 있는 신당(神堂)이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김부대왕(마의태자)을 모시는 인격신으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원래부터 김부대왕(마의태자)을 모셨다는 주장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증거인 위패로 보면 분명히 경순왕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으나 마을사람과 그 후손들은 김부대왕(마의태자)을 모신다는 사실이었다.

김부대왕제는 개인-마을-조상제사의 형태로 변해왔다. 그리고 동제는 복을 구하는 것과 인격신에 대한 것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부터 인격신을 제사하는 추모제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김부대왕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층의 신이었고,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제각의 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부대왕제는 김부리 지역의 인격신으로 좌정해 있었고, 이 지역에서만 전승했으며, 제의 속에 구국활동과 관련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후손들의 범정 다툼으로 위패가 바뀌고, 군사시설로 인해 제각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안타까웠다.

이 논의는 천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추정하는 제사의 실체와 그 변화를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곧, 우리나라 인격신을 모시는 동제의 변천과 특성의 단면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2023.11.29. 수정)

참고문헌

- 권혁준, 「인제군 인물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부식, 『삼국사기』상, 이병도 역, 을유문화사, 1986.
- 김용덕, 「경순왕 설화의 형성배경과 의미연구」,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 김창원 편저, 『자랑스런 조상의 발자취』, 부령(부안)김씨소윤공파총회, 2000.
- 김춘식·김수선, 『金富大王 麻衣太子的生涯』, 마의태자송모회, 2001.
-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 : 金傳大王 신격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논문, 1999.
- 「신라최후의 미스터리, 마의태자」, kbs역사스페셜 제65회.
- 신종원, 「갑둔리 5층석탑 명문과 관련된 역사해석의 문제」, 『인제 갑둔리 일대 석탑 조사 보고서』, 인제군·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윤형준, 「김부리 대왕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10, 인제문화원, 1995.
- 이태두, 『金富史蹟記』, 갑둔향토사적연구회, 1987.
- 이태두, 『인제조상의 얼』, 강원도인제교육청, 2000.
-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 『인제군사』, 인제군, 1996.
-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문화원, 2007.
-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 전신재,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민속학』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 황응규, 『송간고』, 인제군민 최병현 제공.

〈Abstract〉

A Study on the Memorial Ritual of Great King KimBu(金富大王)

Lee Hak-ju

This is a study on the memorial ritual of Great King KimBu(Crown Prince Maeui, 麻衣太子) which is held in Inje-gun Gangwon-do. Crown Prince Maeui is called Great King KimBu in this region. As there is no historical document, the historical truth is controversial. The identity of Great King KimBu and the identity, the holiness and the history of this memorial are controversial. But the fact is that it is still being held. So I dealt it with the current facts and from the view of fork people.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must have been a misspelling in the use of the chinese characters. The pronunciation of 金富大王 is the same as that of 金傳大王, another name of the King KyeongSun written in “The History of Three Countries(『三國史記』).” Most of the researchers resulted in that the exact character was not more important than the pronunciation, so a few chinese characters were used indiscriminately. So I figured that 金傳大王 and 金富大王 are different figures.

In the holiness, there are two point of views. One is that the object of the memorial has been changed from the former totemistic god 金傳大王 to a defied mortal 金富大王. The other is that the object of the memorial has been the defied mortal 金富大王 from the beginning. Anyway the memorial ceremony has been being held.

The memorial of Great King KimBu has been changed from personal to county-level and again to family memorial. County-level memorial had been both for the welfare and a defied mortal worship but at some time it became a defied mortal worship only. This Great King has been the highest god, and the number of the memorial building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population.

The Great King KimBu has been seated a localized defied mortal, and its memorial has a sense of patriotism or for the sake of country.

※ **Key Words:** Identity of Great King KimBu(金富大王), Memorial of Great King KimBu(金富大王), Holiness of Memorial of Great King KimBu, Historical truth, History of memorial, Characteristics of memorial.

地域學 研究 觀點에서의 麟蹄郡 歷史人物 콘텐츠事業 提言

한승윤 인제문화원향토사연구위원

〈목차〉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론 2. 인제군의 역사인물 콘텐츠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해 한용운 2) 시인 박인환 3) 여초 김응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에 대한 제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부대왕과 마의태자 2) 구암 김연국 3) 시인·소설가 이외수 4) 방송인 김국진 5) 프로골퍼 이보미 4. 결론 |
|--|---|

1 서론

최근 향토사학계의 화두(話頭)는 단연 지역학(地域學)¹이다. 이는 각 지방 문화원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연구 추진하며 발간사업을 벌여오던 향토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명칭을 앞에 붙이고 역사와 근현대사는 물론 다양한 분야(分野)를 총망라하여 연구영역에 포함시키는 학문(學問)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제군이 펼쳐고 있는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에 대하여 지역학 연구 관점(觀點)에서의 제언(提言)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이미 지역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관련 학계의 관심을 받게 된 지 20여 년이 지나

1 지역학(地域學) : 지역학의 목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위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언어, 문학, 법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과학문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교류를 바탕으로 한 융합학문이다.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홈페이지 발췌.

고 있지만, 특정 집단이 연구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지엽적인 주제들을 다룬다는 지적이 있었다.²

이는 지역학이란 새로운 분야의 학문(學問)에 대하여 정의(定義)하는 학자들이 소수(小數)에 그치고 말았던 까닭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며, 1980년대를 풍미(風味)하던 소위 MIS³ 전공학과를 앞다투어 설치하고 관련 학과 출신 박사들을 섭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일부 대학교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MIS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으로 번역되었다. 컴퓨터가 발명되고 실생활에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경영 법을 찾던 학자들에 의하여, 정식학문으로서의 체계를 확립하고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며 주목을 받았으나 우리나라 기업 정서에서는 접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MIS를 활용하여 도출(導出)된 결과에 대하여 오너가 동의(同意)하지 않는 사안(事案)이 빈발(頻發)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이 소위 사장(死藏)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식 마인드를 가진 오너들과 맨손으로 부(富)를 이룬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회사 운영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2 김선호, 『지역학이란』, 부산외국어대학교(PUFS), 2012.

3 MIS :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 내외의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수집·전달·처리·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 시스템. 이 경우의 의사결정이란 매우 넓은 뜻의 개념으로서 계층적(階層的)으로는 좁은 뜻의 경영정보 시스템·관리정보 시스템·작업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직능별로는 재무·구매(購買)·생산·노무·판매 등의 각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런 2차적인 각 정보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시스템화(化)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새삼스럽게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각 기존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을 꾀할 필요성이 오늘날 매우 컸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대용량화와 시스템 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의 진보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경영정보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는 발생·장소별·용도별·계층별·부문별·보존·연한별로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첫째 과제이고, 둘째로는 각 정보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 셋째로는 정보의 전달·처리의 신속화를 어떻게 이룩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기초로 수집·처리·전달의 네트워크(network)를 조직할 때, 경영정보시스템이 나타나게 된다.~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經營情報-] (두산백과 두피디아)

지역학 또한 MIS의 전철(前轍)을 밟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연유로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향토사 연구와 동일(同一)한 연장선에서 지역학을 바라보고, 선발 주자 격인 제주학(濟州學), 부산학(釜山學)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 방법을 채용(採用)하여 연구논문 집필(執筆)에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제군의 지역학 연구과제는 가히 무한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넓은 땅, 그것도 첫번째⁴와 174km²면적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국토 면적을 비롯하여 멀리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였고 그 이후에는 왕건이 세운 고려(高麗)와 대립하던 시기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 해방 이후에는 38선을 기준으로하여 남북한으로 나누어졌고, 1950년 6월 25일 빗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휴전선(休戰線) 혹은 D.M.Z로 부르는 ‘민간인 접근 불가 지역’으로 분단되어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지역적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또한, 남한 최고의 풍치(風致)를 자랑하며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장철(四時長一)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설악(雪嶽)을 품고 있는 고장(古藏)이기도 한 까닭으로, 자연과 환경, 생태, 기후, 식생, 지형, 지질, 동물, 문화재 등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 분야의 종류와 경계를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하늘이 내린 천혜(天惠)의 자연환경과 국토(國土) 지리(地理)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제군의 지역학 연구과제는,

4 홍천군 면적 1,820km², 인제군 면적 1,646km²

소위(所謂) 무한대(無限大)라 하여도 어느 누가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콘텐츠가 무한대로 기능함에 따라 다수(多數)의 지역학연구소의 필요성도 느껴진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지역학연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인제군의 역사 인물 콘텐츠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경과와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작금의 트렌드라 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서의 대안(代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필자는 그동안 수년에 걸쳐 지역 출신이 아닌 특정 인물들에 대한 선양 사업과 기념관 건립, 학술행사 등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인물에 대하여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집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학술기관이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전문인력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집필하여 만들어내는 전문연구서가 아니고, 그간 향토사 연구논문 발표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지역문화원 향토사 연구 위원 1인의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인제군은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넓은 땅덩어리에 비하여 인구수가 33,000명에 불과한 작은 군(郡) 단위이다. 그런 사정으로 현 자치단체장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군인들과 그 가족의 숫자까지 모두 합쳐서, ‘7만 인제군’이라는 군정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이라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膾炙)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고,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소위 국방개혁이라는 타이틀로 군부대가 사라지는 현 상황에서 군인들과 그 가족들 숫자까지 개별지방자치단체 인구수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날 인제군의 군세(郡勢)가 이렇게까지 약화(弱化)되고, 속된 말로 쪼그라들게 된 이유는 그 연유가 중앙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60년대에 계획 입안된 소양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인구수가 68,000명에 육박하던 인제군의 인구가 반 토막이 되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좋고 경기가 좋아서 “개도 입에 달리를 물고 다녔다.”라는 말로, 1960년대 인제군의 경제 상황을 기억하고 호시절로 회상(回想)하는 지역 촌로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했다는 것이다. 산골 화전민들이 대다수였던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지만, 달러 맛을 톡톡히 보았던 경제가 활성화된 마을이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군단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니 그에 따른 예하 부대가 한 곳에 모여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에 덧붙여 해방이 되면서 38선을 지키던 미군부대가 전쟁 이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군인들의 숫자가 5,000명에 가까웠다니 그들이 인제군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을지는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돈이 돈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활황(活況)을 띠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 보니 향학열 높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지역 출신들이 원근 각지의 상급 학교들로 앞다퉈 유학을 가게 되었고 이들은 졸업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시기의 고향은 농토는 물론 마을마저 수장(水葬)되고 사라져버린 처참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름진 농토마저⁵ 모두 수몰되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등지게 된 인구수가 자그마치 인제군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5,00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렇듯이 군(郡) 전체 인구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부(富)의 유출(流出)과 함께, 인재(人才)의 유출이 있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지역 출신이 아닌 공무원들로 대부분 채워지게 된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번번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금번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자치단체장 치적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중 역사인물 콘텐츠사업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차제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한 예산의 적재적소 배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 방법이 기존의 지역학 연구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전문연구자의 시각에서는 지역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고 민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없는 것이니 오류(誤謬)가 있다면 바로잡으며 쫓쫓하게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에 지역학 연구라는 과제는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라는, 지역학 연구 본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지역학 연구의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5 부평리, 구만동, 관대리는 물길에 갑자기 굽이치며 퇴적되는 지역으로 인제군에서도 농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또한,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과제 선택을 하는 단계에서 여타 지역의 과제들이 조선시대와 근현대사 일변도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시도한 지역학 연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현대까지 연구를 확장하고자 시도하겠다는 의미이다.

2 인제군의 역사인물 콘텐츠사업

1)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韓龍雲)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 종교인이자 시인이며 특히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3·1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태화관에서 있었던 민족대표 33인의 회동(會同)에서, 불교계 측 인사 2명 중 1명으로 참여했다가 옥살이를 하였던 일화(逸話)는 교과서에 나올 정도이다.

인제군에는 지난 2003년 준공한 만해마을이라는 명칭의 만해 한용운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21,000㎡ 크기의 땅에 만해기념관과 문인들을 위한 숙소인 문인의 집, 야외 공연을 위한 님의 침묵 광장, 청소년 수련 시설로 지어진 설악관, 금강관, 개인 숙소로 만들어진 심우장 등의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동국대학교 만해마을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해당 시설은 민선 1, 2, 3기 시절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김진선⁶ 전 도지사와 지금은 고인이 된 전 백담사 주지 무산오현(霧山五鉉) 스님⁷의 굳건한 인맥(人脈)과 갖은 노력(努力)의 결과물로 건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6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3선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강원도지사로 재임하였다.

7 무산 조오현 스님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태어나 2018년 입적하였다. 경남 밀양 출신이고 시인이다.

지난 2018년 무산오현 스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만해마을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확대되었을 것이고,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는 승모 선양 시설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을 것이라는 말이 대다수 인제군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예산들이 만해마을이라는 시설에 투입 사용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전격적인 실시로, 전국적으로 빚어진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로 대변되는 많은 사업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한차례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전례(前例)가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중앙집중식 규제 일변도의 행정구조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성을 갖추도록 하는 말 그대로 민주국가의 행태를 보여주고자 마련된 제도였다.

1995년 6월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최초에는 3년이라는 시범적 기간을 거쳐 운영을 준비 시작하였고 그 후 1998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자치단체장을 뽑아 개별단위 자치단체를 총괄(總括)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자치단체장을 뽑는 구조이다 보니 일단 자치단체장에 선출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임기 동안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식의 자치단체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비단 강원도와 인제군만의 사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지난 20여 년이 훨씬 넘는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전반을 지켜본, 대다수 성년 또는 중·노년 국민들은 그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갖가지 시행착오와 폐단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건립 운영된 지 20년이 넘는 만해기념관을 포함한 선양사업 건에 대하여 한정된 시간 동안 연구 발표되는 과제로서 모두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나, 이제 누군가는 나서서 그동안 겪어온 건립 과정과 운영, 미래 설계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제안(提案)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백담사 만해마을 아니 지금은 동국대학교 만해마을로 명칭(名稱)이 개칭(改稱)된 만해마을은, 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라는 단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여 왔다. 시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하거나,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만해 한용운 선사를 선양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매년 만해축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중 세부 행사로 인제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상하는 ‘만해대상’이라는 타이틀로 상을 주고 있다.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분에 걸쳐 시상을 하는 만해대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는데, 그 상금이 분야별로 무려 1억원씩으로 합치면 3억원이나 되며 전액 인제군의 예산이다.

필자는 지난 2012년경부터 매년 충남 홍성군에서 열리는 역사인물축제를 빠짐없이 참관하고 있다.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해방을 한해 앞둔 1944년 6월 29일 사망한 만해 한용운은, 1933년 환속 후 곁혼하여 서울 성북동에 심우장(尋牛莊)이라 이름 붙인 집을 짓고 살다가 서울 망우리공동묘지에 묻혔다.

그간 필자는 인제군에서 많은 예산으로 만해 한용운 선사를 선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복 사업이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하여 왔으며 즉각적인 사업중단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후 인제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만해 선사의 집이 있던 서울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과 선양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 시인 박인환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으로 대표되는 명시(名詩)를 남기고 우리들 곁을 홀연히 떠나버린 시인 박인환(朴寅煥)의 고향(故鄕)이, 강원도 인제군이라는 사실(事實)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듯하다. 설령 시인(詩人)은 알고 있더라도 시인의 고향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 박인환(朴寅煥)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8월 15일에 태어나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인 6·25를 겪으며 종군기자로 참여하기까지 하면서, 겨우 살아났는가 싶었는데 마치 귀청을 찢을 듯한 포성이 멎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1956년 3월 20일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시인 박인환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⁸에서 태어났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은, 고래(古來)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중 최고의 속담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누구누구의 이름을 붙인 문학관이며 기념관, 미술관, 서예관, 도서관, 체육관 등이기 때문이다.

8 그의 이름을 붙인 문학관이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옆에 자리 잡은 까닭일 것이다. 사고와 운신의 폭이 달장 속의 달들과 같은, 공무원들의 한계(限界)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점이자 지점(地點)에 그의 문학관이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123에, 속칭 감성마을로 불리는 이외수문학관이 있는걸 생각하며 남기는 일종의 소회(所懷)이다.

여기에는 덧붙여 요즘의 경향(傾向)이자 새로운 트렌드는 거리 이름으로 명사(名士)를 기념하기인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누군가의 이름을 붙인 거리들이 속속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100여 년도 넘게 사용하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길이름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대역사 끝자락에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명사의 이름을 붙인 거리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에도 하나 있으니 바로 시인 박인환의 이름을 붙인 박인환 거리이다. 하지만 ‘박인환 거리’는 도로명주소가 아니다. 타 지역에 있는 명사들의 이름을 붙인 길 이름이 도로명주소임에 반하여, 박인환 시인은 그의 문학관과 연결한 작은 소로(小路)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체계화된 연구가 미흡하여 그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신라 경순왕 본인 혹은 그의 태자나 왕자 중 한 사람일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는 마의태자와 연관된 ‘김부대왕’은 당당하게(?) 남면에서 상남면으로 가는 도로명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글에 살을 붙여 보았다.

마을마다 분명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오래된 땅이름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현대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며 길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박인환 시인이 지역 출신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시인임에도, 그의 이름을 붙인 도로명주소 하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노래 하나 잘한다는 이유로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받은 가수도 있는데 말이다. 심지어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인(故人)이 된 명사의 이름을 붙인 자치단체도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명사가 졸(卒)하기 전부터 선양사업을 펼쳤던 사실도 있다.

명사의 이름을 붙인 해당 시설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관광버스가 몰려들게 되며 해당 장소는 북새통을 이루었다. 앞서 언급한 트로트 장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화두가 되며 등장한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태어난 경기도 포천시의 한 미장원이 관광지로 탄생하는 기적도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로 인하여 오랜 병상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마저 나오고 있으니 가히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 박인환을 이야기하다 트로트가 붐(BOOM)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폭발적 화제성은 없어도 시인 박인환이 우리에게 남긴 명사들은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나나 무스쿠리로 유명한 가수 박인희는 시인 박인환의 명시(名詩)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으로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진 가수가 되었다. 이름이 박인환 시인과 비슷해서 가족 또는 친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은데, 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박인환 시인 가족들의 전언이다.

가족이건 친척이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인 박인환이나 가수 박인희 두 사람에게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그 두 사람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도출(導出)된 결과이자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다.

인제군이 박인환 시인을 대하는 감정(感情) 혹은 느낌은 필자의 그것과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시각 차이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014년 지역문인 아니 문학 관련 인물들의 시인 박인환을 대하는 태도에서, 끝내 폭발한 필자는 그 후 10년 동안 시인 박인환 전도사 또는 홍보사가 되었다.

그간의 홍보활동은 결코 과하지도 않았고 격렬하지도 않았으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종교지도자의 말씀을 실천하듯 조용하게 묵묵히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하다 보니 선양사업이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자평(自評)할 수 있는 결과도 나오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박인환 시인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제군 혹은 박인환 시인의 선양사업을 펼치는 단체가 제대로 있었거나 그들이 추진하였다면, 일개 국민인 필자가 끼어들어 애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말 먹고 살기도 바쁜 필자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급급했던 상황 속에서도, 박인환 시인 선양사업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인제 사람이라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자 연유(緣由)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같은 인제사람이라는 부분을 떠나더라도 박인환 시인의 선양사업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외지에서 인제로 이주한 이들이 인제 출신 박인환 시인을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힘에 부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사건으로 보였을 것이다. 말이라는 것이 한사람 두사람을 거치다 보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침소봉대(針小棒大)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임이 자명하였고, 마침내 인제군 행정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때가 지난 2014년이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없는, 박인환 시인의 선양사업이라 부르기에도 너무 소박한 거리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최초 예산은 자비(自費)와 지역 금융기관의 대표자인 지역 선배의 도움으로 만든 200만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지역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선양사업을 위한 공연을 펼치며 이슈몰이를 시작하였고, 지방선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뜻있는 정치인들도 자리를 채워주며 추운 날씨에 거리축제를 만들게 되었다.

축제를 만드느라 고생한 필자와 축제추진위원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었고 해를 더하며 박인환 시인을 선양하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가 싶었는데, 이주민들인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문학인들 간의 끝없는 힘겨루기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고집불통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야 어떻게 되었건 상관없이 ‘목마와 숙녀 거리축제 추진위원회’로 이름 붙인 단체명으로 필자와 뜻을 함께하는 지역예술인들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마다 모여서 추모제를 지내고 거리공원을 펼치고 뒷풀이를 하면서 선양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인환문학관⁹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착공하여 2011년 7월 15일 준공되어 20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사업비 38억 2100만원(국비 2억, 도비 5억2500만원, 군비 30억9600만원)이 투자되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 면적 640㎡이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다.

9 1950년대의 서울 명동거리를 재현한 전시실과 박인환 시인의 작품과 실물 유물 중심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인환 문학축제, 박인환상(시부문, 학술부문-문학, 영화평론)제정, 박인환 문화컨텐츠연구소 운영, 시인과 관련된 작품 및 유품, 원고 등의 유물확보, 연구도서 간행, 연극제작, 테마거리 조성 등 다방면으로 박인환 시인을 선양하고 있다.~박인환문학관 홈페이지 발췌.

전시시설의 특징은 박인환 시인이 활동한 한국전쟁 후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시인과 관련된 인물, 서점, 다방, 선술집 등의 역사적 명소를, 현장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박인환 시인의 문학적 세계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하지만 다른 역사 인물들을 위한 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그 규모는 매우 협소하다.

3) 여초(如初) 김응현

여초 김응현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1월 22일 서울 성북구 번동에서 태어났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재 백담사에서 머리를 깎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래인(外來人)이 인제군에서 활동하다 사망 후 지역사회에서 역사인물 콘텐츠로 만들어진 사례이다.

여초 김응현에 대해서는 그의 생전 업적에 관하여 찬·반 또는 호·불호가 극명(克明)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3년 현재 인제군에서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을 벌이고 있는 3인 중 1인이므로, 그의 생애에 대해 인제군과 그를 옹호(擁護)하는 측의 글을 먼저 담아내어 보고자 한다.

인제군 북면 만해로 154 용대리에 자리한 여초서예관은 근현대 한국서예사의 최고 대가로 평가받는 여초 김응현 선생의 문화재급 서예작품과 유품 그리고 국내·외 서법 관련 자료, 서적 등 총 6천여 점의 소장품이 보존·전시되고 있는 서예 전문 박물관이다.

여초 김응현 서예관은 당대 최고의 명필인 여초 김응현 선생을 기념하며 2013년 개관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수장고와 여초 선생 생애관, 교육공간, 상설·기획전시실, 이용객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은 인제군에서 지난 2013년 건립 개관한 여초서예관(如初書藝館) 누리집에 소개된 짤막한 소개 글이다. 예의 ‘근현대 한국서예사의 최고 대가’라는 표현으로 여초 김응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하나 더 인터넷상에서 수집하였다.

여초 김응현에 대하여 작성된 여러 글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자 많은 서예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담고 있는 글이 있어 옮겨보고자 한다.

여초 김응현은 2006년 광화문 현판 교체론이 대두될 당시 현역 서예가 중 1순위에 오를 정도로 명실상부 근현대 한국서단의 최고 대가(大家)로 인정받았다.

‘추사 이후 여초’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친형인 일중 김충현과 함께 근현대 서예사의 4대가로 주목받았다.

한문서에 오체인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를 두루 잘 썼으며, 한글서예와 전각도 뛰어났다. 그의 글씨는 원숙미와 독창성이 돋보이며 서체가 활달하다는 평가와 함께 명성이 중국, 일본, 대만 등 국외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선생은 지금의 서울 성북구 번동에서 태어나 휘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1950년부터 10년간 국회보 주간을 지냈으며 국회도서관 1호 정직원이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단절되고 왜곡된 우리의 전통서법을 다시 잇기 위한 노력으로, 1956년 국내 최초의 서예연구 교육기관인 ‘동방연서회’ 창립을 주도하고 1969년부터 이사장을 맡아 9,000명의 후학을 양성하는 등 서법교육에도 평생을 바쳤다.

1996년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지인들과 함께 학교법인 동방학원을 설립하였다.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2005년 ‘동방대학원대학교’가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예잡지 『서통(書通)』과 『서법예술』을 창간하여 한국서예사의 체계를 세우고 서예 보급에 큰 역할을 했으며, 한국전각협회 회장과 사단법인 국제서법연합 한국본부 이사장을 지내며 중국·일본·홍콩 등과 국제교류전을 통해 한국 서예를 해외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990년 10월 한국 서예가로서는 최초로 중국혁명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해 우리나라 서예의 우수함을 널리 알렸다.

여초는 1996년부터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구룡동천(九龍洞天)’이라는 집을 짓고 자연과 벗삼아 만년의 자유로운 작품세계를 펼쳤다. 작고하기 10여년 전부터 당뇨병을 시작으로 중풍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이 겹쳐 투병해야 했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코 붓을 내려놓지 않았다.

1999년에는 교통사고로 오른 손목에 골절상을 입게 되자 3개월 동안 왼손으로 붓을 들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 다음 해에 ‘좌수전(左手展)’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가로 6m, 세로 5.3m에 이르는 필생의 역작 광개토대왕비문을 완성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된 2006년 초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2006년 정부가 광화문 헌판 교체를 검토하면서 글씨를 선생에게 의뢰하려 했으나 건강 악화로 성사되지 못했다. 2007년 2월 1일 당뇨병 합병증으로 1개월 간 입원 끝에 타계하였다.

여초는 서법의 기초부터 숙달과정을 배울 수 있는 서예교본으로 대표적인 문헌과 금석문 등에서 서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들만 골라서 직접 글씨를 쓴 30권 분량의 『동방서범(東方書範)』을 근 10년에 걸쳐 완성했다.

이밖에 『동방서예강좌』, 『서여기인(書如其人)』 등을 저술했다.

여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광개토대왕비문과 경복궁 ‘강령전’ 현판, 경북 김천의 ‘영남제일문’ 현판과 ‘직지사’ 현판, 공초 ‘오상순 시비’, 하동의 ‘칠불사’ 현판, 낙산사의 ‘보타전’ 현판이 있다.

또 다른 글로는 지난 1985년 잡지사 ‘여성동아’와의 인터뷰 글이 남아있었다. 당시 잡지에 실린 글 전문(全文)을 옮겨보면 다음 내용들과 같은바, 이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가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로 일컫는 추사 김정희의 업적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인터뷰가 꾸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초는 역시 서예에 일가견이 있다고 알려진 부인과의 사이에 3녀 2남을 두고 있는데 위로 두 딸은 지금 대만대학에 유학 중이고 나머지 셋은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자녀들 중 혹 부친의 뒤를 이어 서예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없다’는 대답.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는 서예인’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여초가 지금 확실하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동남아 여러나라의 서예인들과 함께 개최하게 될 대대적인 국제전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대표적인 서예 단체들과 동방언서회가 모두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시회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략)

지난 2006년 7월 17일 인제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무척 오래전 일이라 필자 역시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바이다.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의 숫자가 27명이었으니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복구라는 사업에 군정을 전력투구하지 않았다면 예의 대형 건물 짓기는 계속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불과 18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자동차경주장 공사를 착공하도록 밀어부친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는 것이다.

여초 김웅현 선생이 살고 있던 복면 한계리 모노골(=모란골)을 백담사 인근으로 단정하고 기사를 써버린 중앙단위 기자들이, ‘구룡동천 동락다주’를 제대로 알리가 만무하고 선생이 인제로 와서 살게 된 연유와 그의 생전(生前)과 사후(死後)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오르내리게 된 이야기들을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하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 길고 장황하게 글을 쓴 셈이 되어 버렸지만 요점(要點)만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서예가가 인제로 이주하였고 짧고 굵게 10년을 살다가 사망하였다. 평생을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느라 외지 유명한 사들과 교류가 없던 민선자치단체장이 자신과 비슷한 인생을 살다가 대통령이 된 고 노무현을 만나게 되었다.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생긴 인제군은 하루아침에 지역발전을 이루고 경제부흥과 세계로 도약할, 수많은 각종 플랜과 프로젝트들이 샘처럼 떠오르는 공무원들로 넘쳐나서 ‘10대 프로젝트’라는 제4기 군정 재선 픽처가 완성되었다. 그 범주 안에 대형 건물 짓기가 포함되었고, 여초서예관은 그렇게 탄생되었다.

사족(蛇足)을 첨(添)하자면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지금도 온 국민의 칭송과 추앙을 받는 추사 김정희 선생도 120억짜리 서예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를 수십 차례 다녀온 필자도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금번 연구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물론 제주도 서귀포시 추사로에 제주추사관으로 명명된 추사 김정희의 기념관이 소재하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국가 예산을 투입한 국공립 시설은 아니었으며 예산이 투입된 것도 2010년이었고 예산 금액이나 방문객 숫자 등은 여초서예관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¹⁰

3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에 대한 제언

1) 김부대왕과 마의태자

신라 경순왕(敬順王)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제56대 왕으로서 제55대 경애왕(景哀王)이, 서라벌을 쳐들어온 후백제의 견훤에게 그의 애첩들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난 후 세워진 왕이다. 경순왕은 견훤에 의하여 억지로 왕이 되고 난 후 항상 불안에 떨며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날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10 추사 김정희 기념관 : 제주추사관은 국보 「세한도(歲寒圖)」를 닮은 공간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였던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선생님이 제주 내 유배지(현재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에서 역작 「세한도」와 추사체(秋史體)를 창출해 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주 지역 예술인들과 학자들의 노력으로 1984년 유배지를 정비하고 추사유물전시관을 건립하였는데 현재 제주추사관의 전신(前身)이 됩니다. 2007년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가 사적으로 승격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 건축가 성효상(承孝相, 1952~) 선생님의 설계로 현재의 제주추사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은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치열한 연찬으로 성취해냈던 추사 선생님의 학문과 예술을 기념하는 상징 공간으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제주추사관은 유홍준 교수와 부국문화재단, 추사동호회 등에서 기증한 보물 '예산김정희종가유물일괄'을 비롯하여 「세한도」영인본과 김정희의 글씨 탁본 및 편지 등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이에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손국(遜國)을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삼국사기 경순왕조¹¹에 남아있는 고려에 나라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아주 짧게 그 날에 있었던 어전회의 기록이 경순왕 김부(金傅)에 대한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인제문화원에서는 신라 경순왕의 태자(太子)로 또는 일자(一子)로 여러 가지 이름 또는 호칭으로 불리며, 구국항쟁의 기수(旗手)로서 강원도 인제 땅을 배경으로 고토회복운동을 펼쳤으며 절개 높은 인물로 떠받들어졌던 마의태자(麻衣太子)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있다.

연구 결과에서는 전설 또는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김부대왕 또는 마의태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경순왕 김부가 아니고, 경주 김씨들이 마의태자라고 주장하는 김일(金鑑)도 아니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김부리와 갑둔리가 남면 행정구역에 있던 시절부터 마의태자를 연구해 온 갑둔초등학교 이태두 교사의 저서에 의해서였다.

11 경순왕 9년(935) 겨울 10월, 사방의 국토가 모두 남에게 넘어가 버려 국세가 약해지고 고립되었다. 이에 왕은 나라를 스스로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하들과 함께 태조에게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다. 신하들 중에는 항복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도 있었고,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 왕자가 말하기를 “나라의 존속과 멸망은 반드시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충신 의사들과 함께 민심을 수습하여 우리 자신을 공고히 하고, 그레도 역부족으로 힘이 다한 뒤에 망할지언정 어찌 1천 년의 역사를 가진 사직을 하루아침에 경술히 남에게 주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경순왕이 대답하기를 “고립되고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같아서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강하지도 못하고 약하지도 않으면서, 무고한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도록 하는 것은, 나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왕은 바로 시랑 김봉휴를 시켜 태조(왕건)에게 편지를 보내어 항복을 청하였다(請降). 이에 왕자는 통곡하면서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산길을 따라 개골산(금강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위 아래에 집을 짓고, 삼베옷을 입고 풀잎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고 그래서 마의태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마의태자는 적어도 지난 1980년대 후반까지는 부령(부안) 김씨¹² 문중에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국도 44호선 인근에 세칭 마의태자유적지비(麻衣太子遺蹟址碑)를 최초로 세우기 이전에는 문학작품 속에서만 다루어지던 인물이었다. 그만큼 그 존재에 대하여 전하는 기록들이 미미하여 역사인물로서 연구하기가 불가하였다,

지금은 국도 44호와 연결되는 지방도 446호가 포장도로가 되어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인제군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인 갑둔리삼층석탑, 갑둔리오층석탑, 상남면 김부리 대왕각(大王閣), 옥새바위 등 유적들이 위치한 인제군 남면과 상남면 일대가 세간의 화제가 되어 유명해진 것은 불과 2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2023년 현재까지도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김씨 문중과 문학작품을 통해서 마의태자를 접하고, 그가 강원도 인제에서 천년 왕국 신라의 부흥을 꿈꾸었던 인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던 중 비록 소수(小數)이기는 하지만 마의태자에 대한 숭모 선양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인제문화원에서는 부설 향토사연구소에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하여 마의태자와 관련한 연구와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정작 인제군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이루어진 마의태자 관련 사업을 모 지방지와 연결하여 추진하였고, 학술심포지엄도 아닌 문학지 발행을 마친 것으로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12 부령(扶寧)=부안(扶安)김씨는 전라북도 부안군을 본관으로 하는 김씨(金氏) 문중으로 부령은 부안의 옛 이름이다. 경주김씨 문중에서 마의태자를 김일(金鎰)로 단정하고 태자파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부령 김씨(부안김씨) 문중에서는 마의태자를 시조(始祖)로 삼고 있었다.

산성(山星) 이태두(李泰斗) 연구자는 지난 1972년 인제군으로 전입하여 인제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44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인제군과 홍천군, 양구군 등 원근 각지의 마의태자 관련 유적과 유물, 전설, 지명, 지리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편찬하여 향토사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단초(緞綯)라 할 그의 저서 ‘속칭 마의태자가 이룬 금부왕국(金富王國)’에서 언급한, ‘마의태자’와 신라 멸망 이후의 경순왕과 그의 처첩들 부분, 자손들에 대한 부분과 금사(金史) 관련 부분, 조선왕조실록 태조편 거론 등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그동안 상남면 상남2리에 마의태자권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의태자’를 숭모 선양하는 사업을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을 단위로 개최하던 소규모 축제를 ‘마의태자축제’로 개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마을소득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의태자가 누구인지 실체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김씨 문중인, 경주, 부령(부안), 통천, 삼척, 강릉 김씨 문중 등이 주장하는 ‘마의태자’라는 인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일제강점기하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항일투쟁을 우회적으로 독려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인제군과 매우 관련이 깊은 인물이기에, 마의태자는 경순왕의 일자(一子) 김일(金鎰)이 아니라는 것과 인제에 전해지는 김부대왕도 경순왕은 아니지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외세에 대항하는 구심점이 되었던 인물로서 숭모 선양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우리는 유구한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던 자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도, 새로운 정권에 빌붙어서 국립대학교 교수며 장관자리까지 맡았던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보아도 한번 뒤돌아지고 왜곡된 역사는 다시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900년대 동학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제 출신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선생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왜곡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1905년 동학의 천도교 개명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살펴보아도 알 수 있고, 천도교 개명 이후의 기록은 개별 교단사(敎團史)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신사(神師)의 수제자 중 가장 나이도 어리고 입도 시기가 늦은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가 동학의 3대 교주 지위를 전수 받은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구암 김연국 선생이 의암 손병희와의 불화로 일진회(一進會)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기록이 정설(定說)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연유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 출신으로 해월 최시형 신사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동학에 입도하였고, 해월 최시형 신사가 1898년 6월 2일 서울 육군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던 구암 김연국 선생의 일대기는 빠른 시기에 정리되었어야만 했었다는 의견이다.

『천도교창건사』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는 구암 김연국 선생에 대한 부분은, 동학 3대 교주를 자처하는 의암 손병희가 천도교의 교주가 되어 소위 법통을 이어받은 이후의 기록들이다. 따라서 의암 손병희 선생 측에 일부

유리(有利)하고 정통성을 인정받도록 기록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하여도 구암 김연국 선생의 일대기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만이 인제 경진판(庚辰版)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을 시작으로 하여, 근대민중운동의 산실(産室)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제군의 근현대사적인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제 경진판(庚辰版) 『동경대전』 간행에 이은 무자판(戊子版) 『동경대전』과 경인판(庚寅版) 『동경대전』 간행에 이르기까지, 동학교단에 있어서의 구암 김연국 선생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인제계 교인들의 1894년 동학농민운동 관련 부분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암 김연국 선생이 동학에 처음 입도한 것은 1872년이었는데 1857년 4월 27일 출생 후 2개월 뒤인 4월 27일에 부친이 사망하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으며, 집안 살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인제군 남면 신월리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숙부 김병내(金秉鼐)의 집에 겨우 의탁하여 지냈다고 전해진다.

이때 숙부 김병내의 학문이 깊어 구암 김연국이 기초 학문을 수업할 수 있었다. 1872년 수운(水雲) 대신사의 장남인 세정(世貞)과 차자인 세청(世淸)이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화가 미칠까 염려되어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舞依梅里) 김병내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려던 해월 최시형을 만나게 되어 그의 제자가 되었다.

구암 김연국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당시 대도소장(大道所長)을 역임하며 충북 보은에서 황하일, 권병덕 등과 함께 거병(擧兵) 하였다.

스승인 해월 최시형 신사의 충 봉기령에 따라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4일 충주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인 후 인제군 남면 느릅정(유목정)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구암 김연국은 노구(老軀)의 몸인 스승을 업고 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원주와 횡성, 홍천을 거쳐 인제 남면 느릅정(유목정)에 도착한 날은 1894년 음력 12월 말일이었다. 12월 24일 충주 외서촌을 출발하여 1개월여를 고생한 끝에 동학교도인 최영서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해월 최시형이 남면의 느릅정(유목정)에 은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시천교종역사』에 의하면 해월 최시형은 1년 정도를 느릅정(유목정)에 머무르며 포덕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제군 남면 느릅정(與木停) 마을은 옛 모습이 전혀 없이 유목정이라는 지명이 도로표지판에 남아있을 뿐이다.

근대민중운동사의 초석이 되었고 갑오동학농민운동의 밑거름 역할을 하였던 강원도 인제군 남면 지역의 동학교인들을 포함한 구암 김연국의 활약상들이, 동학사(東學史)나 천도교교단사(天道敎敎團史) 혹은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譯史) 등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인제지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지역 출신 인물이 없었던 까닭으로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구암 김연국의 활동 사항 중 동학 포교 과정과 동학농민운동 이후 인제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인제 출신 인물로 선양사업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

3) 시인 · 소설가 이외수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이외수 작가를 빼고는 문학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일부에서는 수백만의 팔로워가 있는 작가 이외수의 사회관계망이 만들어낸, 허수(虛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이에 선뜻 동의(同意)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감성마을이라는 ‘문학테마’ 공원을 통하여, 소설가 이외수가 지닌 그리고 그의 문학세계를 공감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외수를 보기 위해서 사시사철 계절도 따지지 않고, 화천군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외수는 대한민국 문학계 최고의 상품(商品)이다.

이제는 고인(故人)이 되어 버린 고향 선배 이외수 작가를 상품으로 호칭(呼稱)하는 것이 불경(不敬)스럽고 일면 욕될 수도 있겠으나, 상품(上品)은 상품인 것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기가 애매하고 무슨 단어(單語)나 용어(用語)를 사용하여도 부족한 것은 아마도 필자가 이외수 작가와 같은 등단(登壇) 문학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외수 작가는 인제군에서 초, 중, 고교를 졸업하고, 춘천시 석사동 소재 춘천교대를 다닌바 있는 강원도 사람이다. 특히 그가 졸업한 인제고등학교는 지난 1995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치러진 7번의 선거에서 졸업생 7명을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시킨 명문학교이다.

인제로 갓 귀농 · 귀촌한 여타 지역 출신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역사와 전통 있는 지역 내 최고의 학교로 군민들에게 각인(刻印)되어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이외수 작가가 졸업한 인제고 출신들은 1명의 고등학교 선배와 6명의 후배가 모두 인제군수가 되었다는 말이다. 정말 대단한 학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선 5기 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이외수 작가에게 후배가 되는 인물이 당선되었는데, 평소 이외수 작가와 평소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였던 관계로 기억된다. 이때 이외수 작가를 인제군청으로 직접 초대하여 장학금까지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언론을 통하여 선보인 바 있었다.

물론 당시 전달된 장학금은 이외수 작가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등에 업고 발탁된 모 치킨업체의 광고모델로 받는 재원(財源)으로 기부된 것이었다. 해당 치킨업체는 단순히 치킨의 맛뿐만이 아니라 사회공헌도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기업 평판도가 좋은 업체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장수하는 비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흔히 뺨바지로 부르는 흰색진바지를 입고 신발까지 깔끔하게 맞춰 신은 이외수 작가의 모습은, 당시 지역신문 기자로 열심히 활동하던 필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으니 집구석 어디엔가 세워져 있는 책장 한 칸에 쌓여 있을 외장 하드에 남아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활동과 화제성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그의 생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볼 요량으로 감성마을을 방문하였으나 인연이 없었는지 직접 만날 수는 없었던 기억이 있다. 만일 직접 만나 보았다면 고교재학 시절 이외수의 소설에 푹 빠졌던 필자였으니,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도 당연히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필자와 이외수 작가 사이에 있었으니, 바로 그의 화천군 이주(離住)와 관계된 이야기이다.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에 이주한 시기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이다. 당시 화천군수로 재임 중이던 정갑철 군수의 ‘신의 한수’이자 ‘시대의 선택’이었다.

모 대통령 재임 시기였는데 삭막하고 먹고살기 팍팍하던 시절을 극복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무드가 넘치던 시절이라, 감성¹³이라는 코드로 남녀노소를 따질 것도 없이 감성이란 단어가 핫코드로 작용하던 시절이었다. 적어도 이외수 작가가 설화(舌禍)로 댓글 공격과 화천군민들로부터 욕을 먹기 전까지는 그러했다는 말이다.

이때 이외수 작가를 인제군으로 모셔올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이 작가가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며 화천군수와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는 소식이었다. 2017년 8월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세계문학축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당시 이 작가가 한 행사장에서 최문순 군수를 향하여 막말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7년 10월 27일 열린 화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홍일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화천군 지역사회단체들은 10월 3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폭언을 퍼부은 이외수 작가에 대해 공개 사과와 함께 감성마을을 떠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었다.

또한 “이외수 선생을 감성마을 촌장으로 모시고 지역문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 주리라 기대했지만, 지역

13 감성 : 감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그의 책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주목받을 트렌드 키워드로 ‘감성’을 꼽았다. ‘감성’은 ‘감성’과 같은 말이다. 하지만 다른 말이기도 하다. ‘감성’이라고 하면 왠지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감성’을 굴려서 발음한 ‘갬성’은 감성보다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쓰인다. 한국트렌드연구소 김경훈 소장은 감성이 보편적인 정서라면, 갬성은 각자에게 특화된 정서라고 정의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적’느낌, 그것이 바로 ‘갬성’이다. 갬성이 특화된 정서라면 콘셉트는 그 정서를 느끼기 위한 직관적인 자극이다. 갬성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뭐든 그냥 좋아서는 안 된다. 정확한 자신만의 콘셉트가 있어야 한다. 그 콘셉트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보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콘셉트이며, 이런 갬성 콘셉트는 이성적 이해보다 감성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셀카 한 장도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찍기 위해 자신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나만의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콘셉트가 있어야 진정한 ‘갬성 사진’이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콘셉트를 잡고 그에 맞는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출처 : 여성조선(<http://woman.chosun.com>)

문화예술인과의 교류는 물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엿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때 당시 화천군의회는 이외수 작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지역사회단체가 총궐기하였다.

인제군은 이외수 작가를 끝내 품지 못하였지만 전 인제문화원 부원장을 역임(歷任)하고,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을 지내며 많은 향토사 자료를 발굴 연구한 향토사학자 최병헌 선생은, 최근 발간(發刊)한 그의 저서(著書) 지역 역사 이야기 ‘함강리와 함강정’에서 이외수 작가를 인제군 출신 인물(人物)로 평가(評價) 수록(收錄)하였다.

최 전 인제문화원 부원장은 생전의 이외수 작가가 스스럼없이 형님으로 호칭하던 관계로서, 이외수 작가가 생전의 마지막 직장이라 하였던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학장에 취임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가며 했던 말을 책 내용 중에 담고 있었다.

“형님 내 나이 칠십이 다 되어서야 직장 하나 얻었수다.”라는 짝막한 문장이었다.

최 전 부원장의 표현대로 이외수 작가는 평생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로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였고, 지난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져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4월 25일 타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고인이 되기 이전에 인제군으로의 이주(移駐)나 기념관 설립 시 자료 기증 문제들을 매듭짓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최병헌 선생에 의하면 이외수 작가가 경남 함양사람이라는 오해(誤解)는, 그의 외가(外家)가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였는데 모친께서 출산 당시 외가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주었다. 그의 나이 세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직업군인이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부친의 전역 이후 인제군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인제군 기린면 현리 소재 기린초등학교를 졸업 후 인제읍 소재지(당시 면 소재지)에 있던, 인제군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인제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니 그해가 1963년이였다. 다음 해인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68년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후, 그 이듬해인 1972년 춘천교대를 중퇴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수 작가의 프로필은 수록된 매체나 기록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기록되어 있어,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으로 활용이 결정되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그가 1946년 8월 15일생이라는 것과 그의 부친 성함이 공통적으로 이승윤이라는 것이라 하겠다.

4) 방송인 김국진

김국진은 1965년 2월 6일 인제군 인제면(현 인제읍) 남북리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직업은 개그맨이자 방송인으로 1978년 2월 인제군 인제면 소재 인제남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제중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서 반포중학교와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2002년 당시 유명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였던 전처와 처음으로 결혼할 당시, 인제군에 살고 있던 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들이 김국진의 결혼식에 대거 참석할 만큼 고향 인제와 인연(因緣)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인제에서 초등학교만 다녔지만 유년기를 보낸 추억은 소중한기 때문인 듯하다.

1997년 MBC TV에서 방송된 ‘스타다큐’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에도 가장 친한 친구로, 인제남초등학교 동창생인 윤경엽이라는 친구¹⁴가 동반 출연할 만큼 김국진에게는 고향 인제가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곳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후 그가 고정출연한 프로그램인 ‘불타는 청춘’, 에서도 고향 인제를 수차례 언급하였고 특히 2015년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 ‘고향에 가다’ 속에서는, 인제읍 남북2리 마을인 속칭 조림리마을 강변에서 인제지역의 유명한 중국음식점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고향 사랑에도 진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시 중국음식을 배달하러 온 해당 음식점의 아들이 김국진에게,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시던데 아니시냐?”고 말할 정도로 인제군에서는 지금도 교류가 활발한 친구들과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전해졌다. 필자와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동갑내기인 김국진과 동네 친구들이 겹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불타는 청춘’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김국진은 전처와 이혼 후 14년 동안이나 혼자 지내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일대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는데, 방송에서 만난 8090 유명 여가수를 상대로 핑크빛 애정전선을 이루며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율을 높이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 김국진의 중학교 동창생들인 임인수는 기린면장으로 재직 중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살던 친구 관계인 정진구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다. 또한, 절친으로 알려지고 있는 최태경(사업), 최철규(사업) 등도 고향 인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후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실제 연애 상대로서 관계를 이어가던 유명 여가수와, 2018년 현실에서 재혼하게 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정점을 찍게 되었다. ‘불타는 청춘’은 이혼 등으로 소위 돌싱이 되었거나 비혼(非婚)인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전국을 여행하며 먹거리와 잔잔한 일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김국진은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었으나,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서로 맞지 않아서’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온 국민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김국진은 1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이후 긴 슬럼프 기간을 가져야만 했던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다.

그러나 김국진은 당당하게 방송에 복귀하였고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도 흥행에서 대박을 터트렸다는 소식이다. 이에 개그맨 김국진은 인제군 홍보대사는 물론 인제군을 널리 알리는데,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본서(本書)를 통하여 주장하는 바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인제군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행정의 눈높이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후술(後述)하겠지만 김국진은 인제군 북면 출신의 여자프로 골퍼인 이보미 프로만큼이나 골프에 진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 15차례나 프로골프 테스트에 도전한 유일한 방송인 김국진과, 인제군 출신으로는 첫 골프 프로이자 미녀 여성 골퍼로 유명세를 국제적으로 떨친 바 있는 이보미 프로와 함께 묶어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면 그 시너지는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부문별 인기순위

순위	가 수	배우(남)	배우(여)	탤런트(남)	탤런트(여)	개그맨	DJ
							
1	H.O.T (19.7)	정우성(15.9)	심은하(18.7)	류시원(16.2)	김희선(29.2)	김국진(40.8)	이소라(16.1)
2	서태지(12.4)	한석규(15.5)	고소영(12.8)	송승헌(12.0)	최진실(6.2)	신동엽(25.6)	최화정(10.1)
3	핑클(5.5)	박신양(8.8)	최지우(11.6)	이병헌(10.9)	고소영(5.8)	남희석(9.5)	이본(9.6)
4	김현장(5.1)	김민종(7.3)	최진실(10.7)	김민종(7.3)	명세빈(5.2)	김효진(3.4)	이문세(9.3)
5	젝스키스(4.8)	신현준(6.4)	김규리(9.0)	배용준(4.6)	송윤아(4.8)	김진수(2.5)	유희열(7.4)
6	엄정화(4.6)	임창정(6.1)	추상미(7.6)	차승원(4.4)	김현주(4.5)	홍복기(2.3)	이와정(7.1)
7	유승준(4.1)	송강호(5.6)	김혜수(5.9)	안재욱(4.2)	김남주(4.0)	서경석(2.1)	엄정화(6.8)
8	신승훈(3.5)	안재욱(5.5)	이승연(5.5)	홍경민(3.9)	이와정(3.9)	조혜련(1.7)	류시원(6.1)
9	신해철(3.1)	이정재(5.2)	진희경(3.5)	한재석(3.4)	이영애(3.6)	박수홍(1.5)	이지훈(5.2)
10	S.E.S(3.1)	안성기(5.1)	이미연(2.8)	이정재(3.1)	김선아(3.3)	이휘재(1.4)	이주노(5.1)

※ 괄호안은 지지율(%)

옛 신문에서 캡처한 연예인 인기순위

방송인 김국진을 ‘인제군홍보대사’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인제군의 역사인물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인물사적 부분만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스포츠마케팅에도 김국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가 가장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펼치던 시기에 속칭 ‘감자골 4인방’으로 뭉쳐서 활동한 바 있는, 개그맨 김용만, 박수홍, 김수용 등 동료 개그맨들까지 콘텐츠에 녹여낸다면 더욱 좋은 효과와 관심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개그맨 박수홍은 최근 결혼을 통하여 전성기 시대의 인기를 누리는 인물이다.

5) 프로골퍼 이보미

이보미는 1988년 8월 21일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태어났다. 또래의 골프 프로들이 그러하였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클럽을 잡았고, 일찍부

터 골프에 입문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영향으로 엘리트코스를 밟기 위한 체력단련은 물론 골퍼로서 갖추어야 할 강한 멘탈을 기르기 위한 가정 교육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보미 프로는 지난 2007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4승을 거두었고, 2012년부터 국내에서는 높은 장벽으로 여기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 진출하여 통산 21승이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방송출연은 2021년 SBS TV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인 ‘편먹고 공치리(072)’ 등에 출연을 하였다.

이보미 프로를 인제군 출신 인물로서 역사인물 콘텐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며 영화배우이자 텔런트인 이완 씨 때문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완 씨는 이미 텔런트 김태희의 동생이라는 것 한가지 만으로도 화제성은 매우 풍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누이인 김태희의 남편은 바로 가수이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인 예명 비(본명 정지훈) 씨이기 때문이다. 가수 비는 유명한 JYP엔터테인먼트 출신으로 연예계 진출 이후 댄서로서나 가수로서나 여전히 최고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가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 인지도를 쌓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오늘의 월드스타 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KBS 드라마 ‘상두야 학교가자’와 영화배우 송혜교와 함께 출연한 ‘폴하우스’ 등의 인기몰이로 연예인으로서 인기의 정점을 찍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보미 프로 자신의 프로골프 선수 생활을 하였던 커리어와 결혼을 통하여 연결된 톱스타들과의 인맥을 십분 활용 할 수만 있다면, 별도의 홍보활동조차 필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인제군의 차세대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에 최적화된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보미(1988년 8월 21일 ~)는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이다.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생년월일	1988년 8월 21일(34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키	158cm
몸무게	56kg
학력	건국대학교 골프학과

스포츠

국가	대한민국
종목	골프
선수활동	2007년 ~
소속팀	마스터즈 GC

인터넷에서 캡처한 프로골프 이보미 선수 프로필

하지만 금번 연구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보미 선수 측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숙제로 보였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많은 이보미 선수의 프로필들이 그녀의 출생지가 경기도 수원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보미 프로가 원하지 않아서 이거나 고향이 강원도 산골 마을인 강원도 인제군 북면이라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싫어서라고 추측되고 있다. 일부 기록에서는 이보미 프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골프 유학을 갔던 홍천군으로 고향이 등재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보미 프로가 졸업한 홍천여고로서도 당연히 이보미 프로를 홍천군을 빛낸 인물로 선양하고자 하는 시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이보미 프로가 나고 자란 인제군에는 골프인프라가 척박하여, 이보미 프로를 엘리트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보미 선수의 온 가족이 수원시로 이주를 한 이후에도, 이보미 선수의 작은 아버지가 인제군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선수의 아버지는 수원시로 이주 후 돌아가셨지만 동생인 작은아버지가 인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선수의 작은아버지를 연결고리로 하여 이보미 선수를 활용한 지역 역사인물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앞서 고 이 외수 작가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친한 친구들과 지인(知人)들이 인제에 다수 생존해 있는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짧은 글을 통하여 최근 20년간 인제군이 펼쳐오고 있는 역사인물 콘텐츠사업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금번 연구 과정에서 조사되고 알려진 내용들에 의하면 임명직 자치단체장 재임 시기에는, 인물의 출신지를 불문하고 지역 역사 인물로서 선양사업을 위한 콘텐츠를 구축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연유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임명한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지역사회나 정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유추되었다. 이에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을 계획·입안하는 것조차 불가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制約)으로 심도(深度)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인제군 출신 유명인사들에 대한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은 지역문화원이 마땅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사료된다. 소설가 한수산 선생과 대중상 여우조연상 수상자 김소진 등도 당연히 역사인물 콘텐츠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인물들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차원의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지역학 연구기관이라는 타이틀도 따라올 것이며, 이에 더하여 관련 예산확보에도 순

조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춘천이나 수원 등으로 표기하거나 내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해서라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그간 지방문화원들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써온 결정체가 지역학 연구기관으로의 지정(指定)이며, 고대(古代)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정(限定)된 자료를 통한 향토사 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吳尙俊, 本敎歷史.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9, 侍天敎 宗釋史, 史藝研究所.

吳知泳, 「東學史」, 永昌書館, 1940.

강원도사, 「역사편」, 강원도 1996.

인제군사, 인제군,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97.

표영삼, 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200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일지,(주)계문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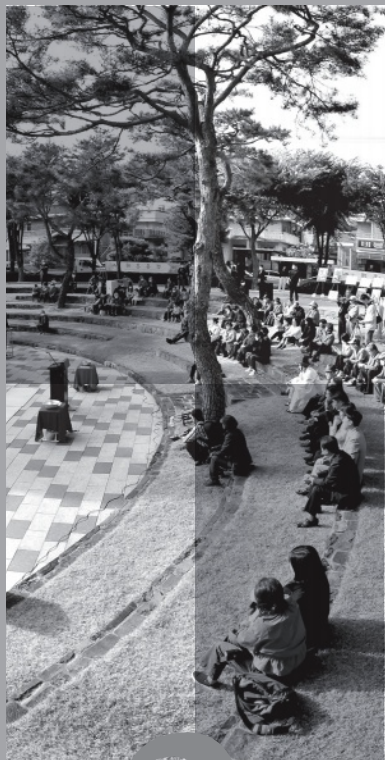
한승봉, 江原道 麟蹄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記念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인제의 동학과 동경대전 재조명,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최병헌,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에 관한 연구」, 2015.

최병헌, 합강리와 합강정, 인제문화원, 2022년 11월.

인터넷포털 네이버 홈페이지.



제 3 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고은조 _ 호국의 6월
- 권순덕 _ 어른이 없다
- 김봉희 _ 청평암 / 설악산의 여름 / 대승폭포 / 내린천 / 이웃집 할머니
- 김영관 _ 까치 밥
- 문재림 _ 그냥 두어라
- 박돈녀 _ 배웅 / 이명 / 정 / 호박꽃 / 황태 / 황혼
- 박정옥 _ 강물과 나
- 박청미 _ 숲에서
- 박혜영 _ 욕심
- 원영애 _ 길 / 편 / 의지 / 4월 / 하룻밤의 꿈 / 하얀소리
- 정순덕 _ 각자도생
- 한용운 _ 內 麟 川 / 운 두 령 / 은빛 빙어
- 한우림 _ 능소화
- 허계홍 _ 가을 안부

산문

- 허순애 _ 오카리나의 명장, 노무라 소지로를 만나다
- 백송 김영관 _ 희망과 상처를 주는 말의 온도
- 박은덕 _ 건강검진을 받으며

호국의 6월

고은조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야생화
잊혀진 병사의 혼이
오랜 세월 지났어도
눈 푸르게 뜨고 감지 못한다

철모마저 이끼와 흙으로 한 몸 인체
피어보지 못한 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피맺힌 산하를 등에 업고
한 줌 흙이라도
그의 이름되어 그리워하는 곳
부모형제 품에 고이 잠드소서

지뢰밭 폐허 된 조국 산천아
깊은 통증에
지금도
절규에 뒤덮인
그들의 넋을 기리소서
켜켜히 쌓인 외로움 달래주소서

* 『현대문학사조』 신인상 시 부문 등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산문부 장원 입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회원
인제도서관 어머니독서회 회원

어른이 없다

권순덕

마을에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큰소리로 호통을 치던
칼칼하고 대쪽 같던 어른들
한량없이 너그럽다가도
매섭게 잘못을 나무라시던
큰집 할아버지 같은
마을에 어르신이 없다

어려운 송사에 발벗고 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조간 신문을 보며
시국을 한탄하던
서슬 퍼런 어른이 그립다

담배피는 아이들 나무래다 물매맞는 어른은
더이상 어른이 아니다
게으른 자식놈 훈계도
돈 벌 때나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힘도 떨어진다는 세상

어디 마을뿐이라
당리당락에 서로 혈뜬고
파벌 싸움에 정신없는 때
국민들이 바라 볼 어른이 없다
옳지 않은 일에
벼락같은 일성을 가하는
올 끝은 입이 없다

* 계간 『창작 21』 시부문 신인상 등단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원
〈전국박인환시낭송대회〉 최우수상 수상
현재 내설악시낭송회 회장

청평암

일송 김봉희

축령산 깃대봉 아래
맑은물 흐르는
꽃나무 울타리 세상
웅창한 주춧돌 위
자리잡은 대웅전

천년도를 이룬 산사
푸른침묵속
삼상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은은한 종소리에 귀의울림

세상 깨우는 목탁소리
온법계 일깨워
우주일체되는 천하의 환성

눈멀어 사는 탐욕
엽연으로 남아
하늘 품은 보살님들
삶의 짐 내려놓고

청정수 한모금 묵은때 풀어내어
무심으로 염불하는 중생들
몸벗고 해탈 성불하여
부처가 되던날

설악산의 여름

일송 김봉희

용대리 백담사에서
대청봉 오름길
새벽녘 밝아오는 숲속에
청정한 한그루 나무가 되어
청옥같은 물소리에 귀를 기우린다.

어둠을 밀며 산을 오르자면
초록물결 터널지나
물안개 타고 오르니

안개속에 떠도는
물소리 산새소리
천국이 어디쯤인가

봉정암의 청정수 한모금
묵은때 풀어내고
한 걸음 두 걸음 정상에 오르니

아!
좋을시고
구름바다 떠도는 온 천지가
내손안에 있구려!

대승폭포

일송 김봉희

하늘이 내린 인제
설악산 내설악의 한계령
굽이굽이 산을 오르자면
장수대서 대승령으로 가는 길목
길게 늘어진 웅정한 바위가 되어
시원한 물소리에 귀를 씻는다.

주위에 경관은 기암괴석
빹빹이 둘러쌓인 백년지남 백송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
장엄도 하다.

오랜세월동안 바위가 파여
하트모양의 웅달샘
선녀들이 놀다가 등천도 했겠지!

한계리 나무꾼 지나가다가
선녀들 날개옷 하나 훔쳤을까?

내린천

일송 김봉희

인제의 내린천은
하늘이 내린 생명의 젖줄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길기도 하구나.

오늘해도 어제처럼 서산을 넘고
달빛은 밤세워 강물같이 흘러간다.

삼복더위 녹음속에 골바람 시원한데
개미떼가 나뭇잎 이고 행진하듯
레프팅을 즐기는 청춘남녀들

삼삼오오 짝을지어 보트타고
물살가를는 우렁한 고함소리

물따라 바위돌아 급물살 해치며
스릴넘치는 아찔한 순간들
젊은 혈기가 그곳에 있다.

이웃집 할머니

일송 김봉희

가을 햇볕에 빨갳게 익은 고추
이고 지고 오는 할머니
저녁노을 화려하여
눈길을 돌려본다

지나간 세월이 그리도 험했던가
손가락 마디마다 공이가 나고
꼬부라진 허리
새우등이 되었다네

젊어서 그 곱던 살결은
거북이 등껍질 같고
허리는 굽었어도
열심히 살아온 보람있어
황혼의 노을처럼
그대 얼굴 아름답다.

까치 밥

백송 김영관

하늘나라 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뒷마당 감나무 꼭대기에
남겨 둔 홍시 두 개

첫눈이 내리던 날
까치 두 마리 찾아와
다 따 먹었어

그럼 그 까치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 2002년 《아동문학평론》 평론 등단
1997년 《동해안시대문학》 1999년 《문학공간》 童詩 부문 등단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철학박사
한국문인협회 회원. 인제문인협회 회원
인제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그냥 두어라

동우 문재림

평평 쏟아지던 눈들은
나무 가지마다
곱게 내려 앉았다

우리 엄마
머리에 앉은 흰머리
언제 하얀 눈 쌓였던 걸까

털어내지마라 그냥 두어라
뽑지마라 그냥 두어라

그 모습 그대로.

* 《문학공간》 신인문학상 동시부문 등단
백석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제5회 경향미술대전 서양화 우수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회원
인제 백송아동문학학교 한국아동문학 전공

배웅

金園 박돈너

김을 매다 돌아보니
참 곱고 말쑥하다

남았어도 잘 닦인 돛그릇처럼
우리 걸어온 길도 저리 깔 끔 했으면
돌아가는 길 더 수월 했으리

내가 처음 그대 마중할 때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지요
이 길 위에 맨발의 슬픔도
고개 끄떡 이며 용케 버텨 온 세월
그대 있어 내게는 늘 봄날이었지요

꿈결처럼 닳아온 이별
한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잡은 손 놓고
도포자락 날리며 혼자 가는 길

우리의 여행은 여기까지 인가요
등나무 꽃타래처럼 줄줄이 엮어진
그간의 사랑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나 이제 그대
배웅합니다

잘 가세요.

이명

金園 박돈녀

빈 수레 유난히 덜컹대던 날
그의 귀에 매미 한 마리 터 잡고 산다더니
오늘은 내 귀에 북치는 사내가 세 들었다
그들은 가끔 씬표 하나 내걸고 방을 비울 때면
무섭도록 적막하다

귀뚜리라미 북소리에 맞추어 화음 이룰 때면
최면술에 걸리듯 아득하다
방과제를 허물며 밀려드는 불한당들
마침 풋말 나타나는 길까지
얼리고 달래며 함께 가야 할 동행.

정

金園 박돈녀

골짜한 밥사발 한쪽 폭 덜어
내 밥그릇에 덜어주던 어머니
낡은 궁핍 속에 애잔함은
가을날 땡감처럼 익어간다

문지방 넘나들은 헤진 치마폭
생 솔가지 끄름 내 아궁이 앞에서
자식들 앞날을 소지처럼 올리는데
가마솥 보리밥은 저 혼자 뜸이 든다.

2009.3.14

호박꽃

金園 박돈녀

분주히 날아드는
생명의 숨소리
다 받아 안는 어머니 바다

눈시울로 적시는 모래톱
고통 하는 법 익히라
오늘도 출렁인다.

마디마디 열린
아픈 손가락들
이눔저눔 짚어주며
야물게 여물기를
심지 돋우며 감싸 안는

늘, 명치끝이 아린
어머니 꽃.

2013.7.23

황태

金園 박돈너

망망대해를 휘젓고 다니며
무서울 것이 없었다
늘 육지의 삶은 궁금했다
물길 수만리 강원도 푸른 산
보인다

덜컹거리며 실려와 바닥에 나 뒹굴 때
움켜쥔 기억들 하나씩 지워지고
붉어진 눈망울에
두고 온 얼굴들 흐릿하게 멀어간다

정갈하게 해체된 육체가
덜컹 덕장에 걸리면
목마른 정령들의 아우성 같은 바람소리

덕장에 온종일 눈꽃이 깃발처럼 날리고
반복되는 눈과. 바람과 서리는
꽃꽂한 성깔을 잠재운다.
영혼은 용대리 덕장을 맴돌며
새로운 생을 맞는다.

황혼

金園 박돈녀

금방 쓰던 물건
어디 두었나 생각나지 않는다
핸드폰 같으면 올려서라도 찾으련만
돋보기 쓰고도 바늘귀 못 꿰어
서운케 실패에 바늘을 꽂는다

양다물고 살아온 아린 세월
내안에 웅크리고 앓은 기억은
아욱 꽃 같은 눈물이었다

죽은 시간들이 모여 사는 숲처럼
돌아 갈수 없는 세월에
노을은 길게 산그늘을 느리고
서산을 넘는다.

* 《서울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꽃도 슬플 때가있다》

강물과 나

박정옥

천년을 흘러 온 강물은 멈추는 법이 없다
그것은 그의 습성이다
근면이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기 때문이다
고무줄처럼 유연하다.
긴 침묵이다

내가 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역사가 짧은 것
게으름이다
나를 맞이할 바다 하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엉클한 밤송이다
협곡이다

강물은 얼굴도 모르는 나의 큰 스승이다

* 2023년 계간 《시인정신》 신인문학상 등단
가톨릭관동대학교 현대시창작과정 수료
현재 월하리에서 창작활동 전념

숲에서

박청미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숲에 앉았다

나무위
배 떠있고

한가득 바닷물
수풀위에 펼쳤다

아스라히
하늘인 듯
말하는 바다

점 점 흰배는
푸른 억새 평
소리 따라

풀사이
나무 사이로

살그머니
사라진다

* 숙명여대 미술대학 졸업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 입상
한국미술협회회원,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회원

욕심

박혜영

든든하게 밥 먹었는데
빵 냄새, 과자 냄새
코를 간질여요

어찌나 간질이는지
참지 못하고
꿀꺽꿀꺽-

꾸글꾸글-
배가 콕콕 나를 찔러요
욕심을 먹었다고
그건 달콤하지만 아픈 거라고

따끔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욕심 비우고 올게.

* 『문학공간』 신인문학상 동시부문 등단
인제 백송아동문학학교(한국아동문학전공) 수강 중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회원

길

杜宇 원영애

밤에 피는 꽃은 밤길을 밝히고
낮에 피는 꽃은 태양을 웃게 한다
산은 구름을 막지 못하고
바람은 구름으로 장난치니
마음이 가는 길을
마음으로 막지 못한다
저 강물이 흘러 흘러
몇몇 훗날 다시 이곳에
강물 되어 흐른다는 것을
겁을 돌아
인연이라 한다면
떠나가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알지 못해도
웃자락 스쳐간 우리는
인연의 굴레에서 돌고 도는
해탈하지 못한 업보가 아니겠는가
길은 이어지고 다시 만나는
죄도 아니요 벌도 아닌
챗바퀴 도는 대로 흘러가는
길 따라 흐르는 우주의 운기일 뿐이다.

편

杜宇 원영애

어릴 때 우린
검지 세우고
내 편 될 사람 여기 붙어라
놀이하며 자랐지

오늘 뭐 하며 놀까
너와 나 우리는
편을 가르며
눈치를 보며
내편 네 편을 만들었지

그 후 다시 만나도
내 편이 아니면
등 돌리는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칼국수 반죽을 밀 듯
지도 위에 새로운 금을 그어가며
방아쇠를 당기듯
손가락으로 자멸을 휘두른다.

의지

杜宇 원영애

어둠이 나를 에워쌀 때
죽음의 바다에서
등등 떠돌 때
옷깃 한쪽 잡아
세상을 건져 준

나에게도 이런 사람 있다.

4월

杜宇 원영애

꽃에 사무쳐 봄에 사무쳐
내 몸 골짜기마다 꽃을 피우면
세상의 슬픔마저
그냥 화려해져
너무나 화려해져 눈물이 솟는

산등성 빈 가지에 생기가 돌아
늙은 노송에도 꽃이 머물어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해의 운기를 점쳐준다
올 한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룻 밤의 꿈

杜宇 원영애

그 옛날
봉선화 물 드리던 손톱
애증의 붉은색
놓쳐버린 후회

오고 가는 정 모자라
폭 삭여 말려놓고
애꿎은 생손톱 물어뜯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짧은 생 그 안을
낫달로 당겨
부석한 마음 달래 보느니
살다 보니 하룻밤 꿈인 듯
지나간 그날들을
뜰에 서서 바라보네.

하얀 소리

杜宇 원영애

목련꽃 지는 밤은
소리마저 외롭더라

꽃잎에 흐르는 달빛
그 소리 줍는 이도 있다더라

달빛보다 먼저
파고드는 그 소리에
젖어 보았느냐

눈시울 주워
슬픈 가슴에 그린 그림
긴긴밤 맑고 지새운
하얀 소리

누가 볼까
그림자 속에 숨겨봐도
그리움은 알고 있다더라.

* 강원 홍천 출생

《한울문학》 신인상 등단

시집 《그리움이 되어 도저 오소서》 외 9권

공저 《인제, 다독이는 하늘빛 온기》 외 다수

각자도생

華曇 정순덕

한 사람은 원종일 축구중계를 보고

한 사람은 잠 만 나면 책을 읽고

한 사람은 틈새마다 인터넷을 한다

* 월간『순수문학』시 부문 신인상 등단
시집『갈대, 그 흔들림의 미학』『냉이꽃 웅단에 앉아』
세계모던포엠작가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상임고문

內 麟 川 - 피아실 고개 -

한용운

내린천(內麟川) 바람 물길따라
덕적리로 넘어 갔었던
산 고개, 피나무 천지였다

그 날도 마냥
바람 뜬 산허리 너머로
굽이굽이 에워 흐르는 강물

푹푹하게 스멀스멀 돋는 연두 빛
그 너머 적막강산
고요 속으로 붙잡힌 푸른 하늘

산록에 깊이 잠긴 눈물 같은
속설을 다 끌어안고도
지나간 날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을까

옛 인적 간 곳 없는 그 세월
하루해 어제처럼 서산을 넘고
달빛은 밤새워 별 발이랑을 간다

* 내린천 - 우리나라 백두대간 중심인 홍천 내면에서 발원하여 유일하게 북쪽으로
전국 청정제일 지역인 인제 내륙 70Km를 흐르다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강, 전국 백경중의 하나이며, 래프팅 코스의 최고 지역이기도 하다.

운 두 령 - 가을산 정취 -

한용운

천(千)의 아름다운 얼굴 살아 숨쉬는
울울창창한 저 원시림
꿈꾸는 자연의 일계(日計)는

애달픈 기억으로
속앓이 깊었던 푸념들을 엮어매고
재 넘어간 바람뿐인가

물결치는 산과 능선
왜 저리도 고요적적 한가한지
먼 시공 눈빛에 갇혀 마냥 아득하다

산은 물길 막고
물은 산줄기 막은 궁벽(窮僻)의 산간오지
전설 같은 속설도 잊은 듯

사색의 꿈 빛 그 빈 한 공간
끝자락 홀로 붙들고
가슴 조인 던 그 날

깊은 산 계곡 얼비친
눈부신 하늘 빛 퍼 담다
갈 길 잃어버린 그 날의 낫달 어디로 간 것일까

* 운두령 - 강원 의령(嶺)으로 차령산맥의 첫 고개, 해발 1,089 m 로 31번국도 총연장 750km 가운데 국내 제일 높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위치로는 평창군 용평면임.

은빛 빙어

한용운

대자연과 함께하는
겨울놀이 천국
인제 빙어축제에
초대를 합니다

청정 전국 제일 지역인
하늘내린 인제의 깨끗한
1급수에만 산다는
은빛 빙어를 아시나요

뽕뽕어는 한 겨울이면
넘녀노소 모두모두
즐길 수 있는 은빛 빙어
맛보다 잡는 재미 최고랍니다

코로나로 3년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 그 중에
얼음축구는 넘 재미
있어요

특히 땡칠이 껏껏이
땡땡이 땡땡이와 같이
즐기는 놀이는 엄청
신이 날거예요

* 『한맥문학』 신인상 등단
인제군민대상 수상
초하 (김동명) 문학상 대상 수상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근정포장
삼성문화재단 효행상 수상
초록우산(한국 어린이 재단) '명예 전당' 후원자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상임고문
저서 『깊은 마을의 메아리』 『한 사공 그 세월』 외

능소화

한우림

여름이 다 간 계절, 끝자락 붙잡고
후드득 떨어져 내린다
죽은 은행나무를 휘감고 올라간 것인지
넝쿨에 못 이겨 은행나무가 죽은 것인지
마구잡이로 오가는 눈길 함박웃음 짓더니
타오르던 열정 꽃잎 오므릴 틈도 없다

‘밥 한 톨 허투루 버리민 안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쌀독으로 기어간다
속바지 다리 끈을 발목에 질끈 졸라매고
허리춤으로 주먹 쌀을 퍼 넣는다

넋 놓고 바라보던 아버지
‘이제 그만 험씨’
몇 번의 실랑이를 하고 겨우 방으로 모시고 간다
먼 기억 속에 일들을 한숨으로 토해내며
한 달에도 몇 번씩 치러내는
전쟁 같은 시간

‘이거 몇사름 양식인디 동트기 전에 갔다와야 되어’
신경통으로 두 다리 얹혀놓고
마당으로 나 있는 조그만 창으로 세상과 이야기 하던
곳 속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 양식 나르던 먼 기억
할머니의 치매 걸린 소리 웅웅
고막 터진 소리처럼 뻘뻘

치매 걸려 삼시세끼 잊어도 또렷이 남아있는
할머니의 한 맺힌 그날의 아픈 이야기
후드득 같이 떨어져 내린다

* 계간 『모던포엠』 신인상 시부문 등단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회장 역임
인제지역자활센터장 역임
시집 『안부가 그리운 하루』
현재 <안나노인요양원> 원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상임고문

가을 안부

허계홍

별도 나비도 다 떠나간
어느 공원 좁은 오솔길을 걷습니다
해묵은 나무지붕을 바라보며
희미한 기억들이
빗물처럼 내려와
토닥토닥 가슴을 쓰러내립니다

곡예같은 세월에 서성이며
또 가을을 맞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에
내마음 적어 님에게 보내는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살짝살짝 수줍었던 엽서입니다

어디선가
한나절에 찹쌀개 짓어대고
풀냄새 향수되어 코끝 스치면
보리밭 푸르던 먼산이 그리워
피고 지는 삶을 꼭꼭 씹어 봅니다

* 『한국문인』 시 부문 등단
사단법인 초허 김동명문학상 대상, 강원삼포문학상 수상
월간 『모던포엠』 문학상 은상 수상
대통령 표창 (민주평화 공로상), 강원도지사 표창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부회장
시집 『그리운 얼굴은 눈물로 남는다』, 『바람의 무늬』

오카리나의 명장, 노무라 소지로를 만나다

허순애 * ullim77@daum.net



노무라 소지로(野村 宗次郎, 1954~)

도제 피리 오카리나의 제1인자. 1975년 오카리나를 만들기 시작하여 1985년까지 10년간 제작한 오카리나가 만 개가 넘고, 그중에서 엄선한 10여 개의 오카리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음. 1986년 NHK TV 특집 <대항하> OST 음악감독으로 주제곡을 직접 연주해 일약 각광을 받음. 또한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연주한 엔딩곡 <Always with me>는 국내 팬들에게 화제가 됨. 1985년 음반 데뷔 이후 1993년 앨범 <목도>, <풍인>, <수심> 3부작으로 제 35회 일본 레코드 ‘기획상’ 부문 대상 수상.

2022년 12월 14일 오후 3시 작곡자이면서 오카리니스트 소지로씨와의 인터뷰를 위하여 그의 사무실이 있는 도쿄로 향하고 있다.

그를 만나기 전, 30여년째 살고 있는 그의 거점인 ‘오카리나 의 숲’ (이바라키현 히타치오오미야시茨城県 常陸大宮市) 약 2헥타르 크기, 영혼이 되살아 난다는 그곳을 찾아갔다. 한국의 날씨보다는 따뜻한 편이지만 새벽길은 구름이 짙게 깔리고 제법 춥고 음산했지만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딸과 함께 찾아가는 길은 무척이나 든든하고 안락했다. 두시간 사십여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일본 시골의 흔한 산촌 풍경이었다. 이웃에게 물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작은 팻말은 장인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울퉁불퉁한 경사진 곳을 100미터 쯤 올라서니 30여대는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주차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 안내표지판을 따라 좁다란 시멘트 길로 올라서니 낮익은 구릉지, 야산의 풍경 초입길이다. 그 소로길을 따라서 약 300미터쯤 지나자 고택의 지붕이 눈 아래로 보였다. 플랜카드만이 휘날리고 있을 뿐, 주변의 고즈넉한 기운은 더욱 나를 설레게 했다. 47년을 한 악기에 주목한 그의 채취가 묻어났다. 꾸밈이 없고 소박한 풍경, 어디선가 그의 천상의 오카리나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숨을 죽인 채 입구에 닿았다. 비탈진 좌측으로 100여명은 죽히 앉을 수 있는 계단식 좌석으로 꾸며진 공연장이 있고, 오른쪽으로 영성한 울타리와 대문 사이로 소지로의 목조주택이 덩그렇게 보였다. 무우와 대파 그 외에 텃밭의 빈 이랑은 주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울타리 곁으로 다가가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장작더미와 가마등 그가 살고있는 본채를 둘러보고 혹시 하는 인기척을 기대하였으나 이곳에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큰 도로에서 그곳 까지는 약 700여 미터이나 소음이 전혀 묻어나지 않고 조용하면서 고고함을 겸비한 청정한 곳이었다. ‘빠르르’ 새소리가 돌아서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멈추게 했다.

그는 이곳에서 35년 가까이 살고 있다. 산이 있고 논밭이 있다. 주변에 집도 다리도 좋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한다.

“처음 이 숲에서 오카리나를 불면 새들이 많이 찾아왔다. 처음 듣는 새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들 보다 큰 새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공격적이었다.

하지만 점점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나도 겨우 이 산에 새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기뻐다. 객석을 둘러보면서 불지만 눈을 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울먹이는 사람도 있다. 그분들의 영혼에 닿도록 정성을 다한다. 마음 깊숙하게 ‘공명(共鳴)’하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램이다.”고 그는 말한다.

“나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곳이라 맘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더럽힐 수도 없다. 봄에는 새가 많이 온다. 숲의 야외 음악당에서 오카리나를 불면 새소리가 들리고 ‘피로 피로’ 맞장구를 쳐주면

서 주변을 가로 질러 날아가기도 한다”고 그는 말한다.

“현대인들은 즐참나무 자재 탁자를 버리고 합판의 물건을 산다. 옛 보물들은 점점 버려진다. 뭔가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까? 오카리나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한다.

소지로는 연주자 및 작곡자 그리고 음반기획자이다. 자연을 테마로 한 그의 음악은 일본 레코드 기획대상을 수상, ‘오카리나의 숲’이 전달하는 사계절 자연의 소리는 아름답고 설레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오카리나의 숲’으로 돌아가면
인간으로서의 감성이 깨어나는
마음 편안함이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이
평온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영혼이 되살아 나기 시작합니다.

-오카리나의 숲에서 소지로-

그는 도제(陶製) 피리 오카리나의 1인자, 군마현(群馬県) 다테바야시시(館林市) 출신이다. 고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1975년 봄, 도치기현(栃木県)의 산속 공방 시골 마을에서 스승 카야마 히사시를 만났고, 두 달 후 그의 제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오카리나와 접하게 되었다. 밤에는 집으로 와 동이 트는 새벽 4시까지 날마다 산을 향해 오카리나를 불었다. 고달프고 밀도 있는 생활은 3년간 계속되었다.

히사시 선생의 공방이 문을 닫자 반년 후 1979년 도치기현 동쪽 끝의 모테기초의 폐자재 집으로 옮겨 자신만의 음색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물은 몇 백 미터 떨어진 계곡에서 파이프를 끌어다 썼고, 빈 물레방아 터에서 가마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였다. 장작을 때서 구워 내는 일에 주력했다. 특히 눈 내리는 날에 문밖에 나가 오카리나를 부는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준다고 한다. 눈이 주변의 잡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정적 속에서 오카리나의 울림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레코드 테이프가 나오기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오카리나를 처음 접한 지 10년 후의 일이었다.

도쿄의 한가한 뒷골목에 자리잡은 그의 사무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층 계단을 오르는데 뭉실뭉실한 뭉게구름이 내 발 밑에서 나를 밀어 올리는 듯했다. 그는 무척 소박하고 왜소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자리에 앉았다. 주소에 적힌 ‘풍음공방(風音工房)’에 대해 물어보니 40여 년 전에 오카리나를 혼자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의 공방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오카리나 숲에 갔을 때 대문이 잠겨 있어서 집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다고 하자, 그 이유는 혼자서 숙박을 하는데 집을 비울 때에 이웃의 염려로 만들어 주었고, 그 공연장에서는 팬클럽의 회원들과 봄과 여름에 콘서트를 한다고 했다. 검색의 윗옷과 한 가닥 묶은 머리는 30여 년 전 오대산에서 볼 때의 모습과 변함이 없었다. 무대에서 흠피리를 부는 대연주자라기 보다 깊은 산속에 피어 있는 진달래꽃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졌다.

2022년 6월 초, 유라시아로 5개월 간 유목민 생활을 떠나기 전, 모 지면에 연재된 〈내 빛의 소명은 무엇인가?〉, 〈오카리나 소리를 찾아서〉, 〈오카리니스트 소지로의 컬러 DNA〉를 일역하여 일본으로 보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몇 번의 이메일이 오가면서 오늘의 일정이 잡혔다. 사전에 녹음과 사진을 허락받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질문 1 음악은 자연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모방하면서 은유하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선생은 오카리나로 자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요?

소지로 오카리나로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느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고양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 자연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연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다.

질문 2 오카리나는 어떤 자연적인 악기인가요?

소지로 오카리나는 흙으로 빚은 악기인데, 장작으로 불을 때서 고열의 가마 속에 화염을 통과한 오카리나만이 태초의 하느님 같은 소리가 나온다. 즉 장작으로 제대로 태워서 고열의 화염 속에서 구워진 것이 진정한 오카리나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일본 전통적인 악기가 있는데, 능관(피리의 일종)이 “피~” 소리가 난다. 하느님께 도달하는 그런 소리는 빛의 화살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연 속에서 울리는 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숲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

질문 3 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인디언들이 학살된 것 같은 동굴에서 발걸음이 머물러 그곳에서 〈엘칸도르 파사〉를 연주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들의 영혼을 잠시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곡을 연주해야 좋을지 적합한 음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소지로 본인의 곡 〈HITOMI〉는 아오모리현의 유적지에 방문했을 때 태어난 곡이다. 그때 들은 얘기로는 조문 시대(기원전 약 3900~2200년) 당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집 근처에 매장했다고 한다. 윤회나 환생을 믿고 있어서 부모들은 죽은 아이가 다시 태어났을 때 빨리 태어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집 가까이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곡을 만들었다. 그래서 위령제에 적합한 곡이라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는 곡이 좋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곡 중 <흠피리 아베마리아> 등이 있으나 꼭 그런 곡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좋다. 기성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오카리나에 어울리는 곡을 작곡하고 연주하기 때문에 유명한 클래식 곡을 연주해도 오카리나 본성의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오카리나의 울림이 가장 좋은 부분을 사용해서 곡을 만들었고, 그 울림이 좋은 음을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장인은 본인이 작곡한 것으로 연주를 할 수 밖에 없다.

질문 4 오카리나의 소리와 다른 악기를 비교하면 오카리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지로 음색 그것밖에 없다. 음악적으로 말하자면 한 개의 오카리나라면 음역이 좁은데 요즈음은 트리플도 있지만 그러나 좁아도 괜찮다. 그것은 흠이 지니고 있는 음색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그것이 오카리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조용한 숲속에서 오카리나 음색만 좋으면 ‘도레미’라고 불기만 해도 감동한다. 자신의 소리가 울리고 ‘라라라’ 메아리쳐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한다. 음색 그것이 기본이다. 음색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따듯함과 같은 울림의 소리이다.

질문 5 저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많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는데 어떤 점을 유념하면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소지로 울림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오카리나 소리가 어디까지 울리고 있는지 실제로 오카리나를 입에 물었을 때, 아랫배 깊숙한 곳에

서부터 소리, 즉 복식호흡을 하면서 본인의 몸으로 체득해야 아름다운 울림이 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체도 악기라는 생각이 들고 몸도 울리게 된다. 즉 자신의 몸도 오카리나와 함께 울리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있는 것이 좋겠다. 복식호흡으로 내는 영혼이 담겨 있는 소리가 중요하다. 복식호흡을 잘하려면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는 그런 호흡을 평소부터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아랫배로 내쉬는 그림 감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질문 6 저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십니까? 그 이유는?

소지로 클래식 중에는 시벨리우스와 드보르작, 현대인으로는 엔니오 모리코네를 좋아한다. 그는 유럽 음악과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복소리와 남미 안테스의 케냐(피리) 같은 전 세계 각국의 악기를 융합하는 음악을 만들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음악이 아닐까? 여러 민족의 악기를 모아서 각 민족끼리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완성된 음악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모리코네는 그런 일을 해 온 것이다.

〈미션〉의 테마곡도 그 예로 하나이다. 불교, 기독교, 그 외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그 곡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 나도 모리코네의 음악처럼 그런 평가를 듣고 싶다.

질문 7 오카리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지로 지금은 일본보다 대만, 한국, 중국 등 특히 한국의 수준이 높다. 한국의 콘서트에서 나는 한국인 연주자와 함께 연주한 적도 있다.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젊은 층이 많다. 일본은 연령층이 다소 높은 편이고, 요즈음은 트리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 있는 편이나 나로서는 추구하는 음색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만의 음색으로 영혼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취미로 연주하는 것은 모르나 콘서트에서 연주할 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를 해야 한다. 근래에는 오카리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진정한 오카리나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요즘 일본에서는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반반이라 생각한다. 직접 콘서트에 가서 들으면 다르니까 라이브 콘서트에 와 주면 기쁘겠다.

질문 8 홀에서 하는 콘서트하고 숲에서 하는 콘서트의 음색의 차이가 있는지요?

소지로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홀에서의 연주는 CD 앨범을 제작할 때처럼 여러 악기의 반주자들이 있어서 좋다. 그러나 숲에서는 무반주나 반주 녹음(엠알)을 사용한다. 특히 숲에서는 새들이 날아와서 맞장구를 쳐줘서 재미가 있다. 유튜브로 숲에서 연주하는 동영상 볼 수가 있는데 새가 같이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질문 9 특히 선생님의 오카리나 소리를 듣다 보면 천상을 오르는 듯 행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의 곡들은 영성 수련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지로 제 곡 〈흙피리 아베마리아〉,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와 줄리오 로몰로 카치니(Giulio Romolo Caccini, 1551~1618, 이탈리아의 작곡가)의 〈아베마리아〉 등 아베마리아 곡들은 기도하는 곡으로 좋다.

질문 10.오카리나의 곡을 쓰실 때 노랫말을 붙여본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없으시다면 가사를 함께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지로 오카리나를 하기 전에는 포크송을 불렀는데, 나의 곡에 노랫말을 붙이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몇 곡은 가사를 붙인 멋진 곡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노래한 것은 아니지만 가수가 노래한 것도 있다. 가사를 붙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천공의 오리온〉 같은 경우는 팬이 시를 써준 것이다. 나도 시를 생각하고 있지만 요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예전에 가수가 불러준 곡이 있는데 그 가수가 작사 작곡을 영어로 부른 적이 있다. 〈조용한 지구 위에서〉, 〈시라토리 에미꼬〉, 〈달이 뜬 밤의 숲〉등이 있다. 나는 노랫말을 붙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질문 11 선생님께서 즐겨 연주하는 오카리나의 곡명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 데니보이〉, 포스트 작곡 〈기리기〉, 〈민들레 홀씨가 되어〉 등입니다.

소지로 자기가 작곡한 것 이외에 결국은 민요가 가장 오카리나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민요, 그리고 서정적인 세계의 전통 민요, 특히 핀란드 민요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다. 전통민요가 좋다고 생각한다.

질문 12 다른 악기보다 오카리나로 연주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곡으로
는 어떤 것이(곡명)이 있을까요?

소지로 민요나 클래식의 경우는 제가 발표한 〈오카리나 에튜드〉 CD에 수록된 곡들이 좋다. 그 음악은 민요 음악에 가까운 곡들이다. 바흐나 구노의 〈아베마리아〉, 리스트의 〈아리아〉 등 동유럽의 아시아풍 음악이 좋다. 루마니아의 민요곡, 헝가리의 바리톤, 핀란드의 민요, 클래식 중에서도 민속음악 같은 것 등도 효과적인데, 만돌린이나 비발디, 바로크 음악 등이 있다.

(그때 좌담 말석에 앉아 있던 기타리스트 고바야시 선생이 “저는 빛의 파동으로 연주를 한다.”고 농담 투의 이야기로 우리들을 한바탕 웃게 했다. 그러자 소지로 선생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소지로 제 글 <내 빛의 소명은 무엇인가?>에 ‘빛’ 얘기가 나온다. 나에게
는 빛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 오카리나를 불면 빛의 신이 온다. 비
가 오는 날인데도 오카리나를 불기 시작하면 햇살이 비쳐준 경험
이 여러 번 있다. NHK의 프로그램 촬영 중 폭포 앞에서 오카리
나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신비한 현상이 있었
다. 소리 역시 빛의 파동이 아닌가? 나는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강
한 전율이 왔다. 우주의 파동이 울림이 되어 그것이 천상의 소리
로 나와 공명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떨고 있지 않은가?

소지로는 2023년 1월 4일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새 생명의 노래>라
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열었다. “숲의 에너지를 가득 들이마시면 그것은 새
생명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라고 포
스터에 적혀 있었다. 나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위에 오카리나
는 핫팩으로 감싼 채 보자기에 덮여 있었다. 나는 숲속에 있는 그의 집을
떠올렸다. 음악에 빠져 있는 동안 시간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공연 후 팬 사인회에서 그를 반갑게 만났다. 신년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일본에서 만나자고 한 후 CD를 가슴에 안았다.

“오카리나 매력은 음색이고, 음색을 추구하는 것은 구도(求道) 그 자체이다.”

나직한 그의 음성을 기억한다.

허순애

한국문인협회, 인제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에세이문학작가회 회원.

Hodeco Sunview Youth Hostel 대표이사(전)

Bula Korea 대표, 세계부동산연맹(Fiabci Korea) 부회장

힐링라이프코칭협회 고문, 평창신문 고문

100인의 테라피스트, 컬러애널리스트강사, CPA(Color Personality Analysis)강사,
〈공명의 집〉색채심리센터장. 현 인제문화원 오카리나 강사로 활동중이다.

희망과 상처를 주는 말의 온도

백송 김영관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도로 신호를 보내는 말과 감정에 따라,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거나 차가워지고는 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더욱 민감하다. 이때의 느낌은 무슨 감정들일까?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마음 온도를 좌우하는 요소들로 안전과 사랑, 존중, 자아실현, 존재감, 재미, 멋 등이 있다. 그리고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기쁨, 평안, 재미, 후련함, 사랑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반대로 수치감, 수심, 지루함, 압박감, 경멸감 등을 느끼기도 한다.

신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일어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를 ‘감각어(感覺語)’라 한다. ‘뜨겁다’를 감각어로 풀이하면 ‘손이나 몸에 상당한 자극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다’이고, ‘차갑다’는 ‘촉감이 서늘하고 썩 찬 느낌이 있다’이다. 반면에 ‘뜨겁다’는 느낌이 마음에 일어나면 감정이나 열정 따위가 격렬하다로 한껏 북돋워 높인 상태이다. ‘차갑다’는 인정이 없어 매정하거나 ‘쌀쌀하다’로 시들하게 가라앉아 냉정하거나 냉혹한 상태를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해서 기쁨으로 뜨거우면 황홀하고, 관심이 뜨거우면 희망이 되며, 신뢰로 뜨거우면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2002년 《아동문학평론》 평론 등단

1997년 《동해안시대문학》 1999년 《문학공간》 童詩 부문 등단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철학박사

한국문인협회 회원, 인제문인협회 회원

인제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우리가 살면서 자주 스스로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감정’에 대한 물음이다. 분노가 뜨거우면 격분하고, 지루함이 열을 받기 시작하여 혐오를 거쳐 증오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쁨이 차갑게 식으면 불안, 두려움, 공포가 된다. 그리고 기대가 차가워 지면 경계가 된다. 믿음이 차가워지면 무시, 격멸, 혐오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차올랐던 격분이 차가워지면, 체념이나 슬픔이 되고, 증오마저 차갑게 얼어붙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무관심이 된다.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은 공포의 감정이다. 공포라는 감정에서 약한 세기가 불안, 두려움이고 강한 세기가 극심한 공포이다. 이러한 공포에 슬픔이 보태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절망이 된다. 이는 가진 것 모두를 잃었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이다.

존재감은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그 품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존재감이 훼손되어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존중받을 때 기쁨을 느낀다. 반면 업신여김을 당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업신여긴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런 감정을 가진 어휘가 무시, 격멸, 멸시, 모욕, 수모 등이다. 하나같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이다. 동시에 가장 쉽게 벌어지는 일상이기도 하다.

수치감은 동물 중에서 고도로 사회화된 인간만이 느끼는 고유의 감정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이미 분류해 놓은 감정만 해도 6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기쁨, 즐거움, 편안함 같은 유쾌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화, 불안, 외로움, 열등감 등은 부정적 감정들이다. 때로 이 감정들은 우리네 삶을 마구 흔들어 놓기도 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 온도에 따라 나는 물론이고 남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다.

2. 희망과 상처를 주는 말의 온도

말의 온도
웃음의 온도

화상을 입히고
동상을 입게 하지.

그 온도에
누군가는 희망의 씨앗을
누군가는 절망의 씨앗을
심는다.

마음의 작용에 따라
바람의 작용에 따라
튀우는 싹이
피우는 꽃도
피우는 향기도 다르지.

- 김윤수, 「온도」 전문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과 웃음에 따라 상대방은 화상과 동상과 같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말에 따라 누구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힘을 내고, 누구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쓴다. 특히 유아기가 되면 정서 표현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즉,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보다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쉽게 이해한다.

정서적 폭력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꽤 심각한 흔적을 남긴다.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몸은, 길고 짧은 기간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덩어리’가 된다.

어린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내면화하여 사회문화적 기술을 익히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자아개념이 형성됨에 따라 자신의 속성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을 부여하며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우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을 갖게 된다.

자아존중감(self esteem)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자아개념이 자아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 존재에 대해 인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자아개념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이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사건’이라고 볼 때, 사건을 대하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행동으로 연결된다. 사건에 대해 그것을 극복하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자아존중감에서 비롯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가져온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용기를 가져오고, 낮은 존중감은 절망감과 두려움을 낳아 낙담을 가져온다. 부모는 자아존중감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격려를 통한 따뜻한 말에서 가능해 진다.

스무 살부터 60년 넘게
매일 써 오신 일기장

나는 방학 한 달 동안도
쓰기 힘들어
개학 전날 한꺼번에 쓰는데

갤럭시탭을 팩이라 해도
시래기를 시래기라 해도
맞춤법, 띄어쓰기 다 틀려도

할아버지 일기장은
우리 집 보물

- 도은영, 「할아버지 일기장」 전문

한 개인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상호 작용하는 장소가 가정이다. 그리고 사회화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장 먼저 습득하는 곳도 가정이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평생 지니고 살아갈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사회규범을 습득시켜 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부모이다.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사회화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들을 좀 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자녀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도덕성, 사회성,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전인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가 60년 넘게 일기를 매일 써 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써왔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을 것이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알차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생활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따져보고, 반성하는 자

세에서 진지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주까지 3대에 걸쳐 바람직한 가정환경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일기를 꾸준히 쓰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정과 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맞춤법은 맞지 않아도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이 집 안에 보물이 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 요즘처럼 물질 만능 시대에 일기장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진다.

간혀 있으니
답답하고 지루하지

답답하긴 해도
좋은 것도 있어

밥 안 해도 되고
시간 되면 차려주고

넌 안 간혀 있어
좋은 일만 있니

나도 간혀 것이나 같아
학교, 학원, 시험 등.

- 안영선, 「동물원 사자와 나」 전문

얼마 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어느 놀이 시설에서 본 일이다. 곰과 사자가 모여 있는 공원인데, 조련사가 곰에게 뭐라고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알아들은 듯이 곰은 머리 위에 있는 농구대에 농구공을 던져 넣어 관람객을 놀라게 하고 웃게 했다. 그리고 사자가 한 쌍 있었는데 숫 사자가 사자 우리 앞에서 암사자를 지키고 앉아있었고, 암사자는 네 다리를 하늘로 뻗어 올리고 누운 채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사자나 곰은 우리에게 갇힌 채 매일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두려움이나 호기심을 잊은 듯했다. 우리에게 있으면서 구경꾼들에게 재주를 보여주면 먹을 것이 생기는 동물들은 늘 지루하고 답답할 것이다. 요즘의 아동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갇혀 있지는 않아도 매일 가야 하는 학교와 밤늦게까지 다녀야 하는 여러 학원이 있다. 그뿐 아니라 자주 치러지는 시험들이 청소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우리’에 갇혀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실상을 대비시켜 힘겨운 삶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앞마당
빨랫줄에서

장구 장단
노랫가락 들리고

어깨 춤추는
할머니가 보여요
‘축 고희 기념’
수건을 보면.

- 박덕규, 「빨랫줄 바람」 전문

예전에는 가정이나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 기념일이나 행사 모임이 있게 되면 기념 수건을 돌렸다. 지금은 예전처럼 기념 수건을 돌리는 풍속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기념을 표현하는 수단도 달라진 탓일 것이다.

기념 수건을 돌린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해 달라는 의미와 마음을 보태준 고마운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표시다. 빨랫줄에 걸린 수건을 보면서 할머니 칠순 잔치를 떠올린다. 잔칫날은 노래와 장구 장단이 어우러졌으며 할머니가 어깨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셨던 모습이 선하게 병풍처럼 펼쳐진다.

빨랫줄에 걸린 수건에서 할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수건 속에 시끌 벅적했던 잔칫날의 뜨거웠던 광경이 아련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시인은 수건 한 장 속에서 지나간 할머니 잔칫날의 가족과 친척 동네 사람들을 불러낸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할머니를 추억한다. 이 시는 간결함 속에 많은 이야기와 감춰놓은 추억들과 그리움을 불러내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앞마당에 방울방울
어여쁜 꽃망울이

설레는 내 가슴에 팡팡팡 터집니다

오늘은
반가움 들고
누가 꼭 올 것만 같습니다.

- 백민, 「누가 꼭 올 것만 같습니다」 전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감정 표현에 솔직하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자기의 가치관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사람들은 감정표현이 서툴다.

감정은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혼잣말을 하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든 말이다. 여의치 않으면 감정에 대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나를 압도하던 감정들이 신비하게 사라진다.

설레임이 팡팡팡 터지는 날,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올 것을 기대하는 기다림은 크나큰 행복 그 자체다.

3. 나오는 말

온도로 느끼는 ‘뜨겁다’와 ‘차갑다’ 중간에 ‘미지근하다’가 있다. 감정에 도 미지근함이 있다. 차가운 감정이 미지근해지기도 하지만 뜨거운 감정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등은 분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망설임이나 갈등이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것이라면, 미지근하다는 망설임이나 갈등조차 미지근하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니다.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니다. 말에는 멋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멋에는 ‘차림새, 행동, 됃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움’이라는 뜻과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라는 뜻이 있다. 하루아침에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만 매일 ‘멋’을 흡수할 수는 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대신에 꿈과 용기를 꺾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자녀의 믿지 않는 것이며,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과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필요한 것은 격려하기다.

격려하기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자신감을 보여준다.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녀의 능력에 적합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때때로 자녀의 생각을 물어본다.

둘째, 자녀의 강점을 다져준다. 부모로서 자녀의 장점을 얼마나 간과해 왔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것보다 잘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녀에게 엄청난 격려가 된다. 또 어떤 것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이야기해 준다. 아울러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녀를 존중해 준다.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이기거나 지거나,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모는 언제나 자기편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러한 느낌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을 가기도 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혹은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경우, 아이가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를 받아들인다고 느끼는 아이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 방식과 대화 방식에 따라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이는 성숙된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의식이 성숙되어 자아에 대한 가치의식, 존재의식 그리고 ‘자아정체감’ 등이 확대되어 가고 성숙되어 간다. 그리고 타인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다. 건강한 성격, 따뜻하고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라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여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온화한 관계는 곧 자아의 확대, 자아의 성숙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갖게 된다. 즉, 감정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자신의 감정을 통찰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곧 안정을 회복하게 한다.

말은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 준다. 짧은 세상을 살면서 되도록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한 말 한 마디에 내 주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바뀐다. 따뜻한 말이 풍성하게 오가는 세상이 기다려진다.

건강검진을 받으며

박은덕

‘하루 20분씩 운동하고 술 좀 줄이시고 살만 빼면 별문제 없겠네요.’
가장 말하기 쉽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결과물이다.

건강검진을 했다. 미려한 건지 게으른 건지 20여 년 만에 국가건강검진(4대암)을 했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긴 세월이겠지만 그냥 아픈 적이 없었기에 뭐 특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다. 아마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4월 하나뿐인 형님께서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6년이란 시간을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검진을 안 했다고 한다.

한 살 어린 형님, 때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가끔은 미울 때도 있었지만 참 성격 좋은 여자였다.

90이 넘은 시아버지께서 그때부터 내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신다. “네가 아프면 나를 누가 돌봐주냐.” 하시며 내 건강을 염려해 주신다. 그러다 몇 달을 게으름 피던 중 동갑내기 친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이게 60년을 살았고 막 환갑을 지냈고 가정의 경제도 넉넉해진 지금 그녀는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갔을까?

* 월간『모던포엠』 신인상 수필부문 등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전국독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원도지부 편지글대회 최우수상 수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부회장
저서 『수목처럼 스며드는 그대의 향기』(공저) 외

지난 1년은 시아버지를 비롯 형님과 친구 셋이 삶을 끝내고야 말았다.

늘 긍정인 나, 성격 좋고 잘 웃는 나. 한동안 ‘죽음’이란 단어가 내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 멍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모든게 정상이고 이상은 없지만 당뇨, 고혈압 전 단계라는 말씀. 원인은 비만, 즉 살을 빼라는 거였다.

나의 부모나 형제는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 가족력 있는 지병을 앓은 이들은 없었다. 어찌면 그래서 더 자만했을지도 모른다. 어리석은 생각, 이제는 좀 더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육신, 살덩어리라 무관심 했던 몸에 미안함을 느낀다.

나를 변하게 해준 그녀들은 아마도 그녀들만의 좋은 나라. 그녀들만의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그녀들의 짧은 삶이 억울하지 않게 그녀들의 메시지를 이제는 잘 기억하며 내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겠다.

진심으로….



문화원과의 인연 34년을
되돌아보며...

이만철 (인제문화원장)

인제 목기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제 4 장

특별기고

문화원과의 인연 34년을 되돌아보며… (사무국장21년/부원장9년/문화원장4년)



이만철(인제문화원장)

1984년 4월 어느 봄날 지금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에 살고 있는 황범식 씨로부터 인제문화원 일을 맡아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내 인생에 문화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인제문화원은 새롭게 인가를 받으면서 태동하는 단계에 있었으며 초대 원장으로는 북면 원통리에 살고 있었던 원로 김진용씨가 맡아있었고 저를 인권하던 황범식씨는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으로 있었으며 문화원일을 겸직하여 보고 있었다.

그 당시 문화원은 군청2층 한 구석 좁은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김진용원장으로부터 간사라는 임명을 받고 급여 월 십오만원으로 정하면서 또한 사업비가 총 오백만원으로 연약한 상황 속에 여유롭지 못한 간사직을 피할 수 없이 맡고 일을 시작하였다.

문화원일이 처음이라 생소한가운데 어려움일 많을 당시 담당부서의 공보실 박동화계장(현재 인제읍상동2리 거주)님과 직원이었던 박희운씨(현재 인제읍상동4리)의 큰 도움을 받으며 일을 보게 되었다.

■ 80년대는 지역문화 정체성 찾는 거점으로….

이는 비록 우리문화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었다. 문화원의 역할과도 같고 문화원에 대한 기대와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문화의 단순한 수신자에 그칠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지고 문화의 발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잃어버린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되찾

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활동과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문화서클이나 취미그룹 등 문화예술 동호인 가족을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족운동이다.

이런 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홍보하면서 문화활동을 모르는 사람들을 문화의 마당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문화원이 담당해야 한다.

80년대를 들어가면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중추적인 바탕으로 각 지방문화원과 함께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내실화를 기하고 새로워지게 되었다.

그중에 크게는 해외 선진지견학과 자체 연수회는 문화원종사자들에게 안목을 넓혀주고 인식을 전환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방문화원은 1980년대 이래 지역문화의 산실 혹은 거점으로 그 위상이 점차 국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인제문화원의 변천

인제문화원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 여가생활, 취미활동 등 정서적 선양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정체된 분위기속에서 안주해 온점도 있다고 본다.

세부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크게 분석해보면 향토사료 발굴 보전사업으로 6개 읍면의 전설과 지명유래 잔존하고 있는 비문과 문헌등을 적은 사료집을 발간하였고, 옛 향토사료품인 생활용품, 작업용기, 민속품을 산촌박물관에 전시토록 제공하였으며 민속경연대회를 년년히 참가하면서 옛 선인들의 생활민속사를 발굴·재현·보존함으로 기록발간물과 재현은 계속 계승하여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제옛목 민속사는 1985년도에 발굴, 재현함으로 제3회 민속경연대회 강원도 18개 시·군중 최우수상을 수상한바있고 또한 인제 숲둔골 숲굽기도 1988년도 홍천군에서 개최된 강원도 제6회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으며 1987년도 안양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민

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하면서 발간물로 잘 편집되어 보존 계승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문화학교를 지정받아 주민들의 교양과 문화예술, 정서함양 등 여가생활과 취미생활 등에 강습을 계속해옴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박인환 시인 선양사업으로 시비를 건립하고 학생들의 사생실기 대회와 백일장 개최 등은 일찍이 사업으로 추진하여 정신적 추모바탕을 존속하여옴은 물론 각종 성인들의 참여사업으로 발간물을 내고 축제행사들을 개최하여옴은 물론 박인환문학관을 건립 중심으로 지역인은 물론 외부인들이 넘나드는 문예터전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 외 한계리의 예술인촌 미술박물관, 용대리의 여초선생박물관과 시집 박물관 등은 축제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 짐은 물론 관광차원으로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고있어 문화예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문화는 싹틔줄같은 지역문화의 총체

그간 34년간의 문화원 인연을 갖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본다.

못다한 일들과 생각에 남은 아쉬움을 떨리한 채 잊고 지내고 오면서 한 마디 더한다면 이제라도 다시한번 재회를 갖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하여 인재문화원이 문화사업의 중추적역활을 책임지고 문화예술활동사업에 크게 변천을 가져오는 일을 하고싶다.



초대 문화원장 김진웅님



예전 인재문화관 문화원위탁건물

지역문화는 지역인들이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체성을 찾는 가치관이며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제지역민들에게는 지역문화야말로 정서적 고향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지역문화란 인제만의 갖고있는 문화이면서도 특성화된 인제의 영역을 갖춘 독자적인 문화라고하면 더욱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세포가모여 장기가되고 장기가모여 인체가 되듯이 하나하나 인제만의 특유한 고유적 문화는 우리 인제인만의 총체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유서깊은 지역문화를 이제 전통의 현대화 미래화에 초점을 맞춰 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해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문화원 입사 초창기 주요사업

첫째: 박인환 시비건립

1987년 박인환 시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김진용씨를 위원장으로하고 제가 간사직으로 실무를 맡고 당시 이사였던 박주화(한계1리 거주)씨를 건립공사를 맡는 등 몇 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박인환 시비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사진

추진위원회는 학생과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참을 동요하여 모금을 하였고 또한 군비보조와 도비보조 등을 지원받아 총 일천칠백오십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하였다.



시비건립터 정리작업 사진



시비건립 조립 사진



시비 시초건립 모양사진



시비건립 제막식 전 사진



시비건립 준공식 사진



추모백일장 사진

시비건립부지는 지금 인제터널 가로리쪽을 나가 우측 아미산밑에 군부지를 지원받았고 비석은 내린천변에서 물색하여 습득하여 군장비차를 얻어 수송하였고 포크레인장비는 박주화씨가 당시 토건업을하므로 여건이 좋았고 글씨파는 것은 역시 군부대 기술자를 지원받아 건립을 하였다. 시비는 박인환 시인의 “구름”이란 시의 이미지를 살린 구름모양의 자연적으로 전면에 “박인환 시비”를 음각하였고 후면에는 “세월이 가면”시를 음각하였다.

이후 1988년 8월 15일 준공을 하였다. 이후 이곳에서 학생, 문학인들의 추모백일장이 개최하는 등 행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1998년도 현재 위치한 합강공원에 이전하였다.

둘째: 향토사료 수집 및 향토사 보존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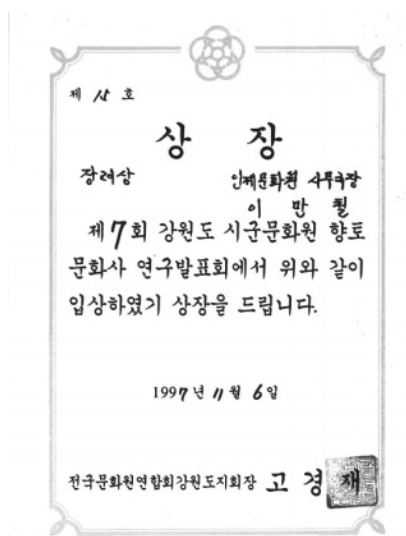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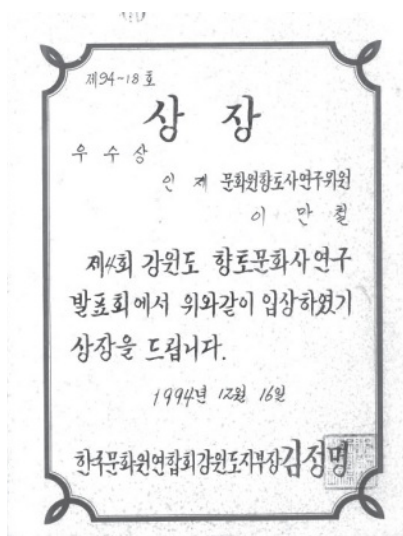
문화원의 본 정체성은 전통문화발굴 선양, 보존, 계승사업에 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어서 현대문화예술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입사초기에 향토사자료 수집 및 향토사 발굴, 보존, 계승사업으로 본인은 6개 읍면을 드나들며 사료품을 지인들을 통해 무료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전경



전시된 사료품



향토논문발표대회 수상 상장

로 제공받고 또는 보상을 주면서 수집을 거듭하였고 향토사에 관한 문헌, 사료, 구전, 설화 등을 다각적인 방면으로 수집을 하고 정리하여 사료집을 발간하고 발표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사료품 등은 지금 산촌박물관에 자리잡고 진열되어 있으며 향토사기록문은 발간되어 다각적으로 보급되고 일부는 문화원에 보존되어 있으며 향토사발표회에 참가하여 그 의미가 중요함을 깊이 보존계승하고 있다.



셋째: 민속예술경연대회 재현의 우수성

강원도에서는 향토전통문화의 발굴 1993년 인제군민대상(이만철 원장)

및 보존 계승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들어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왔다.

이에따라 제가 문화원에 입사초기인 1985년도에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제3회차로 개최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노인회원님이 주로 참가하여 한달간 “인제 뗏목꾼 소리”란 제목으로 앞강에 새로이 마련된 운동장에서 연습을 거듭하여 출전하였으며 심사결과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또한 1987년도에는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가 강원도 홍천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남면 어론2리 숯둔골에서 주민들로 구



경연대회 재현사진-1 (1985년 속초 공설운동장)



경연대회 재현사진-1 (1985년 속초 공설운동장)

성된 참여인원으로 한 달간 숯둔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숯둔골 숯굽기는 안양시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1987년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홍천공설운동장)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안양시공설운동장)

■ 문화학교 지정

1990년대를 맞으면서 정부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와 문화행정이 분리되면서 문화부가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출범했다.

초대문화부장관에 이어령 박사가 임명되었다. 또 이후 문화부는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한편 문화부는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교육과 감성훈련을 통한 계층간 문화수준을 평준화하고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따라 중앙에서 시범 실시하던 문화학교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치를 하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민섭씨가 맡고 있었다. 어느날 이민섭장관님이 지역구 관리활동차 인제를 찾았는데 바로 그분에게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는 계기가 있어 인제문화원에도 문화학교를 지정해달라고 어렵게 부탁을 하였다. 이민섭장관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신다고 하면서 서울 사무실가서 실무담당자에게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다.



이만섭 장관 사진



최초문화학교 플룻강좌 사진

그 후 장관님께서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즉 마침 1개 지정할 여유가 있기에 문화학교를 지정해 주시겠다고 기쁜소식을 받게되어 오늘의 인제문화학교가 자리를 잡게되었다.

그 후 당시 문화원은 군청앞 도로변에 있었는데 1층 공간을 이용하여 소공연장을 만들고 영상기기와 책상 또한 집기품으로 주며 총7개 강좌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소원이었던 문화강좌를 시작하게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 결론

인제문화원이 80년대초 인가를 취득후 몇가지 주요 추진한 문화사업을 열거해 보았다.

이외에도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각가지의 문화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동참과 함께 변천이 크게 발전되어왔다.

이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주민의 참여의도가 여유롭게 함께 하였음을 바탕으로 오늘의 인제문화원이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인도 일찍이 8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34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봉사과 희생을 누구보다 앞서 노력해왔음을 자부하면서 지역 주민의 확실한 인정을 받고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족이라는 일념은 거두고 또다시 남은 주어진 여건에 가감하면서 더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짐해본다.

인제 목기

이학주

보부상과 선질꾼 지계에는 인제목기가 주렁주렁

“여기 메가 어디 메노 두메산골 인제로다
~산간문화 발달하여 목기 시대 열었는데~”

인제에서 불리던 <갈이남박 만들기 소리>의 일부분이다. 아침가리 계곡을 따라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일터로 나간다. 농사지를 땅이 얼마나 좁으면 하루아침에 밭갈이를 마친다고 하여 ‘아침가리’라는 지명이 생겼을까.

이러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목기를 만들고, 뗏목으로 나무를 운반해서 살아갔다.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흥겨운 노랫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윤두서(1668~1715), <선차도>, 조선 후기.
목기를 깎고 있는 공인(工人)의 모습을 담았다.



양쪽에 손잡이로 쓸 수 있게 귀가 달린 ‘귀함지’

인제 생활목기, 소양강 여을 지나 서울 마포나루까지

인제 목기가 유명해진 것은 어쩌면 산이 많고 물길이 좋은 자연환경 때문이었을 게다. 산에는 목기를 만드는 좋은 나무가 많고, 만든 목기를 팔러 갈 때 물길을 이용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다. 그 때문일까, 인제의 〈뗏목아리랑〉은 아주 유명하다. 청평담과 팔당담이 생기면서 뗏목은 이제 한강을 따라 서울로 이어지지 못하지만, 아직도 인제의 〈뗏목아리랑〉은 불리고 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강원도아리랑〉 가락에 맞춰 부르는 〈뗏목아리랑〉은 또 다른 향토 음식색을 드러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흥겹고 아리게 한다. 소리 가락만 들어도 내린천과 인북천을 지나 인제의 합강정 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양강 푸른 물굽이가 저절로 생각 속에 다가온다. 물길을 통한 유통의 길은 인제의 좋은 목재와 함께 자연스럽게 생활목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인제와 남원읍은 2대 목기 생산지로 유명하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어느새 600년이 넘었다. 인제 목기는 주로 생활목기이고, 남원목기는 제기용(祭器用)이 주로 만들어졌다. 물론 후대로 오면서 주 생산품은 변화를 보이지만, 그 전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전통은 목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과 관대리와 남전리를 잇는 38대교에서 바라본 소양강

17종에 이르는 생활목기 생산

인제 목기가 유명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좋은 목재가 많기 때문이다. 인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유명한 설악산의 3분의 2가 인제에 속해 있고, 산나물이 많기로 유명한 방태산을 비롯한 커다란 산들이 뿔뿔이 자리해 그 위용을 자랑한다. 이러한 자연환경 덕분에 목기를 제작하기 좋은 피나무, 음나무, 가래나무, 밤나무, 금강송 등을 구하기가 한결 쉽다. 조선 시대에서는 일반인이 황장목을 베고 산삼을 캐는 행위를 금하며 ‘금표(禁標)’를 세웠다. 한계리의 ‘황장금표’와 미산리 개인 산 입구에 세워 놓은 ‘산삼가현산서표(山蔘加峴山西標)’가 그것이다. 인제 사람들은 나라에서 금한 황장목과 산삼을 캐지 않아도, 목기를 만들기 좋은 다른 목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한국 목기 종류

찬합 : 반찬을 여러 층의 그릇에 담아 포개어 간수하거나 운반할 수 있게 만든 용기.

함지박, 함박 : 통나무 안을 파내서 바가지같이 만든 큰 그릇.

이남박 : 쌀이나 곡물을 씻을 때 쓰는 함박. 안쪽에 여러 줄로 홈이 있다.

함지박, 함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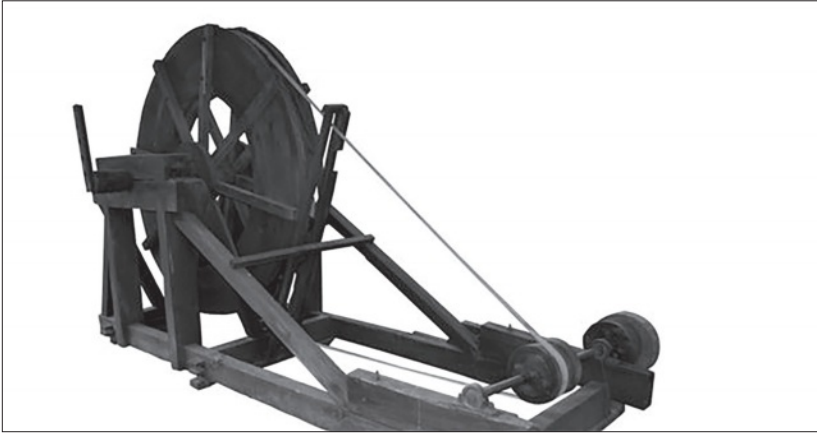
찬합



이남박



산림 현장에 세워진 금석문(金石文) 외에도 《조선왕조실록》 태종조 18년, 《규합총서》, 《인제읍지》, 《조선의 물산》에 인제의 목재와 목기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 《규합총서》(1809)에는 인제 지역의 특산물로 나무김칫독을 소개하고 있으며, 《조선의 물산》(1927)에서는 인제 지역은 한강의 수



갈이남박을 직접 만든 인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재현한 물레형갈이틀

원(水源)이면서 수운이 발달해 운송에 편리하다고 했다. 그리고 목기는 남원 목기와 함께 2대 목기 생산지로 이남박, 함지 등 17종에 이르는 서민들의 생활목기를 생산해 전국적으로 공급했다고 하였다.

이들 목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갈이산판꾼’ 또는 ‘바가지 산판꾼’으로 불렀다. 여기서 ‘갈이’는 ‘갈이틀’로 나무 그릇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남박’이 나무바가지를 뜻하니 ‘바가지 산판꾼’이란 명칭이 붙은 것이다. 인제에서 주로 만드는 목기는 나무로 만든 바가지로, 서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생활 도구였다. 그 때문에 인제에서 생산된 목기는 쌀을 일 때 쓰던 이남박, 식자재 등의 물건을 담을 때 쓰던 함지, 밥과 반찬을 올려놓고 밥을 먹던 소반, 술을 덮던 술뚜껑인 소댕, 냄비를 덮던 뚜껑인 도매(인제방언), 국을 풀 때 쓰던 국자, 나무로 만든 식기인 두가리 등이었다. 그리고 향로, 향합, 쯔대, 술잔, 잔대, 잔 받침 등의 제사용기가 생산되었고, 구박이나 나막신 등의 생활용품도 만들었다.

이를 만드는 사람도 각각 그 명칭이 있었는데 목기를 깎는 기술자인 ‘갈이대목’, 갈이틀의 줄을 움직이는 ‘줄꾼’, 원목을 벌목해 나무의 겉을 다듬어 겉투리 작업을 하는 ‘산판꾼’ 등으로 약 30~40명으로 구성되었다. 인제에서 사용한 목기를 깎는 틀은 ‘사각목구조갈이틀’과 ‘물레형갈이틀’이 주

로 쓰였다. 이 기구들은 그 규모가 비교적 커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인제에서 만든 생활목기는 어디를 가나 산간가옥이나 농촌의 처마 밑에는 한두 개씩 걸려 있다. 겹게 그을린 함지며 이남박이 그 옛날 우리의 생활사를 말해 준다. 투박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하고 요긴하게 썼던 생활 도구였다. 그러나 문명의 시간은 이제 투박하고 무거운 목기를 반기지 않고 멀리하게 되었다.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 박물관으로 들어간 원인이다. 어쩌면 1970년대 스테인리스 그릇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빛어진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600년 전통의 인제 목기 부흥을 위해

문명의 시간을 따라 대부분의 사람은 수백 년 이어 온 목기의 전통을 멀리했다. 하지만 인제에는 그런 전통을 꾸준히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인제 넷강마을에 가면 인제문화원에서 ‘민속 생활용품 제작 기능 보유자’ 명패를 세운 집이 있다. 무려 3대를 이어 온 민속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이종관 씨가 주인공이다. 어쩌면 목공예, 짚공예로 순수 생활용품을 인제에서 만드는 마지막 인물일 수 있다. 대를 이어 민속 생활용품을 제작한 덕분일까. 그의 집에 가면 아예 그가 만든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지어져 있을 정도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에 전시된 인제 목기

또한 인제 설악산 마장 터에 가면 화전민촌을 만날 수 있다. 화전민촌이라야 모두 떠나고 옛 토방집 또는 쉬틀집이라고 하는 가옥이 4채 남았다. 마장 터에 있는 귀틀집을 보면 ‘이런 집에 사람이 살았을까’하고 의문일 정도다. 그야말로 단칸방의 산간 가옥을 볼 수 있다. 원래 이곳 마장 터는 대간령과 소간령을 이어 고성과 인제를 연결하던 행길이였다. 물물교환이 이뤄지고 마을이 형성되어 호황을 누리던 곳이다. 술을 빚는 양조장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곳을 아직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작은 단칸방 귀틀집에 세간을 놓고 사는 정준기 씨다. 그는 이곳에서 만들어지던 생활목기 동장 현황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 옛날 목기를 만들어 지게에 지고 소간령과 대간령을 넘으면서 서낭당에 돌을 얹어 무사고를 빌었다고 했다. 그 시절 보부상과 선질꾼의 지게에는 주렁주렁 목기들이 매달려 있었다.



박영식 대한민국 전통생활목기명장이 작업실에서 인제 전통 목기를 만들고 있다.



박영식 명장의 인제 목기 작품들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 목기의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 인제 목기 같이남박 만드는 과정을 재현했다. 강원도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였다. 1989년과 1996년 두 번에 걸쳐서 같이남박 만들기를 마당놀이로 재현했다. 현(現) 이만철 문화원장이 애쓴 덕분이다. 이만철 원장은 같이남박을 직접 만들던 이장수 · 이병성 · 손용인 · 조해수 · 이종성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고증했으며, 물레형 같이틀까지 제작했



박영식 명장의 인제 목기 작품들

다. 그리고 그 과정에 따라 산신제, 벌목과 운반, 겉투리 작업, 같이 작업, 건조 작업, 상품 거래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나리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마을 주민 60명을 모아 출품했고 우수상을 받았다. 그때 모은 물품과 같이틀은 현재 인제 산촌박물관에 전시 보관되고 있다.

인제의 생활목기는 문명의 시간을 따라 그 생명을 보존해 오면서, 생활 목기에서 목공예품으로 발전해 갔다. 한때 인제민예단지가 있어 명맥을 이어 왔으나 없어지고, 현재는 인제읍내에 있는 갤러리와 체험관으로 전승했다. 이를 계승하는 인물은 대한민국 전통생활목기명장(전예제16-명장64호) 박영식 씨다. 그는 2013년 목기 명장이 되었다. 그는 인제 전통 목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 목기의 맥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와 같이 인제 목기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한, 인제 목기의 전통은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이다.

글. 이학주(문학박사, 인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사진. 공유마당 저작권위원회, 김창수(인제산촌민속박물관), 셔터스톡,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이학주, 인제문화원



제22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2023 청소년평화생명백일장

제 5 장

백일장 입상작품

제22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자명단

상 급	성 명	제 목	지 역
대 상	정은숙	어머니, 다시 '도경리역'에서	서울특별시
장 원	오옥자	선택	경기 양평군
	서현정	자연과의 약속	경기 남양주시
차 상	한주연	꿈꾸던 밤들은 빛나기에	인천광역시
	김은아	엄마와 우물	서울특별시
	박서영	내 인생 가장 빛나는 무대	인천광역시
	정애정	선택	강원 영월군
차 하	나영희	어머니의 초상	강원 인제군
	이금진	반려(伴侶)를 반려(返戾)하라	경기 남양주시
	정은하	어머니의 초상	전북 김제시
	허윤서	초상의 해방일지	경기 남양주시
	추지유	8,000km_자연과의 약속	광주광역시
	황오옥	내 인생의 선택	강원 춘천시
장 려	박아셀	늘 내 선택에 후회하지만...	경기 안산시
	송흔희	웃으심에	서울특별시
	김선녀	어머니라는 이름은	경기 구리시
	구영주	어머니	경기 성남시
	김민정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나	부산광역시
	문정희	엄마의 등대	서울특별시
	양성자	어머니의 초상	경기 용인
	이정화	내 생애 가장 빛나던 날들의 추억	대구광역시
	강미숙	자연과의 약속	울산광역시
	오순임	선택	경북 안동시

대상

어머니, 다시 ‘도경리역’에서

정은숙

“어머니를 가슴에 담고 올게요.”

지난 해 봄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나는 이른 새벽 서울을 떠나며 남편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 어머니와 나의 아릿한 이야기를 잘 아는 남편이 물기 머금은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삼척 도경리역 플랫폼을 따라 이제는 모르는 새들과 안개들이 무리지어 어스듯하게 흘러 다녔다. 나는 무작정 폐역 주변을 홀로 헤맸다. 사람이 오래도록 닿지 않아서인지 잘 보존된 말간 풍경이 오히려 가슴 저렸다. 이른 아침 역광에 비친 안개의 입자들이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각자 어디론가 뿔뿔이 분산되었다.

너무나 그립지만 미워서 다시 오지 않았던 역이었다. 이제 60여 년 전 그곳을 데우던 승객들의 체온은 식어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시절 그곳에 맴돌았던 누군가의 사랑과 작별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내 안에는 그 플랫폼으로 들어서는 완행열차가 그 산골 뺨꾸기처럼 미치게 우우 울며 정차한다. 오래 된 슬픔의 내력은 복원되지 않을수록 좋은 법이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들을 지휘할 수는 없어도 끝내 잊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히 내 추억은 다시 꼬집어내도 지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가슴 속 나만이 아는 어두운 방에서 어머니와의 가뭇한 시간을 현상하는 중이다.

아버지는 너무 일찍 우리를 두고 하늘로 주소지를 옮기셨다. 그 후 어머니는 날마다 그 역의 플랫폼에서 허름한 고무 대야를 내려놓고 가난에 기

대어 쪼그려 앉아 계셨다. 찢긴 대야를 굵은 실로 꿰맨 자국에서 늘 슬픔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덩달아 보리개떡들과 우리 집 기차길 앞 흐린 웅덩이에서 자라던 뻘뻘한 미나리들도 곡절을 모른 채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리개떡 두 개, 미나리 한 단! 빨리요!”

이윽고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서면 몇몇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크게 주문을 외쳤다. 그때마다 왼 쪽 다리가 많이 짧은 어머니는 절뚝거리며 열차가 떠날까봐 다급히 달려가곤 하셨다. 그러다 가끔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도 있었다. 잠시 정차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전까지도 따스했던 그 역의 이야기는 그렇게 순식간에 덜컥거리는 몇 토막 절규로 내동댕이쳐졌다.

어머니는 외동딸인 나를 끔찍이 사랑하셨다. 유년 시절 내가 아주 가끔 그 플랫폼에 가면 어머니는 보리개떡 한 개를 쥐어주셨다. 나는 매번 그 생각에 침을 꿀꺽 삼키다가도 도리질을 하며 거의 가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께서 승객들을 향해 뒤통거리시며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다. 아 니, 부끄러웠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난 후 철길을 따라 홀로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도시락 대신 먹다 반쯤 남겨둔 보리개떡을 다시 꺼내 아껴 먹었다. 그때였다. 나는 침묵처럼 검은 얼굴로 보리개떡을 팔고 계시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우연히 철길을 지나던 학급 반장이 나를 불렀지만 못 들은 척 했다. 막 나를 부르려던 어머니도 얼른 고개를 돌리시며 나를 못 본 척 했다. 나는 물끄러미 어머니를 바라보다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머니가 계신 철길 반대쪽으로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멀리 훨훨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이윽고 먼 철길 옆 제방에서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훔치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어린 가슴에도 어머니께 큰 죄를 진 것 같았다. 철길 틈에 피어 있는 한 송이 이름 모를 꽃만이 바람에 경중대며 나를 위로해줬다. 사실 나는 어머니께서 밤늦게까지 오지 않으시면 늘 걱정을 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가서 늦게까지 오지 않는 엄마를 걱정하는 기형도의 시 ‘엄마 걱정’을 따스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증오한다. 나는 나중해야 내가 먹던 보리개떡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아까 그 반장이나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자주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은 그 친구들을 칭찬해줬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시지 않았다. 나는 저학년 때는 때를 찢지만 세상을 희미하게 알면서부터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칠 무렵 서울의 어느 산 번지로 이사를 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 상처투성이의 플랫폼을 떠나서 좋았다. 그러나 산바람은 날마다 달동네 적막한 단칸 방 우리 집 벽을 뚫고 덜덜덜 불필요한 근황을 물었다.

“어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문득 내 축축한 망막에 오래 전 그 플랫폼에 앉아 잠시 쉬시던 어머니의 환영이 보였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사랑은 가고 나만 남았다. 그 순간 내 무반주의 신음 같은 호명을 타고 다시는 멈추지 않는 기차가 굉음을 내며 스쳐갔다. 화들짝 놀란 새땀들이 옷자란 음표를 달고 일제히 도망쳤다.

기차길 옆 벚꽃들도 점묘화처럼 우수수 흩날리며 기차 차창의 보랏빛 긴 띠를 가렸다. 마치 직육면체의 겨냥도에 숨은 점선들 같았다. 나는 그 두꺼운 도화지 같은 창문에 곡선을 긋고 있는 보라와 하양의 보색 대비 앞에 가슴이 쿵쥔거렸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나처럼 대열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다 가장 늦게 숲으로 들어섰다.

나는 새들이 허공을 날 때 가장 새답다고 생각한다. 새들이 숲에 내려앉는 순간 새 본연의 철학은 묻힌다. 이제 기차는 떠나고 그 플랫폼에는 나와 새들의 날개 짓 소리만 모가지를 내밀었다. 나는 차라리 그 귀엣말 같은 빈칸이 좋았다. 그 구부정한 여백은 내 안의 물음표들을 조금씩 느낌표로 채워주었다.

그러나 나는 더는 건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뜻 모를 악을 써댔다. 지나가던 한 할머니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플랫폼을 따라 멀리까지 내 깊은 상처가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듯 탕탱 쌓여갔다. 잠시 후 내 비명 같은 악다구니가 건너편 숲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 메아리에는 봄노래를 준비하던 빠꾸기의 목청 고르는 소리, 고요를 틈타 깨금발로 서서 꽃망울을 더욱 화사하게 터뜨리려는 제비꽃들의 의지가 묻어났다. 아까부터 내가 홀로 계속 중얼거리던 ‘어머니’라는 활자도 한사코 배어나왔다.

나는 지갑에 넣어둔 흑백 사진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사진에서 아직도 미나리와 보리개떡 냄새가 폴폴 피어났다. 그 옛날 누군가 찍어주셨는지 어머니께서 어색하게 홀로 웃고 계시는 너무나 색 바랜 사진이었다. 언제나 주인을 따라다니던 보리개떡과 미나리를 담은 낡은 대야도 보였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의 혜진 월남치마 호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사진은 이제 내 지갑에서만 산다. 나는 어머니께서 더는 늙지 않으시는 그 사진을 보면 영락없이 눈물이 나지만 아무도 몰래 가끔 꺼내본

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제발 응답하라.

나는 흔적도 없는 그 집터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리고 그 옛날 호랑나비가 자주 앉았던 남새밭 자리를 어림해보며 그 쓸쓸한 부채를 달랬다. 이윽고 나비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아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쳐다보았다. 나는 물리적인 그 터는 사라졌지만 그곳에 내 가슴을 깊이 묻었다.

해질녘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백밀리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역을 바라보았다. 몇 번을 뒤돌아보았는지 모른다. 차창 밖 만월을 꿈꾸며 오른편만 겨우 남은 초승의 달도 많이 외로운지 나를 따라왔다. 나는 이를 악물며 웃었다. 그 웃음 사이로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누군가 내게 과거로 가는 단 한 장의 열차 승차권을 준다면 어머니와의 재회를 선택할 것이다.

내 유년은 어머니와 함께 가난을 채우기 위해 집도 없는 민달팽이처럼 참 많지도 비틀거렸다. 그러나 나는 살면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플랫폼처럼 곧게 걸으려고 노력했다. 돌아보면 어머니의 한숨과 땀방울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절절하지만 따스한 플랫폼이었다.

나도 이제 칠순을 향해 간다. 내 시간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떠밀리는 중이다. 그러나 그 뒤숭숭한 쇠락이 그리 슬프진 않다. 지금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크게 고뇌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픈 그리움도 말라간다. 어차피 존재는 그 폐역의 플랫폼처럼 시간을 따라 명멸한다. 다만 나는 사는 동안 오래도록 나를 기다려준 그 어머니의 역만큼은 빗진 마음으로 끝끝내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한 뼘쯤이라도 남아 있는 그리움이 있다면 가끔씩 녹는 기적이나마 올릴 것이다. 어머니께 어떻게든 닿도록.

장원

선택

오옥자

어미 소가 젖을 주지 않았다
배고파 떼쓰는 송아지를 밀쳐냈다
울음소리를 들은 주인아저씨가
강제로 둘 사이를 떼어 놓았다
어미 소는 어디론가 끌려갔다
다리를 휘청거리며
가다 말고 돌아보던
젖은 눈의 어미 소

축사에 소독용 생석회가 덮이고
어미 소의 채취는
바람 속에 흩어졌다

그날 TV의 뉴스
-굴삭기 여러 대가 집채만 한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문 소들이 트럭마다 가득 실려 옵니다
하얀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위한 주삿바늘을 찌르고
소들을 구덩이 안으로 몰아 넣습니다
아수라가 따로 없는 현장입니다-

주인아저씨는
혼자가 된 송아지에게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엄마 기다리지 말아라

장원

자연과의 약속

서현정

나는 지금 지독한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다. 어느 날은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또 어떤 날은 주변 무엇이든 베어낼 듯 날카롭게 마음이 벼려져있다.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빠져 온 몸이 움츠러들기도 한다. 나는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고여 있는 강과 같다.

마음의 감기를 앓게 된 건 고향인 산골마을에서 빠져나와 도시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했다. 동경을 품고 찾아온 도시에서는 여유로운 숨 한 모금 내쉴 수 없을 만큼 빠듯한 생활이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떠난 고향에 대해서 허기와 갈증이 일어났다. 무작정 화려함만을 쫓았기 때문일까. 가장 빛이 나아할 나의 이십대는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다 위를 이리저리 부유해 다니는 빈 깡통 같았다. 서른이 됐을 무렵, 마음 푼푼한 사람과 만나 결혼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이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몇 번의 습관성 유산과 갑상선암이 줄지어 찾아오며 오히려 우울증만 한층 더 심해졌다.

“현재 복용하시는 약의 용량을 높일지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하죠.” 의사에게서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나오는 길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내 마음은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 떠돌기만 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상념들로 머릿속은 무거웠고 발걸음도 더뎠다. 생전에 잠겨 집을 지나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공원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소음 가득한 번잡한 도시 안에 이런 공원이 있었나 싶게 낯설고 생소했다. 그것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는 선뜻 공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뚱히 보고만 있었다. 언덕 위로는 녹음 짙은 숲속 산책로가 보였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니는 젊은 부부 한 쌍이 눈에 들어왔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산책로로 걸어가 숲과 마주했다. 제법 무더운 날씨로 인해 숲은 푸르게 여물고 있었고, 무엇 하나 꾸미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빛이 나고 있었다.

그 앞에 선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햇빛 속에 서 있어도 몸에서는 한기가 도는 것 같았다. 가쁜 숨결을 다독여 조심조심 자연과 호흡을 맞추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맨발로 걸어도 좋을 만큼 부드러운 흙길 위를 타박타박 소리 내어 걸어보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귀가 오랜만에 휴식을 취한다.

숲에서 느껴지는 청량함과 편안함이 피부에 와 닿는다. 땀뻑하게 굳어 있던 얼굴이 서서히 풀어진다. 숲을 처음 찾는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푼푼함이 한없이 고맙다. 푸드득. 어딘가를 향해 있는 힘껏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짓이 눈부시다. 서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당당한 몸짓이다.

“그래, 내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지.”

신음 같은 낮두리가 터져 나온다. 햇빛은 마음자락을 일으켜 세워보고자 인간힘을 쓴다. 두 팔을 벌리고 크게 심호흡을 한다. 내가 내뿜은 눅눅한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 호흡에 실려 들어온다. 삼십분 남짓 걸었을까. 숲을 돌아 나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에 간 건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다. 대답 대신 “오늘 일찍 들어와, 당신 좋아하는 꽃게찌개 해 놓을게.”라고 말한다. 모처럼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음날 무작정 집에서 나와 다시 그 공원 숲으로 향했다. 숲 안으로 들어서니 적막했던 마음에 온기가 차오른다. 햇살 속에 한참을 앉아서 쉬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나른한 잠이 쏟아진다. 흘러보낸 옛 기억이 꿈결처럼 떠오른다.

할아버지의 손아래에서 자란 나는 어린 시절 늘 혼자였다. 넓디넓은 산자락에 열 몇 가구가 떠엄떠엄 흩어져 사는 산골마을에는 또래 친구를 찾

을 수 없었다. 나무와 다람쥐를 벗 삼아 숲에서 노는 일만이 유일한 낙이었다. 숲이야말로 변함없이 나를 반기는 유일한 친구였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은은한 꽃향기에 선잠을 깬다. 향긋함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싶어 따라가 보니 배롱나무에 빨간 꽃잎이 달려있다. 해가 뜨거워질수록 더욱 붉디붉어지는 꽃잎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저렇게 탐스런 꽃잎들을 띄워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했을까. 배롱나무 옆에 서서 저 아래로 보이는 시가지를 물끄러미 지켜본다. 숲이 간직한 싱그러움이 번잡한 도시 풍경을, 정신없이 내달리는 자동차 소리를, 바쁜 도시인의 거친 숨소리를 모두 감싸 안는다. 아픔 없는 삶은 없다고, 아름답지 않은 삶도 없다고 배롱나무가 바람결에 속삭이듯 일러준다. 배롱나무가 가진 뜨거운 삶의 열정에 감염되었던 것일까. 꺼질듯 말 듯 불빛이 아련했던 마음속에 다시금 환한 불빛이 들어온다.

오랜만에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 남편과 함께 숲 산책로를 걷는다. 우리는 몇 달 사이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한껏 누그러졌다. 숲속 산책은 무채색이던 내 일상에 조금씩 고운 색을 입혔다. 숲에서 꽃들을 따라 환하게 웃어 보기도 했고,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목 놓아 마음껏 울기도 했다.

나는 고향을 떠나올 때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숲에서 다시 찾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숲 산책은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주었고, 내게 살아갈 힘과 꿈꿀 수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고목처럼 말라비틀어진 마음에 어느덧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항상 내 마음을 지탱해주었던 숲을 향해 진심을 담아 약속한다. 앞으로 마음의 무게를 줄여 약의 용량도 줄여보겠노라고. 숲의 푸르른 나무들처럼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겠노라고. 다시 지독한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면 언제든 숲을 찾아오겠노라고.

차상

꿈꾸던 밤들은 빛나기에

한주연

어른이 되면 티비 속의 주인공처럼, 어린 시절 자주 접하던 성공 일대기를 담은 책 속의 누군가처럼 멋지고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줄만 알았다. 어리석게도 그런 것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에 깨달았다.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매일 밤, 내일에 대한 걱정만으로 잠을 설치는 일들이 부쩍 많아진 나였다. 몸은 자랐지만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마음은 여전히 미숙하여 다루기 힘든 어린 아이와 같았다.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지만 밤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에 부풀어 잠 못 들던 시절도 분명 나를 거쳤는데, 이제는 꽤 오래전 내가 아닌 다른 이가 품었던 마음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때의 난 분명히도 날마다 무언가를 항상 꿈꿨고 나를 가장 믿어주던 아이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는 내게 보랏빛이 도는 체크 무늬의 회색 코트를 입혔다. 나는 학급의 많은 여자 아이들이 입고 있는 흔한 핑크색 아우터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좋았다. 어린 내 눈에도 엄마가 골라준 옷이 단정하고 한층 고급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그 시절엔 엄마가 아직 일을 다니지 않아 등교 전날 밤부터 옷을 미리 골라 다려주셨다. 난 정성스러운 엄마의 손길 아래 항상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겉모습만큼이나 처음 겪는 학교 안에서의 생활도 착실하게 하려 노력했다.

그 당시의 나는 선생님께 꾸중 듣는 것을 하늘이 무너지는 일로서 여겼던 융통성 없는 아이였다. 늘 알림장에 적힌 숙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내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학생이 예뻐 보이듯 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인정받는 아이로 빠지지 않았다. 그중 내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는 받아쓰

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열 문제씩 보는 그 시험에서 나는 매번 백 점을 맞았다. 내가 좋아하는 국어인 만큼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 시험 며칠 전부터 후보 문장들을 몇 번씩 써서 익혔다.

내 노력을 보상받듯 선생님은 늘 나를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받아쓰기 왕’이라 칭찬하셨다. 모범 학생상을 받고 반장에 당선되는 일들도 어느 순간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내가 익숙하게 늘어놓는 그런 일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기쁘게 했고 엄마가 학교상담에 다녀온 날이면 자랑스러운 기분을 안겨 드렸다. 나는 내가 줄곧 그럴 줄만 알았다.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난 특별함을 가졌다고. 그런 것을 품고서 언제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어린 나는 무얼 몰라 꽤 오만했고 어리석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 전학생이 왔다. 그즈음 난 조금씩 특별함과는 거리가 먼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매년 반장을 도맡지도 못했으며 더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학생도 아니었다. 전학생은 활달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우리는 자리가 근방이라 쉽게 말을 나눌 기회를 얻었다. 그 애는 당당한 말씨로 은근히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과 장래희망이 변호사라는 이야기들을 풀어놓곤 했다. 나는 내놓고 그런 자랑을 흘리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그 애의 당돌한 점에 매료되었다.

어쩐지 초등학교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그때의 난 수업시간에 장래희망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언제나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아나운서같이 열토당토아니한 꿈을 자신감에 차서 말하곤 했는데. 꿈꾸면 모두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오던 나와 무척 닮은 얼굴을 한 전학생 다영이었다. 순간 나는 그 애가 너무 부럽다고 생각하다가 그 이유는 어찌면 다영이의 꿈은 나와 달리 정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확신 때문이었다. 다영이는 늘 전과목 올백에 목숨을 걸었는데 늘 그 애가 목표하는 점수에 근접한 결과를 얻어냈다. 어떤 아이들은 다영이가 가진 욕심을 부풀려 뒷담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는데 난 그래도 그 애가 생기있는 눈빛으로 자습서를 대하는 모습이 어쩐지 좋았다.

어느새 난 더 이상 국어 점수에서 매번 백점을 맞지도, 교내 대회에서 상을 휩쓸지 못한 지 오래였다. 가끔씩 다영이를 볼 때면 내가 바라던 지금의 나를 다른 이에게서 엿보는 쓸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중학교 시절, 나는 늘 고심하다가 끝내는 장래희망란에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아나운서가 아닌 ‘작가’를 누가 볼세라 작게 적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나의 성실함 하나만으로 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좀 더 깊게 실감하게 되었다.

어떤 영어 선생님은 교재의 내용을 해석하며 발표하는 수업에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대놓고 비교하며 비아냥거리곤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성적과 연관 지어 무조건적으로 성공의 여부를 단정 지어 함부로 판단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나는 어느 면에서든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어떤 사유로든 선생님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들었다. 더는 주목받는 아이에 속하지 않는 현실에 서글퍼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판단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이유가 컸던 것 같다.

엄마는 가끔씩 옛날이야기를 그리운 듯 회상하며 우스갯소리로 ‘그때의 나’를 꺼냈다. 나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진 않았지만 너무 오래전이 되어버린 그 시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상한 의문을 품기도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담임 선생님과 입시 상담에서, 난 그저 눈앞에 놓인 성적에 마주해야 했으며 그는 그 외의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가능성도 살피주지 못했다. 난 여전히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글 쓰는 것 또한 즐겼지만 이미 교내 동아리에서 나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처음 몇 번의 상담에서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자체가 분했고 점차 슬펐지만 이내 적응됐고 결국엔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었다.

담임 선생님은 나와 같은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누구보다 익숙하신 분이셨다. 그 이후, 나의 이야기에든 큰 반전은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난 현실적으로 성적에 맞춰 한 보건계열 학과에 입학했다. 내가 한 번도 고려해보지 못했던 낮은 선택지였지만 더는 물러날 데가 없었고 나는 순응했다. 더는 이를 수 없는 것들에 절대로 희망을 품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종종 실낱같은 희망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라난다. 물론 어린 내가 품었던 마음만큼 멋지게 빛나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끊임 없이 의심하고, 멋대로 희망을 품었다 그게 꺾이면 어디선가 다른 희망이 조금씩 자라났다. 그런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지칠 법도 했지만 결국엔 그 자체가 나였다. ‘가장 빛나는 나’는 그 시절을 겪고 저버린지 오래 일지도,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떠올리는 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은 나를 지탱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을 불어 넣어 준 것 같다.

가끔씩 어린 시절, 책을 읽히기 위해 방과 후에 어린 나를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갔던 엄마와의 일들이 불쑥 떠오른다. 엄마와 나란히 앉아 한참 책을 읽다 별이 좋은 마당 앞 벤치에 나가 불고기버거를 함께 먹던 시간들이. 엄마는 나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나긋한 말투로 기도하듯 자주 말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런 마음들을 받고 자라 그 시절을 잊지 않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때의 추억을 되새겨 보며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차상

엄마와 우물

김은아

우물은 깊고, 어둡고, 축축하다. 그 깊은 동굴을 따라 내려가면 어두운 우물 바닥에 맑은 물처럼 고요한 엄마를 만난다.

동네 대부분 집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집 우물은 지붕도 덮개도 없는 개방형이었다. 어느 집은 우물물을 손으로 퍼 올리는 수동식 펌프가 있었고, 우리 집 우물에는 네모난 두레박이 있었다. 가끔 힘자랑하느라 우리 형제들은 이 두레박을 서로 길고자 하였다. 다섯 형제 중에 넷째면서 유독 키가 작았던 나에게 그 순서는 올 리 없었다.

엄마는 우리를 키우시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수도가 없던 시절이라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 우물가에서 빨래하였다. 우물 옆에는 큰 감나무가 제 키를 자랑하고 있었다. 우물 옆 큰 벽에는 흰 페인트 작은 글씨로 ‘1975년 7월’이라고 적혀있었다. 아버지가 새집을 장만하면서 이사 온 해를 기념하여 적어 두신 것 같다. 봄에는 수선화며 철쭉이 화단을 환하게 메우고, 여름이면 우물 옆 벽을 따라 장미 넝쿨이 흐드러졌다.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엄마 덕분에 우리 형제는 꽃밭에서 늘 먼저 계절을 만나곤 하였다.

엄마의 하루는 우물에서 시작되었다. 가족의 아침 식사와 다섯 아이의 도시락을 위해 몇 인분인지 기늩도 안 되는 쌀을 씻으면 해가 금방 떠올랐다. 시금치를 씻어 우물 옆에 놓여있던 곤로 불에 금빛 나던 양푼 냄비로 데쳐내시고, 큼직한 대파를 속속 씻어내시던 엄마의 모습이 우물가에 서려 있다. 세수가 서툰 막내를 깨끗이 씻기는 것까지 우물가에서 엄마의 손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느 해는 정안수를 떠 놓고 큰오빠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우물가에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엄마를 따라 손을 모았다. 열 살도 훌쩍 넘게 차이 나는 큰 오빠가 엄마가

바라시는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일 년에 두어 번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음식도 우물가에서 준비하셨다. 그런 날은 마치 잔칫날 같아서 우물가에 적당히 서 있다가 심부름하고 부침개와 시루떡 같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도 주워 먹었다.

가끔은 우물가에서 빨랫방망이로 빨래를 힘껏 내리치시던 엄마의 모습도 선하다. 다섯 아이의 빨래가 오죽 많았을까만은 불평 없이 엄마는 할 일을 해내셨다.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달그락거리며 그 많은 그릇을 설거지하는 엄마의 모습도 우물가에 한 풍경으로 남아있다.

우물가에서 엄마가 뒤돌아 앉아 우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엄마의 쓸쓸한 등을 보며 어린 나는 슬펐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 등에 가만히 얼굴을 대고는 우물 벽을 보았다. ‘엄마, 울지 마’ 속으로 눌렀던 이 말은 우물이 삼켜 버렸다. 우물가는 엄마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쉼터 같은 곳이었을까.

여름날에는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에게 엄마가 등목시켜 드리는 시원한 물 소리도 우물가에서 예사로 들었다. 하루의 피곤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연발하시며 두 분의 사이 좋던 모습도 아련하다.

별자리를 많이 알고 계시던 엄마는 여름밤이면 우물 옆에 평상을 펴고 동생이랑 나를 불러 밤하늘을 보고 눕게 했다. 도란도란 누워 건우직녀의 오작교 얘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북두칠성과 북극성 별자리를 함께 찾곤 했다.

엄마에게 큰 의미였던 이런 우물이 우물 벽을 없애고 덮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언니가 새벽부터 소풍 간다고 들떠있었다. 어린 동생들을 두고 엄마는 언니의 소풍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설이나 추석이나 되야 사주시던 새 옷과 새 신발을 언니에게 사주셨다. 엄마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장을 보는 엄마 옆에서 그날 나는 고집을 피웠다. 소풍 따라가고 싶다고, 언니처럼 예쁜 옷이랑 신발 갖고 싶다고 징징대었다. 안쓰러워 보였던지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는 처음으로 빨간 새 구두를 사 주셨다. 시골 동네에 빨간 구두를 신은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가방에 과자와 사이다를 챙기고 언니는 눈이 별게져서 엄마 없이 소풍 갔다. 어릴 때는 내 마음만 중요해서 혼자 소풍 간 언니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 못 해봤다. 엄마가 되어보니 고작 아홉 살이었던 작은 여자아이가 동생들에게 참 많이 양보하였다.

요란한 소풍날 아침이 지나고, 우물가에서 고단한 얼굴로 빨래하시는 엄마 옆에서 동생과 놀고 있었다. 빨간 새 구두를 신었다. 굽이 3센티 정도 되었을까 적당히 키가 돋보이는 높이였다. 시골 아이가 금방 마법에 걸린 공주가 된 것 같았다. 세 살 아래 남동생이 그날따라 유독 더 작아 보였다.

“와, 우물 안이 다 보이네.”

“거짓말, 우물 안이 어떻게 보여? 작은누나 키가 그렇게 크냐, 한참 멀었거든.”

“이것 봐라, 이것 봐, 내 키가 우물 담벼락 넘어가잖아.”

“아니거든, 한참 모자라거든.”

자꾸만 약을 올렸다. 이 녀석에게 무언가 보여주리라. 3센티 굽에도 불구하고 더 커 보이게 하려고 까치발을 하고 우물 담벼락에 위협하게 기대섰다. 동그란 우물 벽에 고개를 밀어 넣는 것까지만 보여주려고 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우물 담벼락보다는 내 키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니까. 하지만 순식간에 우물 바닥 깊은 곳까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떨어지고 말았다.

‘침병’,

동생은 무섭고 놀라 큰 소리로 울고만 서 있었다. 태어나 그렇게 많은 물을 마셔본 적이 있었을까.

“아이고 우짜꼬, 아이고 내 새끼, 은아야.”

옆에서 빨래하시다 날벼락을 맞은 엄마가 흐느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우물 밖 저 끝에서 들려왔다. 우물 바닥으로 떨어지며 나는 머리부터 처박힌 후, 한 바퀴 구르기를 했다. 다행히 한 바퀴를 돌아 유턴하며 머리가 우물물 위로 떠 올랐다. 물을 마시고 다시 바닥으로 짧은 발이 닿았다 멀어졌다 한다. 겁에 질려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어푸거리다가 버둥거리고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발에 닿는 것은 없었고 나는 깊고 차가운 우물

속에서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 7살의 나이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허우적대다가 힘이 빠져갈 때쯤에 내 머리 옆에 철벽하는 소리가 났다. 허공을 가르던 내 손에 잡히는 몽땅한 게 있었다. 우물 위에서 엄마가 던져준 두레박이었다.

“은아야, 두 손으로 꼭 잡아.”

절박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힘이 있었던지 나는 두레박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엄마와 우리 집에 세 들어 살던 아저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우물 밖으로 들려 나왔다. 그제야 엄마는 딸을 건졌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곧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하는 패심한 마음이 드셨는지 일곱 살 난 딸아이 속옷을 벗기고 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며 우셨다.

“우짤따꼬 어이 우짤따꼬 우물에 빠지노, 이 녀석아. 엉엉.”

엄마를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우물 바닥으로 떨어질 때 벗겨진 내 빨간 새 구두가 생각이 나서 나도 함께 울었다.

“엄마, 엉엉 내 구두, 내 빨간 구두도 건져 줘, ….”

아끼느라 얼마 신지도 못한 내 구두가 우물 안에 덩그러니 빠져있는 생각을 하니 자꾸만 눈물이 났다. 우리 집에 세 들어 살던 또래 남자아이가 이런 내 모습을 보았을까 정신이 들고 나서야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 집에는 대대적인 수도공사가 시작되었다. 우물 벽은 없어졌고 시멘트를 발라버렸다. 볼록한 낮은 뚜껑만 덮인 우물 자국만 남게 되었다.

내 유년의 기억과 함께 우물은 사라졌다. 더는 꽃밭 옆, 우물가에서 제사를 준비하던 엄마의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빨랫방망이 두드리시며 오 남매 옷을 빠시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가끔 눈물 흘치시며 세수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이제는 내 가슴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다.

‘우물 안에 주인을 잃은 내 빨간 구두는 어찌 되었을까.’

주인을 잘못 만나 제 역할도 못 하고 우물에 고이 남겨진 내 어린 시절의 빨간 구두가 그림다. 철없던 딸로 인해 삶의 한 공간을 잃어버리신 엄마도 한 번씩은 그 우물이 그리우실까.

차상

내 인생 가장 빛나는 무대 - 어머니의 초상 -

박서영

지름 2.5미터. 시멘트를 발라 잿빛 보름달 같은 원형 경기장은 나의 무대. 땀땀하게 한편으론 참담하게 무대에 오른다. 내 몸에 걸친 것 중 내 소유는 낡은 운동복뿐.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야 할 원반도, 투박한 발을 구겨 넣은 운동화도 오늘 빌린 남의 것이다. 손을 모아 기도를 하거나, 기합을 넣는 등 선수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습관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나에겐 순서대로 지켜야 할 습관도 시합을 준비하며 피해야 할 징크스도 모두 사치일 뿐이다. 투원반 선수의 본분. 원반던지기. 오직 그것만 수행한다.

두 번의 턴, 그리고 점프. 강력한 원심력을 원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강하게 뻗어야 한다. 빌려 신은 운동화의 고무 밑창은 단단하게 바닥을 밀어냈지만, 내 다리는 미리 겁을 먹고 주춤대고 말았다. 밑창이 닳고 갈라져 시멘트 바닥에도 허무하게 미끄러지던 내 운동화에 길들여진 탓이다. 결국 애매한 힘으로 손에 익지 않은 원반을 던져 낸다. 원반이 손을 떠나는 순간 직감했다. 평균 기록에도 못 미치겠구나. 핑계 같지만 운동이란 것이 그렇다. 온몸의 세포를 민감하게 깨워내야 한다. 자석처럼 손에 감겨 붙는 원반, 기분 좋게 몸을 감싸는 운동복, 맨발처럼 편안한 운동화. 이 모든 것이 미세한 부분까지 맞아떨어져야 만족할 만한 기록을 낼 수 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사실 매 경기가 그랬다. 경기장에서 내려온 순간 식상한 서러움이 몰려온다.

운동하며 서러웠던 날이 어디 하루 이틀이겠는가. 애초에 서러워 시작한 운동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고명딸. 멸평한 형태의 음식은 계집아이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온전한 반찬을 오빠들의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담고, 남은 부스러기를 내 도시락에 쓸어 담아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늘 배가 고팠다. 학교를 마친 후 분식집으로 내달리는 친구의 발걸음만 봐도 침이 고였다. 매콤 달콤한 떡볶이를, 고소하고 쫄쫄한 순대를 머릿속으로 몇 점씩 헤치우며 집에 돌아오면 허무와 허기가 참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가면 매일 빵과 우유를 나눠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가슴이 미칠 듯 방망이질 쳤다. 투포환이나 원반을 던지는 여자 투척부는 선수가 부족해 두 배의 빵과 우유를 준다고 한다. 담임 선생님 앞에만 서도 목덜미까지 벌게지는 숙맥이었으나, 빵과 우유를 먹겠다고 코치님을 찾아갔다. 배불리 먹지 못하는 설움이 그만큼 컸다.

운동부 생활은 썩 만족스러웠다. 단팥빵과 크림빵, 곰보빵 종류를 바꿔가며 제공되는 빵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가방에 숨겨가 배고픈 밤 몰래 꺼내 먹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괜히 오빠들 눈에 띄어 뺨길까 봐 배가 부른 날에도 우걱우걱 입속으로 빵을 육여넣었다. 가끔은 분식집에서 운동부 회식이 열렸다. 뇌로 음미하던 분식을 혀로 음미하니 비로소 온전한 형태의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배가 부르자 운동을 잘하고 싶어졌다. 동그란 시멘트 바닥에서 목이 뒤로 꺾일 듯 턴을 연습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투척 선수에게 고무 밭창의 운동화는 필수다.

운동화는 그 선수의 배경을 가장 쉽게 짐작하게 하는 것. 나는 가장 빛나야 할 무대에서 나날이 초라해졌다. 변변찮은 운동화를 신고 연습하니 쉽게 미끄러지고 중심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나마 겨우 일주일 연습하고 나니 밭창이 닳아 없어졌다. 돈 잡아먹는 운동을 왜 하나, 소리치는 엄마에게 등짝을 맞고 얻어 낸 싸구려 고무 운동화는 금세 닳아 비가 오면 발바닥이 질편해졌다.

몸을 풀기 위해 운동장을 뛰다 보면 운동화 안으로 모래며 돌맹이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니 개인 원반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원반 만드는 국내 기술이 부족했던지라 몇 번 땅에 처박힌 원반은 모서리가 깎여나가 대회 기준 중량에 미달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투원반 선수들은 개인용 수입 원반을 구입해 연습도 대회 출전도 했으나 난 국

산으로 실컷 연습하다 경기장에 비치된 공용 원반을 들고 출전하는 수밖에 없었다. 운동부에 입단할 때 받은 낡은 유니폼, 경기장의 공용 원반, 함께 출전한 친구의 운동화를 빌려 신고 대회에 나가는 날들이 쌓여갔다. 한 치수 작은 운동화에 발을 구겨 넣을 때마다 유독 내 발이 투박하고 못생겨 보였다. 동그란 원형 경기장이 내 차례에만 불이 꺼져버리는 어두운 무대 같았다. 없이 사는 삶이 서러워 빵이라도 맘껏 먹으려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부 생활은 없이 사는 자들 중 누가 더 빈곤한가를 겨루는 올림픽 같았다. 나의 가난이 부각될수록 서러움은 배가 된다. 그래도 뻔뻔하게 가난을 드러내며 빵을 먹기 위해 운동을 했다. 날마다 새로운 서러움이 쌓이는 만큼 실력도 묵묵히 쌓였다.

졸업을 앞둔 가을, 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었다. 도 대표에게는 브랜드 운동화가 지급되었기에 처음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운동화를 신고 무대에 올랐다. 새로운 운동화에 밀어 넣은 내 발은 못생겨 보이지만 투박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단단하고 아름다운 선수의 발이었다. 처음으로 나의 무대에도 조명이 켜졌다. 슬프지만 내 인생 가장 빛나는 무대였다.

차상

선택

정애정

알람소리에 눈을 뜬다. 온몸에 수십 개의 모래주머니가 달려 있다. 무력함은 여전히 침대 밑에서 버젓이 날 노린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 저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가서 물이라도 마셔야 출근할 수 있다.

한발 늦었다. 미래에 전 남편이 될 남자가 TV를 켜는 소리가 들린다. 어제 저녁 활화산을 품은 내 주먹은 그가 숭배하는 70인치 TV를 박살 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TV는 난데없고 심한 찰과상에도 간신히 소리를 내보내고 있었다.

그는 뭔가를 중얼거리며 계속 시도한다. 투덜거림 혹은 욕설 같기도 한 몇 마디의 지껄임. 이내 그의 유기체 리모컨이 소파로 힘없이 떨어진다. 거실을 배회하는 걸음 소리. 작은 북, 큰 북. 작은 북, 큰 북. 내 심장이 아슬한 연주를 시작한다.

이제 그는 시리얼로 아침을 먹고 현관을 나설 것이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암묵적으로 현관 입구 방과 거실은 그의 공간이다. 거실에서 저녁 내내 TV를 보는 모습이 보기 싫어 안방으로 피해 버린 것이 경계가 되었다. 그 후 우리는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외롭다. 아니 외로움을 자처했다. 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일이었고 둘째도, 셋째도 일이었다.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은 가끔 중요한 자리에 차고 나가는 고급 시계쯤으로 치부했다.

결혼 생활 십오 년. 엄마는 사십 대 후반에 들어서 웬 새삼을 떠나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갔다. 면역체계가 망가져 수시로 알레르기가 올라왔고 자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다.

주말마다 좀비로 거듭나는 엄마를 보고 급기야 중학생 딸아이는 독립을 권유하다 못해 독촉했다. 아이를 위해 버티고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럽고 창피했다.

사실 그동안 꼭 행복할 필요는 없다고 다독였다. 행복하지 않아도 삶은 살아졌다. 언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문득 만나는 따스한 벚꽃의 흩날림, 발밑으로 파고드는 붉은 단풍 몇 장. 그들이 주는 편린의 위로는 망각을 담을 수 있는 약통이 되어 나를 안심시켰고 그때는 울음을 쉴 수 있었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면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삼키려다 게워 내는 일의 무한 반복. 식도를 거쳐 위와 십이지장까지 온통 염증 투성이다.

아이의 양육 문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모든 일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를 탓하기란 이제 얼마나 쉬운 일이 되었는지.

내가 쏟아내는 말에는 원망과 비난, 가시 돋친 독설로 가득했다. 서서히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했고 경제적인 계산과 사회적 시선 앞에서 헤어질 결심을 결심에 그치게 했다.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게도 언젠가 탈출의 기회는 올 것이라고.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독립을 멋지게 해내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을까.

일주일마다 피부과를 다니고 독한 약을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냐는 의사의 질문을 받고 씩씩하게 웃는다. 딸아이의 상담 교사로부터 면담 전화를 받는다. 이 세 가지는 일 년 전부터 생긴 현상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로 선택했고 끔찍함마저 지켜워진 일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퇴근을 하고 그가 없는 거실 한가운데에 선다. 소리까지 죽은 TV. 썩크대에 말라붙은 시리얼. 소파를 차지한 그의 양말과 수건들. 나를 바라본다. 꾸역꾸역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내가 읊조린다.

순간 오늘 아침 거실에서 혼자 지껄이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내가 바라본다. 애써 외면하지 않기로 한다. 그와 결혼하기로 했을 때의 기억, 망설임 없는 선택이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온 것 역시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인생사는 계속적이고 무수히 반복적인 선택의 연속이라 하지 않던가.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점심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 모닝커피를 마시기로 한 것. 이들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선택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야 하거나, 더 나은 것이라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일 년 동안 그와 부딪히기 싫어 나 스스로를 네 평 방에 가두었으며 그의 발자국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동선을 피하려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무엇보다 딸아이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다.

최악은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선택지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지나쳐 보이기까지 한 고집스러운 생각과 알량한 자존심이었다.

나는 생각도 선택했어야 했다. 떠오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생각하게끔 두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나는 현재를 갈망한다.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랑과 웃음, 다정함을 꺼내어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현관 도어락음이 울렸다. 지금은 안방으로 들어갈 것인지 거실에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아니 그 전에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먼저다. 문이 닫힌다. 그의 얼굴이 보인다. 내가 눈물을 닦는다. 놀란 그가 다가온다. 나에게. 점점. 가까이. 그가 말한다. “미안해.”

차하

어머니의 초상

나영희

나의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올해로 100세가 되셨을 나의 어머니!

지난 여름휴가 때 어머니의 고향 광주에 다녀왔다. 5. 18기념관, 기독교 선교 유적지 등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학교에도 가보았다. 많이 달라졌지만 본관 건물은 그대로였고 역사관이 있었다.

전남여고 역사관에 들러 여러가지 추억의 기록들을 보았다. 우리들이 입었던 교복은 그때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졸업생들의 앨범을 찾아 내 이름을 확인하였다. 친구들의 이름도 찾았다. 육고녀를 졸업하신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졸업년도를 추정하며 옛 기록을 뒤지다, 아! 엄마다. 정혜숙 231128- 어머니를 뵈듯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일제 강점기에 육고녀를 다니신 어머니는 김제로 시집을 오셨다. 양반 가문 찾아 일본 유학 다녀오신 아버지와 혼인을 하셨단다. 그러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남겨지셨다. 그때 나는 갓 돌을 지난 아기로 걸음마를 떼고 있었단다.

인자 하시고 단아한 기품이 있으셨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혼수품 이었다는 싱거 미싱은 지금 언니네 집에 있다. 미끈한 말 잔등처럼 까만 등허리에 금박 그림이 있는 재봉틀. 지금이라도 나무 손잡이를 돌리면 스르륵 줄줄줄줄 노래하듯, 시냇물 흐르듯 굴러갈 것 같은 재봉틀...

복실을 감아 끼우고 바늘에 실을 끼워 바느질 하시던 어머니. 나중에 눈이 침침 하시다며 우리들에게 실을 끼워 보라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유품을 보며 언니와 추억을 나눈다.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다. 고단한 농촌 살림에도 우리 4남매를 잘 키워주셨다. 유일하게 읽을 거리였던 신문은 내가 학교길에 한약방 할아버지한테 들러 얻어오곤 하였다.

어머니는 장수하신다 했더니 80세가 되시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어머니의 기억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는가? 엄마를 웃으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못하겠는가?

언니와 나는 엄마 앞에서 막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빙그레 웃으시다 손으로 우리를 가르키시며 크게 웃으신다.

꽃을 보여드리려 언니는 화단을 가꾸고 꽃을 피워냈다. 겨울에는 연보라 빛 무우꽃을, 노오란 배추꽃을 피워냈다.

“엄마 저게 무슨꽃이야?”

“무우꽃... 엄마 따라 해봐요... 무우꽃”

엄마는 겨우 입을 열어 무우꽃 하신다. 우리는 박수치며 그래, 무우꽃 예쁘지? 엄마...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85세에 우리결을 떠나셨다. 31세에 홀로 되어 긴긴세월 홀로 사셨던 우리 어머니! 숨씨 좋으셨던 우리 어머니표 동치미는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 흥시감과 황도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언니.

기정떡을 좋아하시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나는 얼마나 헤아렸는가?

우리 어머니도 그때 이런 백일장이 있었으면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리운 나의 어머니...

차하

반려(伴侶)를 반려(返戾)하라

이금진

인간은 모두 차별주의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이 글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을 당신도 그렇다.

나는 어제 모기를 한 마리 죽였다.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딸을 지켜보던 틈을 타, 내 다리를 짹싸게 물어 피를 쪽쪽 빨아냈기 때문이다. 본능은 이성보다, 감정은 논리보다 빨라서 내 손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모기를 압사시켰다.

강아지가 내 손가락을 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양분되었다. 사실,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교육받을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나는 강아지에게 물린 이후 한동안 아기 강아지의 짹는 소리에조차 공포에 질렸으며, 손가락을 봉대로 칭칭 감은 채 답답함과 가려움증, 때때로의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모기는 피를 빨아간들, 고작 이삼일 간의 아주 작은 가려움을 줄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강아지가 응보를 받는 데에는 죄책감과 인류로서의 자애로움을 방패삼으면서, 모기를 죽이는 데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가? 강아지는 유대 관계를 쌓은 대상들이 있어, 자칫 응보에 정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모기들도 부모든 친구든 동료든, 자기 나름대로의 정서적 유대를 쌓은 대상들은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가? 나는 오늘 청소를 하면서 아주 작은 거미를 한 마리 죽였다. 딱히 내게 피해를 주지도 않은 존재다. 그냥 내버려두었다면 (비록 숙박비는 내지 않았을지언정) 대충 한 몇 시간 숨어 쉬다가 알아서 다른 집으로 떠났으리라. 심지어 모기처럼 내 살을 물거나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청소를 하던 중 하필 내 앞을 기어다니고 있어서, 그게 거슬려서 죽였다. 그러나 만약 그 침입자가 하다못해 참

새나 비둘기였다면? 적어도 그토록 잔혹하게 삶을 앗지는 못했으리라. 상처 없이 무사히 보내주려는 시도라도 했지 않았을는지.

모기와 강아지, 거미와 새의 차이가 대체 무엇인가. 한쪽은 차가운 갑주로 몸을 둘러싼 반면 다른 한쪽은 말강한 살과 피로 빚어졌다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피터 싱어나 제인 구달 등 수많은 동물학자들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지 않던가. 몸의 구조나 구성요소가 어떻든 그들이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학대나 학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불과 십 수 년 전까지 애완동물로 불려오던 이들이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불린다.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다. 좋은 태도다. 지구는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바다도, 공기 속 미생물도 모두 지구에 대해 인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거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연에 대해 겸손한 척 하면서도 여전히 오만하다. 선별과 차별을 도무지 멈추지 못한다. 반려가 될 수 있는 자와 되지 못하는 자. 이들을 왜 인간들의 기준에서 선택하여 가른단 말인가.

외적 아름다움인가? 그러나 대다수 인간들이 강아지를 보며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고양이를 보며 우아하다고 느끼듯이, (아마도) 소수의 누군가들은 거미나 전갈을 보고 아름답다 느낄 것이며 심지어 실제로 반려동물로서 키우기도 한다. 모기나 파리를 사랑하는 이들도 없으리란 법 없다.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인 아름다움의 절대적 기준을 누가 규정했던 말인가.

인간과의 정서적 유대인가. 그러나 강아지, 고양이, 고래, 호랑이나 사자 등 일부 육식동물들과 인간 간 유대감은 인간들의 지극히 일방적인 훈련의 결과다. <야성의 부름>과 같은 문학작품들을 보라. 동물들의 본능은 지극히 야성적이다. 그렇다면 모기나 파리, 지렁이 등을 훈련시켜 인간들과 유대감을 형성시킨다면, 그것이 증명된다면, 보편적 범위 내의 반려동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느 것 하나, 일방적이고 모순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글은 반려동물이나, 인간과 동물 간 공존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방향을 같이 하며, 다만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잠깐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지난 7월 중에도 우리나라를 찾아 준 제인 구달은 동물들을 향한 인간들의 오만한 인식을 깨운, 공식적 최초의 인물이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도구 사용과 놀이 개발이 가능한 창의성이 있음을,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여 자살할 정도로 처절한 감정의 격랑을 느낌을 알게 된 것이 불과 89년 전 일이란 말이다. 약 390만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초라한 수인지. 그토록 오랜 시간 동물들과 함께해왔으면서, 말캉한 살과 따뜻한 피, 물기 어린 커다란 눈동자와 포근한 털을 가진 동물들을 도구가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인식으로 나아가기까지 인류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보다 넓은 범위의 공존, 존중의 마음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수용되려면.

우리는 흔히 짐승들더러 ‘하등하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 인간보다 ‘등급’이니 ‘수준’이 낮은 동물이 세상 어디 있단 말인가. ‘인간이 보기에’ 다소 불우한 생김새의 동물들조차도 그렇지 않다.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사회 질서를 구축하여 종족 간 애정을 아낌없이 표한다. 때를 지어 거대한 주작처럼 날아오르는 가을철 철새들, 힘을 합해 먹이를 구하고 무리를 지켜내는 개미떼들.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폭력이 없고, 쓸데없는 학살이 없으며, 보잘 것 없는 동정이나 초라한 오만 따위도 없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윤리적인 삶인가. 소위 ‘우등하다’는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9월이 다 지나는데도 여름옷들은 이별을 고할 기미가 없다. 이러다 언젠가 ‘가을’이라는 개념은 도시전설로 남는 게 아닐까. 우리만의 일도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에 벚꽃이 피었다고 하지 않는가. 지구의 모든

것들이 순환과 생명의 규칙을 바꾸어가고 있다. 거기에 인간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구하지도 않는다. 아니, 이러한 ‘불통’은 인간이 먼저 시작했다.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제 입맛대로 학살하고 약탈하고 착취해온 인간들에게 지구의, 우주의 불통을 원망할 자격은 없다. 그 무엇 하나 자격이, 없다.

반려동물의 기준도 틀렸다. 인간들‘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여전히 소유의 권리를 인간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철저히 인간들의 관점에서, 시혜적인 태도로 동물들을 가련히 내려다보는 것. 어떻게 해도 ‘오만’이라는 인간의 얼룩이 떨어지지 않는 지금, 나는 이 단어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동등한 반려 관계로서, 이 지구와 우주의 운명을 어깨 위에 함께 나누어 들고 있다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보다 하등한 것도, 인간보다 우월한 것도 무엇 하나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해충이라는 모기와 파리조차도 사실 귀중하다. 모기는 꽃가루 수분 역할을 하기에, 모기가 멸종되면 수많은 식물들도 쇠락하고 만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곤충이라는 파리는 또 어떤가. 농작물의 꽃을 수분시켜 종자를 얻을 때는 파리가 가장 안전하고 온화한 우군이다.

해로움이란 개념 또한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일 뿐이다. 지구상에서 모기가 가장 살상력이 뛰어난 곤충이라지만, 인간의 살상에 비하면 새발에 피다. 손바닥으로, 걸음걸음마다 두 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심히 해치고, 꺾고, 밟아왔는지. 더 나아가 문명의 발달, 인간의 편의 증대라는 기치 아래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무참히 다루어왔는지.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겸손이다. 인간의 반려가 될 동물들을 선별하고 기르기 전에, 인간들이 나서 식물의, 동물의, 자연의, 지구와 우주의 반려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일방적 불통으로 내몰린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불어 삶의 자세다.

차하

숨냄새 – 어머니의 초상

정은하

“그 약 취소해 주세요, 전부 다.” 듣다 못한 내가 일어섰다. 의자에 앉아 있던 엄마는 비밀이 탄로 날 것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건너편에 앉아 있던 의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좀 전에 엄마는 의사에게 변비약을 더 달라 조르고 있던 참이었다. 의사는 변비약은 저번에 처방이 되었고 많이 먹으면 설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 오기 전 엄마는 차 속에서 혈떡거리듯 말했다. 엄마에게서 뭔가 묵직한 냄새가 났다. 지린내는 아니었다. “언니가 변비에 걸렸다. 방문 간 호사가 그러는데 .. 오늘 의사한테... 내가 변비 걸린 것처럼... 말하든... 약을 탈 수 있다고.. 그러.” 운전하던 나는 갑자기 껍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엄마 제발! 나는 화염이 솟구치는 속내를 겨우 가라앉혔지만 짜증스러운 말투가 여과 없이 나가버렸다. “변비약 그깟 게 얼마나 된다고! 언니가 변비약 하나 살 돈이 없을까?” 엄마를 돌보던 언니가 최근에 폐암 선고를 받았다. 딸에게 짐만 되는 것만 같아 전전긍긍했을 엄마의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만 칼바람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뿜고 말았다. 엄마에게 들어가는 약이며 치료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야. 딱딱따박 잔소리를 하려다 엄마가 환자라는 생각에 이르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유방 외래 등 병원 예약이 오전에만 세 건이나 잡혀 있다. 하지만 엄마는 동사무소에서 오전 9시 30분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무료로 주는 식품을 받아오라며 성화를 부렸다. 거의 라면 두 봉지거나 햇반 두 개였다. 엄마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무료’란 단어가 ‘식품’을 앞질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지도 모른다. 평생 팔다리를 놀리며 품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었던 엄마에게 ‘무료’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었을까? 나는 선반 위에 가득 쌓여

있는 라면을 떠올렸다. 엄마는 라면을 삶지 않았다. 라면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식품이다. 엄마는 숨이 꼴딱 넘어가도록 헉헉거리며 아침마다 동사무소를 찾았다. 그깟 라면 두 개를 얻는 대신 병원 검진에 늦어지자 나는 뿔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보험 1종 수급자다. 5년 전부터 만성폐질환을 앓았다. 호흡을 할 수 없어 기관지 절개를 했는데 목에 플라스틱 관을 박아 넣었다. 그로 인해 발음이 새어나가 로봇이 말하는 듯 딱딱한 발음이 이어졌다. 엄마는 나처럼 목에 구멍을 뚫은 사람은 조선팔도에 아무도 없다며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둘러 목을 싸맸다. 전라도 사투리로 ‘풍신 나서 어찌 살꼬’를 연발했다. 호스를 박은 목이 남 보기 부끄러운 정도라는 것이다.

기관지를 절개하자 구름처럼 가래가 모여들었다. 요양 병원에 들어가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모친은 지금 받는 5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액을 잃기 때문에 죽어도 안 들어간다고 고집을 피웠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석션 기계를 지원받아 나와 언니, 방문 간호사가 번갈아 가며 가래를 뽑아 올렸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하는 꼴이지만 일을 하며 노인을 돌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주말에 쉴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섭식 문제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유트브를 보면서도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내가 집안을 온통 축대밭을 만들며 보드라운 음식을 만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엄마는 보통내기가 아니었다. 폐가 망가지기 전 암을 세 종류나 앓았다.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몸뚱이 속에 일명 똥주머니를 몰래 차고 고구마밭을 기어 다니며 일당을 벌었다. 우리에게 습관처럼 용돈을 줬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 고집이 ‘쇠심줄’보다 더 질겼다. 폐가 점점 마른 점토처럼 굳어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엄마는 숨이 차 쉼쉼거리면서도 아파트 분리수거함을 몰래 뒤졌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주운 뒤 근처 농협에 내다 팔았다. 병이 없으면 헌 옷가지를 뭉땅 끌고 와 방 한 칸은 언제나 옷으로 산을 이뤘다. “전생에 نگ마주이었어? 엄마 정말 왜 이래?” 언니와 나

는 절망했다. 그 놈의 돈이 뭐라고. 연민이 줄어든 공간에 분노가 끓기 시작했다. 엄마는 들은 척 하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엄마의 진심 같은 헛소리였다. 숨이 깔딱거리려 긴급히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응급실로 떠메어 갈 때조차 엄마는 한탄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 품삯이 7만원 아녀, 지금은 9만원 줄 거여.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녀!” 콧속에 딱정벌레라도 들어온 것처럼 나는 경기를 일으켰다. 엄마는 질주하는 차와 같았다. 종종 수렁에 빠지긴 했으나 본능적으로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고물자동차. 죽음이 찾아와야 멈출 수 있는 자동차의 운명.

왜 분노하는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엄마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 없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던 엄마다. 어린 언니와 내가 바르고 남은 생선 가시를 입으로 쪽쪽 핥으며 누룽지를 후루룩 마셔버리던 가난한 여인.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엄마는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캐깅거리며 고개를 넘어가더라는 고모할매의 말을 아직까지 믿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폭탄이 떨어져 집이 산산조각 나고 키우던 검둥개가 내장이 쏘아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쳤다며 지금도 가슴 아파한다. 배가 고파 나무껍질을 삶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해왔던 엄마는 스스로를 조롱하듯 ‘참으로 질긴 목숨 오래도 산다’라고 푸념한다.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서 예의 묵직한 냄새가 퍼져온다.

엄마는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자신이 배가 고프면 우리도 배가 고했다. 엄마가 외로우면 우리도 외로웠다. 사실은 각 자 다른 혼자만의 잘 삶을 살고 있을 터인데, 엄마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였다. 언니와 나는 어쩔 수 없이 자웅동체처럼 엄마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처럼 엄마는 자식들을 정신적으로도 독립시키지 못했다. 엄마 곁을 떠나면 우리는 늘 불안해했다. 새도 ‘이소’라는 행위를 통해 새끼를 세상 바깥으로 내보는데 엄마는 그렇지 못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원망하면서도 언니와 나는 차마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엄마를 바라본다. 억새꽃 같은 은빛 머릿결을 베개에 누어트린 채 깡마른 몸집의 노인이 고단한 숨을 쉬고 있다. 엄마는 아주 오래된 전설 같다. 어쩌면 경중경중 고개를 넘는 꼬리 아홉 달린 여우 이야기처럼 혹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깊고 신비한 숲 속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일까. 악착같이 돈을 그러쥘려 애썼던 손가락 끝 손톱은 재처럼 희게 부서져간다. 나의 분노는 돈에 집착하는 엄마의 모습에 있지 않다.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치했던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권리라는 것이 주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사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것으로 엄마의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의 삶은 나와 언니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돌봄은 여전하다. 밥 먹어라, 차조심해라, 물 마셔라, 변비 없냐. 박사님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뭐가 눈에 좋다더라, 뭐가 고지혈증에 좋다더라. 끊임없이 지구를 돌보는 달처럼.

이제 엄마의 폐는 숨 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기가 들어갈 문이 거의 닫혀가고 있는 셈이다. 순환기 내과 담당의는 안타까워했다. 엄마는 무덤덤한 얼굴이었다. 오로지 암에 걸린 언니를 안타까워했다. 나의 발작 같은 분노도 어쩌면 막바지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당 화단에서 시들어 말라가는 꽃을 생각한다. 나는 마른 꽃이 뿜어내는 진한 향기를 알고 있다. 싱그럽진 않지만 묵직한 향기였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발을 헛디더 마루에서 토방으로 떨어지던 날 엄마는 달려와 어린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의 스웨터에서는 특유의 직물 냄새가 났다.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묵직하지만 포근했다. 그것이 옷감 냄새가 아니라 엄마의 숨 냄새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지금도 엄마 곁에 다가가면 희미하게 느낄 수 있는 엄마의 냄새. 그것은 여전히 엄마의 시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엄마의 폐에 달려 있던 수많은 문이 닫히고 마지막 문이 닫힌다한들 엄마의 숨냄새를 잊을 수 있을까. 영원이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코끝을 스쳐가는 엄마의 다정한 숨 냄새일 것이다.

차하

초상의 해방일지

허윤서

30분 쯤 오직 하얀 도화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이는 주변의 연필들과는 달리 내 손에 들린 연필은 오직 부동의 자세로 꺾끗이 서 있을 뿐이었다.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원망스레 쳐다보는 연필의 날카로운 까만 눈초리에도 난 좀처럼 손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감을 재촉하는 선생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완성한 그림들을 보란 듯이 들고 나가 선생님에게 자랑하는 친구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나둘씩 자리를 비워가는 분위기에 소외감을 느낀 나는 서둘러 친구들의 그림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다른 듯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친구들의 화려한 결과물들을 보며 빠르게 색연필을 집어 들었다. 종 치기 1분 전 마지막 순서로 그림을 탁자 위에 올리면서 그제 서야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수고했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그림을 받아 든 선생님이 방긋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었다.

갈색 파마머리에 빨간 입술의 미소가 빛나는 앞치마 차림의 한 여성,

그림 속에 그려진 주인공은 나도 모르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었다. 어린 시절의 난 엄마의 얼굴을 잘 떠올릴 수 없었다. 아빠라는 이름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서 나와 오빠의 보호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었다. 바빠다는 이유로 엄마는 잠들기 직전에야 집으로 들어왔고 난 비몽사몽인 기운으로 겨우 엄마의 온기를 느끼곤 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달빛에 그늘진 엄마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런 이유로 난 엄마의 모습을 그릴 수 없었고 그저 친구의 그림들을 훑거거리며 흥내 냈던 것이었다. 그렇게 엉성한 모조품으로 탄생한 나의 그림은 꽤 그럴

듯해 보였다. 즐겨보는 만화와 영화 속에 나오는 엄마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집에서 돌아온 나를 위해 언제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줄 것만 같은 앞치마와 내가 지는 순간까지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줄 것 같은 따스한 미소를 갖춘 하얀 도화지 속 엄마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상 속 엄마로 느껴졌다. 그때부터 난 마음 한편에 그림 속 엄마를 걸어둔 채 우리 엄마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기준값이 생기자 모든 것을 쉽게 평가할 수 있었다. 학부모 참관수업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수로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에 같이 쿠키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망과 원망의 감정을 쌓아 나갔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마이너스 엄마가 되었다. 이 세상 모든 엄마 중 오직 우리 엄마만이 완벽한 엄마 그림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직 나만이 완벽한 엄마를 가지지 못한 것 같았다. 비교라는 비료를 쏟아부으면서 마음속에 피어난 비난의 씨앗은 어느새 거대해져만 갔고 엄마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외롭고 슬플 때면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걸어둔 그림 속 엄마를 찾아갔다. 늘 그래왔듯이 같은 미소와 같은 모습으로 날 바라봐 주는 그림 속 엄마에게 난 ‘언제나 엄마’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언제나’라는 부사는 그 시절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가치였다. 멈추지 않는 지진 속에 늘 피난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난 늘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갈망했다. 예측 없이 찾아오는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날 안정적으로 지켜줄 버팀목이 필요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해가는 집과 학교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속에서 난 치열하게 적응해야 했다. 이어지는 변화의 물살 속에 혹시나 자신도 잃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난 최대한 머물러있고자 했다.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도구로 본인들의 외형을 꾸며가는 친구들과과는 달리 난 한가지 스타일을 고수했다. 묶음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웃기고 밝은 아이, 언제나 날 같은 이미지로 바라봐 주길 원했다. ‘넌 예전 이랑 똑같다’라는 말이 나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고 난 언제나 흔들리는 불안함을 꼭꼭 숨긴 채 고정된 가면을 쓰고 연기에 몰두했다. 실컷 재미를

선사하다 문득 고요한 집에 들어올 때면 괴리감에 빠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날 반겨주는 반려견으로부터 위로를 얻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갑작스레 나를 덮쳐오기 시작했다. 이러다간 영영 내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난 기를 쓰고 부여잡을 지지대를 찾아 헤엄치고 또 헤엄쳤다. 희미해져 가는 우리 남매를 붙잡아줄 어른의 초상이 필요했다.

그렇게 떠내려가는 가는 우리를 구출해 준 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할머니와 이모였다. 그들은 내가 마음속에 늘 품어왔던 ‘언제나 어머니’의 완벽한 초상들이었다. 짧은 머리에 온화한 미소로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이상 속 어머니, 두 여성은 그렇게 나와 오빠를 묵묵하게 지켜주었다. 순발력 있는 대처와 주변 분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더욱이 심해져만 갔다. 내일의 엄마를 걱정하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난 엄마라는 행성에 두 발 붙이고 살아가기 위해선 엄마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했다. 오늘의 지진 강도는 몇인지, 온도는 얼마나 뜨거울지, 혹여나 태풍이 불어오진 않을지,

깊은 잠에서 눈을 뜨면 난 창밖의 하늘이 아닌, 가장 먼저 엄마의 하늘부터 살펴보았다. 바깥의 기온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엄마의 날씨뿐이었다. 다행히도 밝은 태양을 만나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점차 안정감이 깃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나와 오빠는 엄마라는 행성에서 차근차근 벗어나 우리만의 세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자유를 되찾은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중 난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 놓여있는 엄마의 옛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낡은 종이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향기를 느끼며 펼쳐본 일기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글자는 ‘공주님’이었다.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인 ‘공주님’으로 날 지칭하며 출산부터 걸음마를 떼는 어린 시절의 나를 정성껏 보살핀 엄

마의 기록들이 일기장 속에 가득 메워져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걱정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는 ‘언제나 엄마’가 바로 그 일기장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그렸던 ‘언제나 엄마’ 그림과 내 옆의 엄마가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일기장 중간마다는 나와 오빠 그리고 엄마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이 꽂혀있었고 그 낡은 사진 속에서 난 엄마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껏 난 엄마의 초상을 결코 형상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엄마의 초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있었고 늘 어색했고 늘 무서웠다. 감히 초상을 떠올리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다양한 얼굴들이 합쳐져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감정보단 이성의 지식이 머릿속에 쌓이면서 점차 엄마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리고 두려운 마음으로는 도저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쳐다보기 싫었던 엄마의 초상들을 드디어 마주할 수 있었다. 우연히 발견한 옛된 엄마의 사진 속엔 내가 있었고 오빠가 있었고 할머니와 이모가 있었다. 엄마이기 이전의 딸, 소녀, 여자, 아내였던 한 사람의 초상이 담겨있었다. 엄마는 결코 이방인이 아니었다.

난 이제껏 엄마를 타인화 해오기 바빴었다. 바람직한 나와는 달리 엄마는 이상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외계인으로 정의하곤 했다. 하지만 사진으로 마주한 엄마는 나와 아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어쩌면 똑같은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우린 외형적으로 참 많이 닮아있었다. 엄마도 나처럼 불안을 두려워했던 여린 어린아이였고 안정적인 버팀목을 원했던 딸이었으며 사랑과 관심을 갈망했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남매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던 어머니 그 자체였다.

겉모습에 속아 그 귀중한 본질을 알아채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후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난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초상으로써 바라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초상은 초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초상 속에 들어있는 진짜 심상이다. 난 어머니라는 고정된 초상 속에서 엄마를 놓아주려 한다. 엄마도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엄마도 불안할 수 있고 달라

질 수 있다. 애초에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린 모두 자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적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난 이제야 엄마의 다양했던 초상들을 자랑스레 꺼내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응원의 마음으로 엄마의 오늘을 기대한다. 어제와 내일과는 다른, 오로지 오늘의 태양이 비치는 고유한 엄마의 초상을 말이다. 그렇게 난 매일의 엄마를 정성껏 그려본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방 벽 한편에 놓인 액자에 걸어놓는다. 하지만 그 그림은 내일이면 교체될 것이다. 새로운 내일의 엄마로. 난 오직 나만이 그릴 수 있는 엄마의 초상을 사랑하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초상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

차하

8,000km -자연과의 약속

추지유

“북극곰을 살려야 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집의 누군가가 에어컨을 틀 때면 해 오던 말이다. 웬 북극곰이냐고? 나의 오지랖은 도덕 시간에 본 동영상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지구 반대편 바다 한가운데, 자기 몸을 겨우 지탱하는 작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삐쩍 마른 북극곰. TV 프로그램에서 보던 귀엽고 통통한 북극곰 캐릭터와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그것이 북극곰의 일상이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혼하디혼한 환경 운동 카피였지만 내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준 하나의 문장 정도는 되었다. 북극곰으로부터 인간이 빼앗은 그들의 집을 돌려주고 싶었다.

태어나서 북극곰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나는 늘 지구 반대편 북극곰의 안위를 생각한다. 조금 웃긴 생각일지도 모른다. 누가 누굴 걱정해?

아마 몸무게가 북극곰 성체의 15분의 1밖에 나가지 않는 인간은 굶주린 북극곰과 마주친다면 먹이가 되어 버리고 말 거다. 호기심 가득한 북극곰의 손짓 하나에 피부는 뜯겨 나갈 거고, 맛이 궁금해 시식이라도 한다면 몸은 피투성이가 될 거다. 곰은 사람을 찢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먹이 주체에 포식자를 걱정한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열등한 인간 주체에 육식 동물을 붙잡히 여긴다.

말이 안 되지만 또 너무나도 당연하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신체 능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인간, 특히 선진국에 거주하는 인간이라면 나의 걱정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안다. 누가 그들을 굶주리게 만들었는지.

인간이다. 부정할 수 없다. 그건 당사자인 북극곰도 모르지만 인간은 안다. 그래서 저마다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무게와 형태가 모두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대한민국은 북극과 약 8,0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내가 북극의 빙하를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어찌면 북극해 위에서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래도 북극은 파괴된다. 지구의 이웃들이 육식을 할 때마다, 차를 탈 때마다, 새 옷을 살 때마다.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우리의 일상 은 지구 위를 유영하다 북극점에서 재앙으로 나타난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버튼 게임’이 있다. 이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당신은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버튼을 누른다면 지구상의 한 사람이 랜덤으로 죽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다. 80억 중 한 명인데 뭐 어때. 몇 번은 괜찮지 않을까? 나는 돈 벌고 싶을 만큼 누를래. 돈 몇 푼에 도덕을 팔기는 그래. 1억을 준다고 해도 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남의 불행으로 자신의 이익을 사라는 이 가상의 딜레마를 두고 사람들은 고민한다. 기꺼이 악을 선택하기도, 찻찻한 마음에 신념을 지키기도 한다.

대상이 사람이어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람이 아니라면? 버튼을 누르는 더 쉬워질 것이다. 북극곰의 버튼은 난도질당하고 있다. 위의 가정에서 버튼 누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조차 그 버튼을 깔고 앉은 채로 북극을 등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를 비판하는 이 글을 노트북으로 쓰는 나조차도 빙하를 녹인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죄책감을 외면하지는 않으려 한다. 나는 북극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쓴다. 일회용 컵과 원두커피를 제공하는 직장 복지 카페에 꾸역꾸역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도보 한 시간 이내의 거리는 무조건 두 발로 걷고, 일회용 비닐봉지가 찢어질 때까지 다회용으로 사용한다.

누군가는 유난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대단하다 말하지만 이것은 나의 평범한 일상이다. 유난도 아니고, 대단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누군가 뒤통수 이웃을 생각하며 층간 소음에 유의할 때 나는 북위 90도 근처의 이웃을 생각하며 지구 온도에 유의할 뿐이다. 나 하나 덜 쓴다고 북극곰의 생활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 지구의 죄책감이 북극의 온도계에 닿을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남기려는 노력이다.

끔찍이도 생각하는 이웃이지만, 앞으로도 북극곰을 만날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북극곰이 북극의 포식자로 남아 주었으면 한다. 퐁퐁 언 빙하 위에서 우람한 풍채를 자랑했으면 한다. 더 좋은 집을 찾아 이사 오지 않았으면 한다. 북극이, 북극만이 그들의 포근한 집이었으면 한다.

북극과 8,000km 떨어진 이곳에서, 나는 약속한다.

나는 언제나 그들을 생각할 것임을.

차하

내 인생의 선택

황오육

사람은 살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하물며 아주 사소하게 오늘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도 엄마인 나의 선택에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사소한 선택부터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선택은 나의 부모님이 해주셨던 거 같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의 선택이 시작되었던 거 같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항상 나를 믿어주셨고, 진로와 관련된 대학 선택 역시도 나에게 전부 일임해주셨다. 그때까지 큰 결정을 해보지 못했던 나는 친한 친구를 따라 사범대학에 입학했고, 자연스레 선생님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4년 내내 선생님의 꿈을 키우며 임용시험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다. 나에게 다른 진로란 선택지에 없었고, 임용합격 후 교사가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임용시험을 치렀다. 나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시험부터 불합격하여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결과가 난 이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숙사 침대에서 혼자 울거나 자면서 시간을 보냈었다. 한 달 정도로 그렇게 지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용 재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면서 그 시기를 환기해 줄 만한 일들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찾은 일들은 재수 시작 전 한 달간 임용과 관련 없는 다른 시험들을 보기로 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어학시험도 보기도 하고, 학교 플래카드에 붙어있던 여군 장교 시험을 보기도 했다. 다행히 그 한 달간,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었고, 임용이 아닌 다른 시험들에선 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자존감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임용 재수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무렵, 여군 장교 모집에 덜컥 합격해 버렸다. 그 당시 나는 여군 장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병과 선택마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채로 선택해서 시험을 치렀었다. 그런 나에게 여군 입대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험을 봤지만, 실제 내가 입대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최종적으로 네 선택이지만, 세상은 넓으니 교사 말고도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입대를 하게 되었다.

임용 재수와 여군 입대의 선택에서 나는 여군 입대를 택하게 되었다. 처음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으므로 적극적이지 못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후보생 때는 성적도 좋지 못했다. 그런데도 매일 훈련은 이어졌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인생에서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곤 했었다. 그렇게 4개월 넘게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나는 군인이 되어갔다. 임관식을 하던 날, 멋지게 정복을 입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군인이 된 나는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었다. 군인이 되었으니 멋지게 군 생활을 시작해보자는 다짐이 생겼던 때가 이때였던 거 같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관 후 병과 교육에서는 1등을 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자대에 가서는 장교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일했던 거 같다. 선배님들이 보기엔 항상 좌충우돌하는 소위로 보였을 거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군 생활에 점차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다. 입대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매일 아침 구보와 퇴근 전 전투 체육 시간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혈 소위였다.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하던 때쯤, 지금의 신랑을 소개로 만났다. 근처 부대 중대장이었던 신랑과 나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엔 결혼하게 되었다. 그때, 난 고작 26살이었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나의 군 생활과 상관없

을 줄 알았다.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부부군인이 되어 생활하다 보니 신혼부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다. 그러던 중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이 굉장히 심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부대에서는 임신부인 나를 항상 배려해주셨고, 그래서 임신 기간 힘들지만 다닐 수 있었던 거 같다. 출산 한 달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었다.

아이를 낳으면서 내 인생의 선택뿐만 아니라 아이의 선택도 내가 대신 해야 한다는 것을 초보 엄마가 되고 알았다. 임신했을 때는 아이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모유를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까지 아이는 오롯이 엄마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항상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선택에 따른 책임이 무겁기도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를 돌보는 게 좋을 거 같고, 부부군인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기르기가 힘들겠다는 마음이 중복되어 나는 쉽게 복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1년씩 육아휴직을 연장하게 되었고, 복직할 보직을 결정했지만, 나는 둘째를 임신하면서 군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때의 선택이 아쉬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때 내가 복직해서 일했다라면 지금쯤 소령이 되었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게 복직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온전히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비록 내가 인생을 길게 산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복직을 포기할 때와 같은 순간에서 나는 그때 당시 최고의 선택을 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선택들 덕분에 지금의 행복한 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며칠 전,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신랑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선물로 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꽃을 보면서 10

년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지낸 시간이 문득 정말 행복했다.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신랑도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소소하게나마 나도 다시 중학교 시간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며 잘 지내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도 나의 선택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신랑과 아이들의 인생에도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장려

늘 내 선택에 후회하지만...

박아셀

2019년 봄, 29살의 나는 힘겨운 내 삶을 도망치듯 결혼을 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그리고 결혼하기도 전에 집안 어른들에게 들은 소리는 바로 ‘애는 젊을 때 빨리 낳아야지...’

육아를 하며 깨달은 바가 있는 지금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는 그 말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일까? 정말 결혼식을 치룬지 3주 만에 임신을 하였고 그 다음 해 3월, 나는 엄마가 되었다.

엄마가 처음이라 서툴렀고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까지 창궐하던 때라 매일 두려움과 걱정근심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신랑 외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타지에 와서 친구도 없어서(있어도 코로나라 만날 수 없었다) 몸도 마음도 병이 생겼다. 아이가 참으로 사랑스럽고 예뻐지만 계속 뻘뻘 울어댈 때면 어떨 땐 참 뱉기도 했다.

활발하던 내가 집에만 있으니 결국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이겨내 보자’라는 마음으로 상담도 받고 ‘운동’을 선택했다.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재울 목적으로 겸사겸사 유모차를 끌고 눈이나 비가 오나 다리 실핏줄이 터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또 어디 멀리 나갈 때면 아기띠와 외출가방을 메고 억척스럽게 여기저기 쏘다니기도 했다. 모유수유도 21개월 동안 열심히 했더니 살이 30kg가 넘게 빠졌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더욱 강해졌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렇게 내 첫 아이는 어린이집을 갔고 난 2년 반의 경력단절을 딛고 제2의 직업을 찾아 다시 사회로 나갔다. ‘여자라서, 엄마라서 그렇지...’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밤낮으로 새벽같이 열심히 일했다. 코로나에 걸린 적 빼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늘 연장반에 남아있는 우리 아

이는 엄마를 찾으려 정말 힘들어했다. 그러나 책임감 때문에 일을 놓지 못했다. 최대한 아이를 빨리 데리러 가려고 했지만 업무는 많아졌고 신랑은 잤은 출장을 가고…. 결국 아이도 병이 나고야 말았다.

수족구, 장염, 감기, 코로나….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 갈래!’라며 아침저녁으로 울고 악몽을 꾸고 아침에 옷을 안 입는 행동 등을 하며 아이는 등원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 또 모든 오감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은 아프고 나는 나대로 퇴근 후에 힘들어서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고…. 집안 꼴은 엉망이고 밥 사먹는 돈은 더 나가고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다. 어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돈 벌러 다니는 내 선택이 과연 맞는 걸까? 일을 때려 쳐야 하나? 하루에도 수 십 번 내 선택에 의문을 품었다.

‘어머니~ ○○이가 열이 오르는데요.’ 전화 한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신랑은 이미 일 년 치 연차를 상반기에 다 써서 마이너스 연차를 썼다. 어떤 날은 내가 아픈 아이를 안고 회사에 출근했다. 이런 날이 잦아지니 한마디로 ‘현타’가 왔다. 그리고 갑자기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서글펐고 여자는 일을 다녀도 살림과 육아를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다. ‘왜 나도 일하는데 어린이집에선 엄마한테만 전화하는 거야???’

하루하루 눈물로 버티며 일도 적응이 되고 아이도 좀 커서 수월해질 찰나에…. 주변에선 또 이런 말을 하더라. ‘하나는 외로워~ 애 하나 더 낳아야지. 그래도 둘은 낳아야지~’ 물론 우리 부부도 둘째에 대한 생각을 늘 했다. 하지만 맞벌이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혁혁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났다. 그러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올 초에 둘째를 품게 되었다.

그런데 임신초기부터 첫 췌 때 없었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입덧이 잠잠해지니…. 여름이 다가와서 출퇴근을 하는 것조차 뚜벅이인 내겐 너무 힘들었고

몸은 더욱 무거워지고 회사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많아 스트레스는 배가 되었다. 거기에 남편은 심심하면 지방출장을 갔고, 임신한 몸으로 첫째를 홀로 몇날며칠 돌보는 것이 너무 지쳤다.

등원-출근-하원-살림. 태교가 뭐예요? 둘째를 가진 게 정말 잘한 일인지... 뱃속의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끔 후회를 하기도 했다. 둘째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이 버겁고 힘들었다.

그리고 임신 중기부터 ‘아이를 낳으면 누가 설 것인가’라는 논제로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나는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놓고 싶지도 않았고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반대로 신랑은 총각시절부터 다닌 회사를 12년이나 다녀서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남자가 육아휴직을 내는 것’은 정말 많은 쓴소리와 반대들을 무릅쓰고 밀고 나가야 하는 중대사였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이 저출산 시대에 애 둘 낳으면 애국자라고 박수까지 쳐준다는데 이렇게까지 육아휴직 낸다고 욕을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일을 계속 다니기로 했고 신랑은 1년 육아휴직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출산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또 잠을 못 잤다. 이것도 정말 병이다! 첫째도 자연분만을 했는데 그 진통이 얼마나 아픈지 몇 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출산이 다가오니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다.

‘아... 미쳤지!!! 그때 정말 아팠는데! 또 임신을 하다니...’ 난 이번 임신 때도 너무 잘 먹어서 아이 예상 몸무게가 4kg가 넘었다. 병원에선 초산인데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빨리 잘 낳았으니 둘째도 그럴 거라며, 자연분만을 권유했다. 나 또한 제왕절개는 더 무서워서 자연분만으로 결심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매일 ‘제왕절개를 할까 그냥? 아니야 자연분만 하자, 그런데 나 애 낳다 죽으면 어떻게 해???’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맘 졸이며 조금이라도 가진통이 오면 ‘오늘인가???’ 초조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며 첫째와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려고 노력했다. 애 낳기 전날, 가진통을 느끼면서 박물관을 다녀왔으니 말이다. 그러다 드디어 출산 신호가 온 디데이! 무통도 처음 맞아보고 유도분만도 처음 해보았는데…。 무통천국은 무슨! 무통은 하나도 안 먹히고 자궁문이 엄청 빨리 열려서(촉진제 맞고 2시간 40분 만에 낳았다) 자궁문이 4cm, 7cm, 10cm 확확 열리는 게 리얼하게 느껴졌다. 무통을 3번 맞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고 진짜 누가 날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 난 이 고통을 느껴봤으면서 왜 또 임신을 했을까? 내 선택이 너무 후회됐고 옆에서 울고만 있는 신랑이 원망스러웠다. ‘그래 너는 애 나오면 태출만 자르면 끝이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호흡과 힘주기에 집중했고 간호사들에게 폭풍 칭찬을 받으며 순~풍 아이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내 두 번째 출산이 끝이 났다. ‘아…。 이제 내 평생 숙제 끝났다.’

묵직한 아이(4.1kg 우량아다)가 빠져나오고 태반도 빠져나오면서 어찌나 시원하던지.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걱정, 두려움까지 싹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따뜻한 아이를 내 품에 안았는데 순간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10달 내내 품고 있었는데 왜 난 한없이 행복하고 기뻐하지 못했을까? 입덧이 힘들고, 몸이 무겁고, 다 아프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랑과도 많이 다투고. 그런데 돌이켜보니 다 별게 아니었고 내가 10달의 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다. 덩다고 갈증 난다고 임신 기간 동안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신 것조차 피부가 빨간 아이를 보니 괜히 사이다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했다.

조리원 퇴소 후 집에 와서 첫째와 둘째가 나란히 누워 자는 모습을 보니 참 사랑스럽고 ‘아…。 둘째를 낳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산 한 달 차인 지금(2023.11.4.)

자기주장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4살과 모든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 표현하는 1살이 공존하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두 딸이 서로 바라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행복하다.

신랑이 육아휴직을 한지도 1달차다. 신랑이 집에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다. 육아를 잘할 수 있다며 큰 소리 치던 신랑은 결국은 엄마인 나를 찾는 아이들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고 살림도 육아도 서툴러서 매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처음엔 너그럽게 신랑을 이해하려고 하던 나도,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라며 하루에 소리를 몇 번이나 지른다. TV프로그램에서처럼 우아~하게 부부가 육아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 신랑이 육아휴직을 괜히 켜나? 역시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육아 해야 하나...’ 사실 남한테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이런 후회도 든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남은 11개월 동안 밀고 나가야 한다. 무를 수 없다.

착한 신랑은 나를 열심히는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 문제다! 나처럼 멀티가 안 된다. 왜 나처럼 한 번에 여러 개를 못하는 거야? 왜 애보면서 살림은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돈 벌어도 결국은 아이들 관련해서는 다 내가 신경 쓰는 거야? 한숨이 짝짝 나온다.

그러나 신랑이 아무리 달라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이 내가 가면 모세의 기적처럼 조용~해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는 건가’ 나 자신도 숙연해지곤 한다. ‘신랑에게 모유라도 나오면 참 좋으련만...’ 엄마인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달고 포기할건 포기 하는 게 빠를 것 같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이란 ‘선택’을 했고 또 서로를 닮은 아이를 낳자고 두 번이나 결심했고 실천했다. 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정말 이 선

택이 맞는 거였을까?’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부질없이 상상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앞으로 이 선택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자꾸만 후회하기보단 남은 11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우리의 선택에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이 글을 다시 볼 때면 ‘아! 우리의 선택이 그래도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

장려

웃으심에

송흔희

나의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으셨다. 그것이 자의인지 또는 우리를 위함
에 따른 어떠한 강제성이었는지 지금의 나는 오롯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발현된 마음이든 누구의 손가락질도 받을 수 없는 마음인 것만
은 자명하다.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이유 모를 악독한 손가
락질에 시달려 온 우리 어머니. 그 마음에 나는 경의를 표할 자격이 되는
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스러운 나는 나의 마음에 어머
니의 세월을 반듯하게 걸어놓는다. 손으로 꼭꼭 눌러볼수록 색이 짙어지
는 빛바랜 사진.

나의 어머니는 71년생으로 경상남도 합천에서 첫 운을 띄었다. 외진 시
골로 건너건너 모두를 아는, 심지어 마을에 사는 모두가 같은 성(姓)을 가
진 아주 작은 공동체였다. 출생 신고도 바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골에서
살았기에 여러 아이가 태어나면 한꺼번에 출생 신고를 하였고 친구끼리
태어난 생년월일이 같은 일은 부지기수였다. 아무런 교통도 발달하지 않
아 매일 한 시간을 걸어 학교에서 겨우 수업을 받으셨다. 수업을 마치고
오면 곧바로 밭일을 도우러 가셔야 했고, 밥은 세 살 터울의 언니가 겨우
해먹이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깨끗하셨다. 여기까지 듣고 미간을 찌
푸린 내게 어머니께서는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내가 힘들었다고 했겠니,
하고 편잔을 주시며 가슴 아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셨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술을 달고 사셨고, 한번 취하면 낫을 들고 와 죽
이겠다며 나의 어머니를 쫓아오셨다. 어머니는 부리나케 도망치며 잘하지
도 못하는 달리기를 혼신을 다해 했다며 주름진 미소를 보이셨다. 이런 시
련을 잘 버텨내는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셨는지 하늘에서는 조금 더
큰 시련을 내어보이셨다. 중매를 통해 아버지를 만난 어머니께서는 작은

전세집에서 나와 언니, 동생을 낳으셨다. 금전적인 여유라고는 조금도 느껴보지 못한 어머니의 삶은 결혼 후에도 지속되었고, 아버지께서는 한없이 무심하셨다.

어머니는 무어라도 해보아야 되지 않겠냐며 이모와 가게를 차리셨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서 사는 게 아닌 당신의 집을 가지길 원하셨다. 그런 어머니께 빛은 언제나 친구처럼 따라오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였고, 그럼에도 빛이 있음에 슬퍼하시기보다는 갚을 수 있음에 감사하셨다.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시장에 나가 가판대에서 판매를 하시기도 하셨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가운 척 말을 걸며 판매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며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연하다. 어떤 것도 탓하지 않던 나의 어머니. 어떤 일에도 감사하던 우리 어머니. 예외는 항상 우리였다. 모든 일에 감사하셨지만 바쁜 가게 일로 인해 우리에게 밥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는 미안해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사먹을 수 있는 돈을 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해하셨다. 집안일에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해하셨고, 철없는 나와 동생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미안해하셨다. 세상의 관점에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일에 미안해하셨고, 어려운 일에 감사하셨다.

정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고단한 삶이었던걸까. 언제나 같은 대답을 내어놓는 세상과 반대로 걸음하셨고, 그 반대는 결국 우리 가족의 삶에도 적용되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던 가난도 하얀 깃발을 들고 항복을 외친 것이다.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했던 가게가 성공했고, 그 덕에 어머니께서 감사하던 그 빛을 다 갚으셨다. 전부터 항상 즐겨 드시던 피자와 치킨을 먹고 싶을 때 드시며 세상의 방향과 같은 길을 걷게 되셨다. 무심하시던 우리 아버지도 항복. 결국에는 오랜 세월 끝에 모두 승리하셨다. 그 승리에는 너희가 있었다며 웃으시는 어머니. 승리의 순간에는 언제나 웃고 있던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어머니의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공들은 승리해서 웃을 수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웃으셨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내게 매를 드셨다. 잘못을 하면 어떤 마음에서인지 매를 드셨고, 나는 그 매를 맞았다. 그리고 울며 미워했다.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책만은 손에서 놓지 말라고 하셨다. 그 책들은 내게 어딘가 모자라게 느껴졌던 부모의 사랑을 대신해 주었고, 부모의 사랑을 짚어볼 수 있게 해주었다. 짚은 자리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짚는 것만으로도 아픈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시던 어머니의 삶에 나는 몰래 눈물을 엮었다. 한 시간이 넘는 등굣길을 걸으며 참외 서리를 해먹던 어머니, 밭 주변에서 귀신을 봤다며 도망치던 어머니, 결혼 후 작은 전세방에 우리를 키우시던 어머니, 나와 첫 외식을 갔을 때 스파게티를 먹고 좋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세월에 반밖에 자리하지 못한 나를 전부로 여기시던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세월을 짚어 보며 그 웃음을 따라 한다.

나는 어머니가 된다. 나는 함께하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 잔잔한 바람으로, 열은 구름으로 함께한다. 이제는 함께할 어려움 속에 전부로 자리한다. 이제는 내가 있음으로 어려움과 행복이 동의어가 될 수 있도록.

장려

어머니라는 이름은

김선녀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모서리에 메마른 풀줄기 하나가 바람에 떨고 있다. 깨져나가 균열 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양이다. 벽이 회색인 데다가 줄기가 가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금방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봄, 그곳에 푸릇한 게 있었던가, 생각나지 않는다. 바람에 부서져 날릴 법도 한데 한 포기 잡초 모양 그대로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구조를 요청하는 손짓인 듯하다. 외출할 때는 나가는 일에 바빠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간다. 초가을에 발견했고 지금은 겨울이다. 눈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양새가 위태롭다.

망 백을 바라보는 어머니께 다녀오는 길이다. 어머니는 젊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시느라 경제활동으로 바쁘게 사셨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의 밥을 해대는 일을 하셨다. 투박하고 거친 사내들 사이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장부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제 그것은 젊은 날의 일화다. 나이 들어 일손을 놓으신 다음부터는 사는 동안 남의 손발을 빌리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몸을 부지런히 부리셨다. 젊은 우리보다 더 충충하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던 어머니, 그 덕인지 구십을 넘기도록 자식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지 않으셨다. 연세를 생각하면 정정하신 편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백세시대 그 끝점에 와 있는 육체가 어찌 멀쩡하다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만치는 아니어도 잘 걸으시고 드시고 주무시지만 이제 수시로 입바람을 쐬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당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바람과 함께 한 지 오래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과거와 과거, 과거와 현재를 자주 혼동하

신다. 우리 형제끼리는 노인성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받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께 제안했으나 당신 스스로는 아직 멀쩡하다며 큰소리치신다.

어머니께서는 눈 뜨면 가장 먼저 이불을 내다 털고 청소기를 돌린다. 노인들이 있는 방에는 죽음의 부스러기들이 날린다고 하시면서 밤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졌을 각질을 쓸어 담는다. 또 냄새가 난다며 매일 아침 목욕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 사람마다 천성이 있다. 어머니는 지나치게 부지런한 게 탈이다. 깔끔해서 부지런하신 것인지, 부지런해서 깔끔하신 것인지 젊은 우리보다 더 깔끔하다. 노인이 되면 추잡하게 보이기 쉬우니 쓸고 닦아야 한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신다. 이전보다 설핏해졌지만, 여전히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신다. 이젠 귀찮아도 하시고 아픈 척도 하시면 좋으련만, 눈을 떠도 감아도 멈추지 않는 바람 소리에 가슴이 아리다.

분명 봄벌 새싹으로 태어났다가 한 생을 보내고 사초가 되었을 것이다. 겨울 추위에 파르르 흔들리는 풀줄기에 자꾸 어머니가 겹쳐진다.

살이라고 할 수 없다. 뼈마디 위에서 거죽처럼 흔들리는 피부엔 검은 꽃이 곳곳에 피었다. 처음엔 눈가에 기미처럼 피어오르던 것이 하나, 둘 피다가 팔과 다리, 전신으로 번졌다. 처음엔 꽃 알레르기가 심하다며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는데……. 아예 만발하니 이젠 알레르기에 적응이 된 모양이라면서도 말은 젖었다.

어머니도 한때 어느 집 귀한 딸로 태어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셨을 것이다. 부모님의 애뜻한 정을 뒤로하고 아버지에게 시집오던 날이 있었을 것이다. 평생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사남매를 두고 홀연히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그때의 어머니를 나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 대신 그 짐을 졌던 것을, 알았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기도 하다.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바라보니 애간장이 녹는다.

형편이 피면 뭐든 해드리고 싶었다. 기약 없는 기약을 하며 흘러온 시간은 우리 가족을 지금에 이르게 했다. 세상과 맞서 잘 살아오시고도 여전히

자식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인생의 끝이 보일 듯 어머니가 위태롭다. 겨울나무처럼 추워 보이는 어머니가 밝히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사초를 확인한다.

눈뜨는 아침이 싫다고 하신다. 당신 스스로 입에 붙은 크고 작은 바람 소리를 떼지 못하는 것이 힘겨우신 것 같다. 자다 깨서 그 소리에 막내딸이 잠을 설칠까 봐 또 노심초사다. 몸은 마음대로 안 되고 의식은 분명하시니 이중으로 고통스러우실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을까. 모녀의 인연으로 만나 연과 방패처럼 붙어살았는데 어머니는 방패를 벗어나고 싶은 것 같다. 방패가 낡기 전에 이승을 훨훨 나는 연이 되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인 모양이다. 언제는 어머니가 방패였고 우리가 연이었는데 이젠 어머니가 연이다. 어머니를 보며 미래의 나를 본다.

어머니를 닮고 싶다. 거울 앞에서 깊어지는 주름살에 세월을 닮아보기보다 잘 여우는 중이라며 여유를 보인다거나 세월이 좀 더 흘러 검버섯이 피도 피부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버석거리는 소리를 내는 재치 있는 노인이 되고 싶다. 그러다 이윽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손발을 고달프게 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며 버틸 수 있는 삶을, 끝내 꽃이 진 자리마다 씨앗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입바람을 불게 되더라도 밍지 않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다.

“이제 네 나이도 예순을 바라보니 한시름 덜고 살아야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은 사랑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 으면서도 자식의 짐이 될까 걱정하시다. 어머니의 바람은 딸의 얼굴에 검은 꽃이 피기 전에 자신의 꽃이 완전히 지는 것이다. 나이 들어가는 딸의 안위를 걱정하신다.

나는 꾸미고 가꾸는 것엔 췌병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만 나면 거울 앞에서 얼굴의 모공을 살핀다. 해본 적 없는 마사지에 아이크림, 영양크림 등 골고루 챙겨 바른다. 나이를 속여서라도 어머니를 이승에 더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바짝 메마른 줄기로 모진 겨울을 이겨낸 사초가 머문 자리, 봄이면 그 자리에서 파릇한 싹을 볼 수 있을까.

내 삶의 귀퉁이가 위태롭다. 하늘이 간절히 어머니를 부르는 날까지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입바람을 쀈도 괜찮습니다. 젊은 날 참았던 한숨 이러니 합니다. 그날까지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려

어머니

구영주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잠이 들었다.
잘 챙겨먹어라 아프지 마라.

꿈결 속에 물결처럼 들리는 목소리
목소리를 잡으려고 팔을 뻗다 잠이 깨었다.

어두운 방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간다.

낮에 어머니에게 받은 택배에는
초록과 빨강이 색동처럼 어우러진
색이 고운 오이소박이
까맣고 윤이 나는 두툼한 김구이
온순하게 자라나
참기름에 얹전히 묻혀진 어린 나물들
시간과 수고로 담겼을 식혜와 수정과

나는 밥통을 열고 밥을 푼다.

어머니가 기름을 바르고 구워
소금을 아낌없이 뿌려 보내주신
크고 거칠고 두툼한 채래 김을
뜨거운 밥에 싸서 먹는다.

새벽 3시에 먹는 밥에 묻은
어머니의 짠 내 나는 손을
그 손에 묻은 소금까지를 모두 훔아먹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는 받아보지 못할 음식들.

도처에 죽음이 넘실대는 시절
불경하게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이상스레 울컥해지고 결국 보내준 음식들을
그 어떤 때보다 감사한 눈물로
목구멍으로
마음으로 먹는다.

자식은 어머니를 먹고 또 먹고
짠 내 나는 어머니의 몸과 피를
다 빨아먹고 죽는 존재.

뜨거운 밥에 하얀 소금이 눈꽃처럼 뿌려진
윤기 나는 김을 얹어놓고
새벽에 홀로 울컥거리는 까닭이다.

장려

내 삶 진짜 주인은 나

김민정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떤 날은 눈뜨자마자 기운이 솟구쳐 못 해낼 것이 없다 싶게 가뿐하다가, 또 어떤 날은 시작도 하기 전 벌써 지쳐 멍하다. 당면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까 두렵다.

회사에 문의했다. 정규 근무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이다. 거기에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규근무시간 대비 1.5배 임금을 지급 받는다. 급여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매월 삼십 만원 가까이 연장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다.

연장근무 제외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이미 한차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니, 회사가 괜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기 바랍니다. 30분 조기퇴근을 원하면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겠죠?”

회사답변 온도가 차갑다 못해 시리다. 설마 30분 일 하지 않으면서 돈 받아갈 궁리를 할까, 그러나 회사는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 30분 동안 아무도 정상적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사람은 없다. 다들 삼십분 후 칼퇴근을 위해 담배를 피거나 본인 주변 정리정돈을 하며 시계바늘을 재촉할 뿐이다.

불미스러운 일, 불과 얼마 전 회사 안에서 정규근무시간 중 업무 외 다른 일을 보다 고스란히 들켰다. 순간 거짓말을 할 수도, 아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고, 나를 변명하

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회사가 나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마침 나는 나대로 나만의 항거 중이었다.

순간 아니라 말하면 나의 행위는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뿐이 될 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나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들기는 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기는 했다. 명명백백 내가 잘못된 일이기는 했다. 뒤통수 한 대 세계 얻어맞고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고스란히 들키던 그 순간 두 눈이 제자리에 와 박히면서 전율이 일었다.

회사는 어쩌면 이 때부터 나를 회사로부터 건어낼 결심을 굳힌 것인지도 모르겠다.

두통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못잔 다음 날이면 계속되는 두통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었다. 회사근처 병원을 찾았더니 혈압이 220mmHg 의사는 지금당장 상급기관으로 가기를 명령했고 진료의뢰서를 써 줬다.

brain mri + mra 결과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발견. 담당의는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진단했다. 암수술 한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다. 향후 3년간은 전이, 재발여부를 추적 관찰해야한다. 항암과정에서 1.6cm 종양이 부신에서 발견되었다. 추적관찰을 해보자 하여 분기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에서의 종양이다. 추적 관찰해야할 일들이 자꾸 늘어난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 반해 이십 이년 이곳 회사를 다녔다. 나는 언제나 먹고 사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어쩌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을 오롯이 믿고 싶었을 것이다. 가족은 무엇을 하든 무조건이고 서로 계산하지 않고 절대적 믿음이 있으니까. 배신하지 않고 올인 해야 하는 대상들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회사에 존재하고 조직원으로

서 회사와 끈만 놓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일과 아이들 키우는 일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일이었다.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6년 8개월 경력단절 후 나에게 회사가 생겼다.

회사, 내 자리, 내 업무에 대한 집중 열정 애정과 관심 대단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었다. 머리로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일에 미쳤고, 어딘가에 닿아 무엇이 될 수 있기를 꿈꾸기도 했다. 나에게서 일은 아이들 그 다음이었다.

2021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항암도중 부신우연종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이번 송과선 종양을 확인하였을 때, 나의 첫 생각은 언제나 ‘일은 어떡하지!’ 였다.

“환자분, 암입니다. 검사결과 상세불명, 악성신생물발견, 암 이라는 단어들이 퍽퍽엄 귀에 들려왔으나 대단히 심각하게 전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그만뒀야하는 건 아니겠지? 가 더 큰 충격이었다. 이제 갓 암 환자가 되었으니 암 포함 중증질환자에 대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경감제도인 산정특례신청을 하고 가라는 권유도 흘러들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당시 나에게 암 진단보다 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크게 나를 엄습했다.

나의 일에, 회사에 집중하다 못해 집착하는 건, 한번 잃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진 게 없어 아이들 끼니 걱정을 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자칫 고통 속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었다.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었다. 가진 것 없지만 노력하면 급여가 나왔기에 노력에 노력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마음이 더해졌고 재미있었고 행복했다.

지난 이십 이년동안 시간을 재촉하며 산 기억이 없다. 6번 항암치료와 28번 방사선 치료를 미루었다. 암 수술 후 6일 만에 정상출근 했다. 남편

은 혀를 내두르다못해 말문을 단았다. 주말과 휴일 몸져누워 있다 월요일 새벽 네 시면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하는 나를 두고 회사에 특화된 사람이라 비아냥대기도 하였다.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 책상에 가 앉아 있으면 통증이 사라졌다. 더 이상 암 환우가 아니었다. 이대로만 하면 회사의 그늘 아래서 나는 천천히 조용히 나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모양이다.

겨우 나 하나를 밀어내자고 회사는 모든 파일의 저장, 공유화를 시작했다. Dropbox를 설치 폴더를 지정, 내가 가진 모든 파일을 저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표면적으론 전 직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해당자는 나였고, 실질적 내 파일 저장 업무가 완료된 다음 다른 직원의 파일이 옮겨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십 이년 전 회사에 입사 했을 당시, 파일 첼로만 보았을 때, 회사 상태는 황무지였다. 입사하고 첫 업무 시작 전 내가 받은 건 금전출납장 한 권이 전부였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이, 결재 받기위한 보고서 양식들이 필요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만들던 그 첫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기획하고 수립하고 보고하고 진행해서 성과 낼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을 이십 이년간 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스무 개가 넘는 연도별 폴더들이 차곡차곡 쌓여 질 때마다 나의 커리어 또한 성장해가는 것이었기에 한 해 한 해 폴더 개수가 더해지는 만큼 나의 자부심, 나의 뿌듯함도 쌓여갔다.

회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업무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미치기 위해 미쳐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다. 시작하면 일이 되었고, 간혹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좋은 성과에 대한 인정의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경력단절 6년 8개월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게 맡은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되고 싶었다.

그것을 내놓으라는 말에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발끈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잉태해 만들어 낸 나만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회사에서 딱딱딱 월급 받아가며 해낸 일이 어떻게 개인 전유물이 될 수 있느냐고 회사는 나를 나무랐다. 당신이 회사 소속원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에 이런 성과조차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회사는 나에게 삿대질 하며 겁박했다. 군소리 말고 지금 당장 지정 폴더에 파일들을 옮기라 명령했다.

마치 나의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만 같았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영혼까지 탈탈 다 털리는 것만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겁이 났다. 금요일 업무종료 한 시간 전이면 지난 일주일 진행했던 업무별 자료들을 따로 백업하느라 별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외장하드 두 개를 장만했고, 각각 나누어 백업저장을 하고, 회사 PC 별도의 공간을 파티션으로 나눠 한 번 더 백업저장을 한 후에야 일주일 업무를 마감했다.

Dropbox 덕분에 백업저장업무가 사라졌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회사업무관련 자료를 회사 밖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에 따라 외장하드 두 개 중 한 개를 들고 다니며 집에서 업무를 보던 나의 개인 행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회사관련 그 어떤 일도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회사는 나를 딱 집어 명령했다.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 너무나도 평범한 한 날 사원이 되었다.

아침 눈뜨자마자 마시는 식전커피를 나는 가장 좋아한다. 이때 물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 자칫 물을 많이 붓게 되면 커피가 진하지 않아 슬프다. 반면 물의 양이 아주 적어 커피가 생각보다 진하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하면 된다. 아직은 뭔가 선택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너무 진한 커피에 조금은 여유 있게 물 한 두 방울 더 떨어트릴 수 있는 가능성,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 어쩌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대목이다.

그동안 내가 나태했을까! 오만했을까! 오늘도 출근하려는 나와 지난 이십 이년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는 줘야지, 등을 돌리기를 작정한 회사와 당분간은 어긋나기는 할 것이다.

Dropbox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날들이 지나갔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는 건 어폐가 있겠다. 지난 이십 이년 동안 나 또한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팔목할만한 성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얼마쯤은 내공이 쌓여 내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서류를 똑같이 만드는 일도 가능하지만, Dropbox에는 없지만 기획하고 수립하고 진행 가능한 삶의 프로젝트들은 나의 가슴과 머리 안에 남아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건 아니었던 것이다.

퇴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다. 민폐이기도 했고 겁이 나기도 했다. 한창 북적이는 시간대를 피해 삼십분 일찍 집에 도착 회사에서 못 다한 잔무를 볼 계획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박힌 미운털을 기어이 뽑아내지 못하고 Dropbox 마저 도입되는 바람에 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애꿎은 재직수당 삼십 만원만 꼬박꼬박 매월 회사에 상납하듯 털려가며 다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다.

나의 질병을 무기로 회사로부터 온정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 회사에 나의 온갖 질병들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하루라도 바빠 나를 내 아 달라는 도발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는 단 한 번도 나와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석하였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내가 자청했고, 나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뿐이다.

내가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회사로서는 개인적 질병으로 몰아가며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이 추가될 뿐이다. 그런 골칫덩

이를 단 하루라도 실무진 으로 두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서운해 할 일이 아니다. 입장 바꿔 내가 회사의 입장이라 해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십 이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출근했던 회사로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 문제 해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회사로부터 내가 받을 게 있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회사를 위해 내가 어디까지 했는데 생색 내고픈 마음을 지우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받을게 없는데 억울할 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023년 올해 내 삶의 목표가 생겼다면? 이곳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1년 연장 촉탁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당장이라도 나를 내쫓으려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65세 정년퇴직 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분간 얼마큼은 일을 좀 더 해야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그것이 일 때문이든 나의 생계 때문이든 지금의 나에겐 분명 얼마큼 일은 필요한 상태이긴 하다. 그걸려면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일을 열심히 시작해보아야 한다. 2021년은 여러모로 나에게 혹독한 한해였다. 2021년 5월 내가 암 진단을 받았고, 6월 암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남편이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2022년 한해는 회사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해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감하지 못했다. 정신차려보니 2023년 10월 올해도 이미 다 지나가려하고 있었다. 너무 오래 방황을 한 모양이다. 아주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나는 아직 해고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아직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제대로 된 일을 한 기억이 없다. 하루 종일 멍청하게 불명하듯 뉘를 놓고 있기도 했고, 나 스스로 면벽근무를 자청하듯 벽면만 바라보고 앉아 있기도 했다. 일에 미처 사리분별 못하고 쫓아 다니던 과거의 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나를 회사는 아마도 방치한 모양이다. 어쩌면 약값이라도 벌어가게 내버려 뒀 준 것인지도 모른다.

일련의 시간들을 반성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회사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사와 나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거래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마지막 열정으로 일에만 몰두해 보기로 한다.

2021년 남편을 해고 할 당시에는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단, 회사의 필요에 따라 1년씩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회사규정이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규정 하나로 앓던 이 뼈버리듯 마침내 남편을 해고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회사는 반색했을 것이다. 이 규정이 나에게로 와 호재가 되고 회사로서는 악재까지는 아닐지라도 골칫덩이 정도 작용해 줄지도 모른다. 현재 회사는 끊임없이 나를 견어 낼 준비와 실천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아랑곳 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고 싶다.

불명예, 억울함 가득한 퇴진은 남편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 지난 이십 이년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아온 게 아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쫓겨 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버젓이 우리에게 생겼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만년 ‘을’이라는 이유로….

brain mri + mra 결과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발견 후 어느 날, 회사가 내게 물었다. 향후 치료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저 사람하나 내 칠 생각만 가득한가보구나 싶어 회사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일이 한낱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되고, 나름 세워둔 계획도 있었기에 회사의 물음에 간결하나 성실하게 답변했다.

갑상선 내 1cm 넘는 모양이 좋지 않은 종양 발견에 대한 치료계획과, 부신에서 발견된 1.6cm 종양에 대한 상급병원 방문예정, 머릿속 종양은 어떻게 추적관찰 할 것인지를 두고 천천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암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고 있는 얼굴, 손, 발 부종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답변 해 두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나 또한 불명에 퇴사를 하고 싶지 않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따로 부탁도 했다. 이십 이년을 직원으로 일 했는데 그 정도 선택지는 내가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고 알아서 퇴사하겠으니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탁해 두었다.

그리고 이제부터야말로 내 삶 진짜 내 폴더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 선택하고 집중해서 실천해야겠다 결심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평생 ‘을’로만 살아왔다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해야 하는 일은 두 번 겪을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 주인 자리를 다시 꿰차고 진짜 ‘갑’이 되어 살아야겠다. 이십 이년 ‘을’로써 군말 없이 살아냈으니, 남은 삶 이젠 ‘갑’으로써 폴더 안 꼭 채워 살아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누군가에게, 어딘가로부터 폴더 안 꼭 채운 자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 진짜 주인이 되어야겠다.

장려

엄마의 등대

문정희

섬마을에서 보낸 여름은 무덥고 습했다. 중풍으로 쓰러져 이십여 년 가까이 자리에 누워 계셨던 할머니의 이마에도, 병수발을 드는 엄마의 목덜미에도 쿡은 땀방울이 맺혔다. 더위에 지친 할머니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커다란 대야 가득한 식구들의 빨랫감을 머리에 짊어지고 저수지 독길을 오르내리는 엄마의 고무신에는 물자국이 질퍽거렸다.

우리 집은 대가족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칠남매. 그중에서 엄마는 집 안의 기둥이었다. 원래 병약한 체질인데 고된 농사일을 하느라 음식을 잘 드시지 못했다. 땡벌에 그을린 거무스름한 살갗이 앙상한 몸을 거죽처럼 감쌌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큰오빠와 언니가 결혼을 해서 당시 만이는 나였다. 엄마를 도울 사람은 나뿐이었다. 물론 나도 원하면 고등학생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작은 섬마을에 고등학교는 없었다. 내 뜻을 펼치려면 목포로 가야 했다. 그 순간마다 헛헛한 표정이 어려 있는 엄마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지워지지 않고 마음속에 그늘을 드리웠다. 엄마 홀로 남아 전답을 가꾸고 살림을 하도록 방관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에는 광주나 서울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어차피 남의 집 식모가 되느니 나는 우리집 일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동생들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다. 동네에서 배를 타려면 선창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그 길이 유독 험난했다. 애당초 도로가 없었지만 다니는 차도 드물었다. 엄마가 직접 가꾼 마늘과 깨, 된장, 참기름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일은 중노동이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채 배에 오르면 멀미에 시달리느라 먹은 것을 몽땅 게워냈다. 갇은 고생 끝에 목포에 도착해도 쉴 틈은 없었다. 동생들 밥이라도 한끼 차려주려면 연달아 버스를 타고 광주

로 가야했다. 그러다 보니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마칠 즈음에 내 나이가 어느덧 서른이 되었다. 내가 직면한 현실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지만 엄마의 짐을 조금 덜어드렸을 뿐, 후회는 없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림을 하고, 동생들을 챙기느라 녹초가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아픈 적은 없었다. 엄마를 도와드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을까. 중매로 만난 남편과 타향살이를 하면서 나의 잔병치레는 시작되었다. 그때 엄마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엄마는 조금부터 새우젓, 쌀, 생선 등등 좋은 식재료들을 알뜰히 보내주셨다. 상자가 터지지 않도록 몇 번이나 테이프로 감아서 붙였을 엄마의 손길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했다.

고단한 날에는 엄마가 즐겨 드셨던 청국장을 꺼냈다. 가을에 수확한 백태를 푹 삶아 따뜻한 아랫목에 두면 방 안에 구수한 냄새가 슬슬 피어올랐다. 겨울바람이 불 때 가족들이 모여 앉아 뚝배기에 손두부와 애호박,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청국장을 먹으면 행복했다. 고향에서 길어 올린 추억은 비좁은 부엌에 서 있는 내게 위로가 되었다. 열무김치를 넣고 비벼 먹으면 밥 두 공기는 거뜬했다. 그렇게 키운 뱃심으로 낫설고 두렵게 와닿았던 도시에 정을 붙이며 살았다.

남편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서울에 온 지 십 년 만에 고향에 갈 여유가 생겼다. 밤새 무궁화호 막차를 타며 차창에 엄마의 얼굴을 그리고 또 그려보았다. 소녀 시절로 되돌아 간 것처럼 설레었다. 어스름한 목포역에 내려 선착장으로 향했다. 뱃길을 지나는 동안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올랐다. 선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청명한 아침 햇볕을 받아 눈부셨다. 어렸을 때에는 농사일만 해서 바다를 볼 겨를이 없었다. 섬에 도착하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 모래밭의 고운 빛깔 너머로 붉은 해당화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작은 어선 위에서는 멸치털이가 한창이었다. 어부들이 그물을 힘껏 털자 멸치들이 경쾌하게 튀어올랐다.

도로가 놓인 덕분에 택시를 타고 한 번에 집 앞까지 갔다. 대문을 열자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엄마, 나왔어.” 이 말 한 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타지에 살면서 단 하루도 마음 깊이 엄마를 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지. 엄마는 소태나무껍질 같은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었다.

마루에 앉아 있으니 엄마가 하얀 그릇을 들고 나왔다. 놀랍게도 그것은 커피였다. 아직 시골 사람들에게 커피가 생소하던 시기여서 엄마가 커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속이 안 좋은 엄마가 자신을 위해 커피를 샀을 리 없었다. 어떻게 커피가루는 구했지만 잔에 따라 마시는 것까지 몰랐던 엄마는 집에 있는 대접에 커피를 부었다. 찻물에 비친 엄마의 얼굴이 일렁거렸다. 그 안에는 밍고랑 같은 삶의 주름이 있었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천 길 물속 같은 엄마의 지난날이 담겨 있었다. 목이 메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서울에 오자마자 꽃문양이 새겨진 예쁜 커피잔을 사서 시골집에 보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잔을 사용하지 못했다. 골병든 몸이 더이상 버티지 못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겨우 몸이 호전되어 집으로 모셨다. 간만에 엄마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였다. 어서 빨리 드시게 하려고 엄마에게 다가갔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뇌경색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엄마는 코에 호스를 꽂고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우리 칠남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비쩍 마른 살갗이 뼈마디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이 내가 본 엄마의 마지막이었다.

지금도 커피를 보면 가끔씩 엄마 생각이 난다. 그리고 함께 일구었던 밭도 떠오른다. 단발머리 여중생 때부터 내 삶의 신조는 정직이었다.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어서였을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빛과 물을 머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내어준다. 과장도, 숨김도 없이.

작은 섬마을이었던 내 고향도 많이 변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천사대교가 개통되었고, 아스타콧이 피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드는 곳도

있다. 다만 수많은 섬들 사이사이를 휘돌아 흐르는 해수와 마을을 감싸안은 산자락만큼은 여전하다. 나와 엄마와 내 아이를 관통해 영원까지 이어지는 풍광. 고향은 언제나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젖줄이 되었고 내 몸피를 키웠다. 선물로 드렸지만 내게 돌아온,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커피잔. 찻물을 부으면 등대의 등명기처럼 환히 빛났던 그 얼굴이 차오를 것만 같다. 나를 이끌었던 어머니가 보고 싶다.

장려

어머니의 초상

양성자

이순 나이가 되거나 내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닭모를 통증이 온 몸을 돌아다닌다. 밤마다 술한 불면도 함께 한다. 주체할 수 없는 졸음에 툴툴이 쪽잠을 자며 지냈던 지난날들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숙면을 취하는 날이 드물어진다. 푸르스름한 새벽을 밀고 들어오는 반짝이는 햇살이 오늘처럼 반가운 적이 없다. 뜬 눈으로 지낸 밤의 무게가 가뜩이나 무거운 어깨를 내려앉게 했다.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새벽 모자를 눌러 쓴 채 무작정 현관문을 나선다. 익숙한 숲길을 오른다. 손곡천을 따라 걸어가다 산을 만났다. 촘촘한 아파트 도시에 섬처럼 그 산이 숨어 있었다. 야트막한 둔덕과 완만한 능선이 산책 겸 운동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었다. 완만한 능선을 지나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 폐 속 깊숙이 드나드는 솔향기는 산책의 묘미에 한층 더 빠져들게 한다. 이슬 젖은 흙은 좀처럼 일어날 줄 모르고 아직 깨지 않은 숲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곤 한다.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암자를 찾아 들어간다. 어제 밤 잠깐 눈을 붙였을 때 어머니 꿈을 꾸었다. 은은한 절간 향내에 어머니 냄새가 배어져 있는 것 같다. 공양주 보살 두 분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내 시선이 보살들의 하얀 고무신을 따라 더 바빠지는 것은 어쩌면 낯설지 않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마주하는 듯 마음이 푸근해지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당신이 다니시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을 도우러 가셨다. 후덕한 품성으로 절을 찾는 모든 이에게 항상 넉넉한 웃음으로 대하셨다. 낮게 깔리는 스님 염불이 이어진다. 낭랑히 울리는 독송은 무념의 세상으로 안내 해 주는 것 같다. 귀를 열고 절 마당 한 귀퉁이 나무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바지랑대에 승복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절에 가셨으리라 짐작했다. 9남매의 맏며느리로 들어 선 어머니 집에는 항상 먹을 거리가 부족했다. 한국전쟁으로 다리를 절게 된 아버지는 마땅한 직업을 얻지 못했고 부모가 물려준 작은 대추밭을 기반으로 어렵사리 그 큰살림을 일구어 가고 있었다. 7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대추밭을 오르내리는 어머니를 큰스님이 불렀다. 절에 딸린 작은 밭을 가꾸어 달라는 부탁을 시작으로 절의 행사 때마다 어머니는 일손을 보탰다. 그 때마다 스님의 넉넉한 배품이 이어졌다. 당신 며느리가 되어 처음으로 큰 스님을 뵈러 가던 날, 부처님이 우리 식구 다 먹여 살렸다면 큰스님과 인연을 말씀 해주셨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시면 어머니는 평소에 가고 싶었던 절에 들르자고 하신다. 아들은 매일 절에 가시면서 무슨 여행까지 절에 가냐고 지청구를 날리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 절에 차를 주차 시키곤 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촛불을 켜고 등을 달았다. 한 번도 당신이름으로 등을 다는 일이 없었다. 당신 이름으로 달자고 하시면 내 곧 부처님한테 갈 건데 괜찮다며 휘휘 손을 저으셨다. 수십 년 전 기억들이 일어나 기지개를 켜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절 마당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기도 하고 대웅전 뒤를 아이들은 돌아가며 뛰 놀았다. 탑에 기어 올라갔다 할머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지만 까르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할머니에게 절은 고단한 육신을 잠재우는 안식의 집이었다면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할머니가 계신 곳이었다.

자연스레 대웅전으로 들어선다.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부처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본다. 상투처럼 묶은 머리에 소라껍데기 모양 머리털이 촘촘하다. 긴 타원형 얼굴에 좁은 이마 중앙에는 작은 구슬이 도드라지게 박혀있다. 이목구비는 물결치듯 내려 보는 버들잎 같은 눈매와 돌출한 광

대뺨에 눈썹부터 날카롭게 이어진 삼각형 콧날, 앙다문 입술과 움푹 파낸 입 주변과 힘을 주어 당긴 턱, 콧볼을 뚫은 양 귀는 목 부분까지 길게 늘어졌다. 부처님은 눈을 내리깔고 얇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 미소사이로 어머니 모습이 스쳐 간 것은 순간이었다. 부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애로움과 평안함을 느낄 것만 같았다. 안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다시 들어 설 것만 같은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어머니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함께 한 세월 살갑게 모시지 못한 죄송함에 마음이 울컥해진다.

무릎과 손바닥은 부처님 앞에 시주하느라 볼품없어졌지만 염주는 108배와 함께 한 세월애 반지르르 윤이 흘렀다. 당신의 평안보다 자식들과 다른 사람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 하던 어머니였다. 옆자리에 회색빛 범복을 입고 절하는 보살님이 눈에 들어온다. 어머니는 절에 가실 때마다 깨끗이 세탁한 승복을 입고 가셨다. 돌아오시면 승복은 주름지고 잔뜩 구겨져 있었다. 백팔배로 무릎도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어찌 우리 자식 잘 살기만 바라겠느냐. 다들 잘 살아야지.’

부처님 마음 같았던 어머니 목소리가 목탁 소리에 실려 울려 퍼지는 것 같다.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 꾸미지 않았던 어머니.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좋아 하셨던 부처님 곁으로 가신 어머니가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며 절하는 모습이 내 눈 속으로 아슴아슴 스며든다.

장려

내 생애 가장 빛나던 날들의 추억

이정화

나는 대학교에서 “생태 문학”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 수필을 빌어 나는 “내 생애 가장 빛나던 날들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한다. 우선 나의 전공은 영문학이다. 내가 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시계를 36년 전으로 돌려보겠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전학을 해서 어머니가 졸업하신 초등학교에 다니기를 학수고대하셨다.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은 초등학교를 떠나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어머니가 졸업하신 학교로 이사와 동시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을 좋아해서 별명이 “개구쟁이”였고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해서 “악동”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는 암전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지내곤 했다.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와주기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그래서 늘 애가 났다. 속이 상했던 나는 어머니에게 전학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고 전에 다니던 학교와 친구들이 늘 그리웠다. 그 때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셔서 일기장을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셨고 선생님께서 내 일기장을 늘 친구처럼 봐주시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다. 선생님이 친구가 된 듯한 나는 기분이 들떠서 그날 바로 일기장 한 권을 사서 나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일 다른 이야기를 일기장에 쓰려니 매일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했고 새로운 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극장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소풍도 가면서 나의 일기장은 어느새 새로운 일과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바꿀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바로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전국 어린이 백일장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나는 4학년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백일장의 주제가 ‘꽃’에 대한 것이어서

내가 옥상에서 키우던 채송화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하였다. 채송화에 맺힌 이슬에서 엄지 공주를 발견했다는 어린 아이의 상상력으로 가득한 글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과는 전국 2등상이었고 당시 1987년에 상금으로 5만원과 메달을 수여 받고 학교 전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 상을 계기로 나는 학교의 스타가 되었고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친구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늘 학교 대표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에 참석했고 늘 상을 받았다. 나의 문학적 재능은 우연한 일기장 쓰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내가 쓴 일기장은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던 것이다.

영어를 좋아했던 나는 주저없이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했고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에게 생태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때의 일기장 쓰기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당시 내가 기르던 채송화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부모님이 사주신 채송화 씨앗을 작은 텃밭에 심어서 물을 주고 꽃을 피우게 된 채송화가 이렇게 나에게 큰 선물을 해줄 줄은 몰랐다.

내가 강의하는 생태 문학 수업은 생태 문학 고전과 생태 시, 생태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수업의 목적은 디지털 기기와 친구 되기가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암기 과목이 아닌 수업이라 학생들은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느낌의 미학을 경험해본다. 어린 시절 읽어 보았던 『정글북』을 다시 읽어보고 한국의 생태시를 감상하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보면서 매주 과거-현재-미래의 자연을 느껴보는 체험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나의 전공인 영어 과목 수업의 경우에는 어휘나 문법 전달이 수업의 목표이지만 자연의 문제를 다루는 생태 문학 수업은 지식 전달만이 목적이

아니기에 “슬로우 라이프” 그리고 “Slow is beautiful”의 마인드를 학생들에게 심어준다. 학생들에게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을 소개하고 왜 영화 <아바타>(Avatar)가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태 이론과 더불어 영화 곳곳의 장면들과 스토리를 설명해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 데이비드 소로우(David Thoreau)가 쓴 『월든』(Walden) 속 콩밭 농사와 호숫가 옆 오두막집의 전원 생활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으면서 자연이 베푸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본다면 스스로 앓아간 행복의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자연과 환경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릴 적 몸이 많이 아팠던 나는 약손 할머니 손에 의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시골에서 유아기를 보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아주신 개구리를 먹고 메뚜기를 잡고 소가 송아지를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어린 꼬마는 자연의 신비함에 늘 하루가 신이 났었다. 그때의 자연과 친구가 되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의 문학적 감수성은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쁜 꽃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산에서 만난 토끼를 손수 잡아서 포옹을 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내 마음은 점점 부자될 수 있었다. 작년에 나는 교원 강의평가(생태 문학 대상)에서 만점을 받아서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다. 영어 과목이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결과이다. 또한 생태 문학과 생태 영화 연구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는 등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나는 이 모든 원인들이 내가 어린 시절 즐긴 자연과의 교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인생은 언제나 하나의 계기가 모여 사건이 되고 그 사건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생태 영화와 관련한 인문학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역민들

이다.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전업 주부로 살아오시다가 자녀들을 출가하셔서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수업을 들으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평균 연령은 70세인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지금의 나이가 꿈만 같고 지난 시간이 마치 현실 같이 느껴져서 인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 그분들에게 내가 소개하는 자연은 그분들의 억울함을 사라지게 하는 치유제가 되어주곤 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싫어할 이는 아무도 없기에 자연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나는 종강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코스모스, 해바라기, 봉선화, 부추 씨앗을 선물해드렸다. 수업으로 만난 인연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므로 나와 그분들의 인연은 그 씨앗들이 계속 이어줄 것이다.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은 아직도 나에게 식물들이 성장하는 사진을 보내 주시는데 식물들의 성장을 지켜보시면 마치 삶의 에너지가 생겨나시나보다.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일 단꿈에 젖어계신 분의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신 듯한 설렘으로 가득한 표정이다.

남은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할지는 나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늘 자연과 함께 일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영리 추구라는 본질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지나친 환경 개발은 사람들의 쉼터를 앗아가고 쉼터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 보호와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길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려

자연과의 약속

강미숙

- 대竹

속살 파는 엄동에도 허공을 열고 서서
몸 깎는 한풍에도 변치 않는 둥근 맹세
다 발린 뼈대 딛고선 가슴 속이 하얀 엄니

- 낙엽

얼마나 고요하기에 저리도 빛나는가
얼마나 가벼워야 저리 쉽게 손을 놓나
몸 던져 녹음을 다시 부를 밑거름이 될 보시

- 벌채

나무들이 울면서 울창한 숲을 떠나
새들은 몸져눕고 안개가 수의를 든다
나무는 빈손으로 돌아와 기억만 뜯어먹는

- 호박씨

뿌린 씨에 떡잎들이 각질을 우지끈 깬다
고요히 엮드리며 두 팔을 벌리고는
언덕을 온통 다 덮을 자서전을 품는다

장려

선택

오순임

내가 인생에서 첫 번째로 잘 한 선택은 평생직업인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치기로 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못 했다. 전공인 수학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 졸업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범대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에게 다른 길은 열리지 않았다. 2년 동안 여전히 나는 과외와 학원을 전전하고 있었고 언젠가 부터는 이렇게 불안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내게 이미 합격한 대학동기가 “너 여기서 뭐해?”라고 비수를 찌르고 갔다. 학교 때 별로 친하지도 않던 친구였는데 내신세가 안되어 보였는지 진심어린 걱정을 해 주고 간 것이다. 결국엔 그 일이 다시 임용고시 공부를 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한몫을 했다. 너무나 잘 키워 주신 두 분이었는데 나 몰래 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이런 불효가 어디 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다. 만약 내 자식이 임용고시에 합격한다면 춤을 추며 살 것 같다.

또 소셜 포지션 라는 사회적 위치에 대해 곰곰 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명칭이 학원강사, 과외선생님보다는 교사가 나을 것 같았고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 인생 뭐 있어, 1년 딱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일에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믿고 일 년간 임용고시 공부를 했다. 정말 하루 14시간씩 공부했다. 집과 가까운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친구도 별로 안 만난 것 같다. 나중에는 정말 도를 닦는 수제자처럼 수학이라는 과목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수학이 이렇게 마음을 순화시키는 학문

이었구나. 그해 임용고시에 응시했고 다행인지 뻔은 인원도 그 전 해 보다 훨씬 많았다.

드디어 합격발표가 있던 날, 직접 대구까지 가서 명단을 보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다. 꿈만 같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다. 친구들도 내 합격이 믿어지지 않는지 좋겠다며 응원해 주었다. 이후로는 정말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렸고 난 어딜 가나 선생님으로써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는 지금 30년째 하고 있다. 나름 목표는 정년까지 해 보는 것이다. 정년까지 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가르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30년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 왔으니 남은 10년쯤이야 하며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다. 요즘 교단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직업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곳이라 항상 희망이 보인다. 임용고시 합격하고 내 친구가 “아마 넌 니 동계중 제일 오래 할 거야”라고 농담같이 얘기했는데 어쩜 그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 한 선택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다.

솔직한 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별로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30세에 접어드니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하나 둘씩 결혼을 해 버려 혼자 남게 되었다. 결혼을 해야 하나? 사람도 없는 데? 하며 고민하던 중 교사 생활 4년차에 정교사 연수가 한 달간 합숙으로 하게 되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합숙을 하면서 몸도 안 좋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웬지 남편이 자꾸 눈에 들어 왔다. 얌전해 보이고 좀 안 되어 보이고 뭔가 내가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남편과 나는 이미 같은 학교를 졸업해 얼굴도 알던 사이고 학창시절 때도 나름 괜찮은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나와 그의 인연은 전혀 생각도 못 했다. 그 와중에 학교 후배들이 모임 자리를 자주 만들면서 남편을 알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 든 생각은 ‘왜 저렇게 괜찮은데 사람이 없지?’, ‘나랑 맞을까?’ 이런 고민만 하던 차에 역시나 결정적인 자리가 만들어졌다.

합숙을 하고 매주 구미에서 안동을 와야 하는데 어찌다 보니 남편차를 얻어 타고 왔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같이 타던 후배 둘이 쪽 빠지고 둘만

타고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근데 이 사람은 보기와 다른 사람이었다. 보기에는 어둡고 조용해 보이지만 막상 얘기해 보니 툭툭하고 낙천적이며 이 사람과 살면 세상을 참 재미있게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의 조언도 한몫 했다. 가정적일 것이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할 것이고 리드할 줄 아는 리더십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살아갈수록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거라 했다.

막상 살아보니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실망감을 안 주니 친구들의 말이 맞을지도, 우리는 그 후 6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딸 둘 낳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을 만나 건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척척 해결해 주는 남편 덕에 이 험한 세상 무난히 지금까지 잘 살아 왔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둘 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세 번째로 잘 한 선택은 수필쓰기 강좌를 들은 것이다.

글을 쓴다는 건 나에게 항상 큰 숙제였다. 오죽하면 대학 때 전공이 너무 어려워 문예 창작을 전공하고 싶어 서울로 가려 했을까 그때 엄마가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아 포기했는데 항상 문학의 꿈은 내 가슴 어딘가에 묻어둔 아련함이었다.

혹시나 있지도 않은 재능을 가지고 헛된 꿈만 쫓는 건 아닌지, 혹시나 나도 한비야나 김남희 같은 여행작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올해 9월, 애들도 모두 학교 때문에 집을 나가고 둘이만 있다 보니 시간도 많고 해서 이육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학교 수필쓰기 강좌를 듣게 되었다. 신재기 교수님이 강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으며 수필쓰기도 재능이 아닌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그리고 상금이 많은 공모를 노리지 말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예지 등단을 추천해 주셨다. 지금까지 내가 듣던 강좌와는 너무 달랐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수필을 직접 쓰시는 분의 이야기라 더 와 닿았는 것 같다. 그래, 글을 쓴다는 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구나, 내가 가진 문화생활 체험을 자료로 쓰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덕인지 몰라도 난 10월초에 열리는 이육사 백일장에서 감사하게도 수상자에 드는 영광을 안았다. 비록 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50년간 안온 문학의 꿈을 피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큰 꿈은 없다. 내가 자주 쓰는 블로그에 글을 잘 올렸으면 좋겠고 가끔씩 글쓰기 대회에 나가 상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된 수필 한권을 출판하고 싶다.

생각만 하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순간을 겪어 본 사람만 알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의 카톡과 카스의 대문 문장은 ‘인생, 그래 한번 도전해 보지 뭐’이다. 뭐든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가치관의 선택, 앞의 두 가지는 참 운 좋게 이루어진 것 같다. 가치관의 선택은 앞의 두 가지가 이루어져 얻게 된 선물인 것 같기도 하다.

‘인생, 그래 한번 도전해 보지 뭐’ 이게 바로 나의 가치관이다.

인생에는 선택할 기회도 많이 오고 도전해 볼 기회도 많이 온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이 안 설 때도 있지만 세상에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0세 인생시대, 이제 반박에 안 온 나의 인생에서 이 가치관은 남은 인생의 중요한 등불이 되어 줄 것 같다.

2023 청소년평화생명백일장

입상자명단

상급	성명	학교 / 학년	장르	입상작
대상	이하은	신남고등학교 / 2학년	산문	어떤 용기는 노래가 되어
장원	임 준	전인고등학교 / 3학년	시	나의 꿈
	이하윤	김화여자중학교 / 2학년	산문	나의 소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
차상	허민영	기린고등학교 / 2학년	시	자연 속 주인공 이야기
	유하은	북평초등학교 / 1학년	시	한국은 한국
	문서정	중앙초등학교 / 5학년	산문	다양한 나의 꿈
	염유은	우석중학교 / 2학년	시	한여름 엔딩 크레딧
차하	한동우	기린고등학교 / 1학년	시	그대들과의 맹세
	최윤영	중앙초등학교 / 5학년	시	솔직하게 말할래요
	박경리	근화초등학교 / 6학년	시	부모님같이
	조아라	함백중학교 / 2학년	시	자연과 나 혼자만의 약속
	홍찬우	양구고등학교 / 1학년	산문	신낙원(新樂園)
	김혜리	해람중학교 / 1학년	산문	꿈
	박서진	청양초등학교 / 6학년	산문	북한 친구에게
	유태환	청양초등학교 / 6학년	산문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
장려	고재용	중앙초등학교 / 5학년	시	꽃과 약속
	박무영	중앙초등학교 / 5학년	시	지키자
	김민이	중앙초등학교 / 5학년	시	그림
	박서영	삼척여자고등학교 / 1학년	시	계절과의 약속
	박소정	신남고등학교 / 1학년	시	견우와 직녀
	임가람솔	해람중학교 / 1학년	산문	공해 속 퀵 - 글루온 플라즈마
	이강웅	춘천고등학교 / 1학년	산문	휴전선 이북,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내 또래 청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지아	용대초등학교 / 4학년	산문	북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박지오	근화초등학교 / 6학년	산문	북한의 친구들에게
	황수빈	석정여자중학교 / 2학년	시	나의 꿈

대상

어떤 용기는 노래가 되어

신남고등학교 2학년 이하은

흐린 안개가 걷히면 날카롭게 영킨 쇠붙이들이 보입니다. 당신은, 저 너머에 있습니까? 나는 안개 넘어, 철조망 넘어 그곳이 궁금합니다. 4km 거리가 이리 아득한지 몰랐습니다. 몇십 년을 내달려도 결코 닿지 않는 그곳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내가 좋아하는 시의 구절입니다. 한 시인은 그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시를 적어 그 소망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조화(調和)의 부재 속에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그것이 부재인지 깨닫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아! 시 한 구절 함께 읊고 싶습니다. 진심은, 사실 어떤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맞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혹시 평화가 죽은 자의 뉘새가 어떤지 아십니까? 흡사 시체와 같습니다. 그 뉘새에서는 미래, 희망, 생명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됩니다.

평화가 죽어간다는 그 공포가 나를 자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미래를 그려 보기도 했고, 희망의 노래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었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그대여. 우리 약속합시다.

꿈꾸길 포기하지 말자고,

세상이 자꾸만 숨기는 평화를 계속 확인하자고,

끝없이 서로의 근황을 궁금해 하자고,

서로를 잊지 말자고.

장원

나의 꿈

전인고등학교 3학년 임 준

우리 마을 작은 극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뵈러 극장으로 갔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밝게 빛날 아버지를 상상하며
기대를 머금은 채 자리에 앉았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배우들이 공연을 시작했다

공연이 끝나도록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는 어두워졌다

관객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뒤를 따라 극장을 나가려던 찰나였다

“아들.”

무대 뒤편 가장 어두운 곳
조명을 끄고
땀에 젖은 채 사다리를 내려오는 사람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
모두를 화려하게 비춰주는
누구보다 눈부신 사람

우리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장원

나의 소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

김화여자중학교 2학년 이하윤

보름달이 뜨는 밤이나 생일 초를 불기 전 누구나 한 번쯤은 소원을 빌어 본 적이 있을 테다. 그 소원이 누구한테는 소박하고 작은 것 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나의 소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나의 소원은 통일이다. 나는 서울보다 훨씬 북한에 가까운 철원에 살고 있다. 그래서 훈련 때문에 종종 총소리가 들린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도 나오곤 한다. 그런 뉴스를 보면 괜히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닐까 두려워진다.

얼마 전 책을 보다가 이산가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책을 읽다가 마음이 찡해진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나는 그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죽기 전까지 함께한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도 평생 못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들린 잔인하고 무자비한 총소리에 가족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는 가족들과 평생을 떨어져 지낼 수 있을까?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나의 대답은 “NO”이다. 그렇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정하게도 지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아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더욱 마음 아픈 사실은 이산가족 분들은 서로 살아계신다는 소식 또한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산가족 분들도 평범한 가족들처럼 지금까지 화목하게 잘 사셨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이산가족 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바로 70여 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 한 끼 먹는 것. 보통 사람들은 꿈만 들으면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꿈이다. 우리가 평소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족과의 순간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 왔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할 때의 모습을 자석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N극과 S극이 만날 때처럼 찰싹 붙어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분들은 S극과 S극이 만날 때처럼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 N이 North korea, S는 South korea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N극과 S극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석처럼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차상

자연 속 주인공 이야기

기린고등학교 2학년 허민영

언덕 위에 피어난 해는
아침 이슬에 빛나는 보석 같았다
그 아름다움은 마치 천사의 미소 같았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숲 속으로 들어가면
나무들은 우리를 환영했다
나무의 가지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험을 시작했다

강은 저녁노을을 따라 흐르고
갈대와 물고기가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자연은 우리를 품에 안고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산꼭대기에서 바라본 별들은
무수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우리는 자연의 무한한 신비로움을 느끼며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차상

한국은 한국

동해 북평초등학교 1학년 유하은

신발.

장갑.

우리는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왼쪽 장갑 오른쪽 장갑이라고 하지 않는다.

엄마는 신발을 신으라고 하지 오른쪽 신발 신으라고 하지 않는다.

아빠도 장갑을 끼라고 하지 왼쪽 장갑 끼라고 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남한 북한이라고 나누어 부를까?

우리가 그냥 신발, 장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차상

다양한 나의 꿈

강릉 중앙초등학교 5학년 문서정

사람마다 꿈이 있고 소망도 있다. 이 글에 오늘은 내 소망으로 생긴 꿈 (장래희망)을 쓰려고 한다.

제일 먼저,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살고 싶고, 그래서 건강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젊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생명과학 연구원이란 꿈이 나의 마음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난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대단하시고, 말 안 듣는 학생들까지 잘 교육하는 책임감 있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나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멋지게 가르치고, 사랑을 주며 성장하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 소망 때문에 그때부터 선생님이란 직업이 마음속의 한 자리를 또 차지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생명과학 연구원, 선생님이 자리 잡고 있던 셈이었다.

세 번째, 나는 피아노를 좋아한다. 엄마가 나보고 절대음감이라고 한다. 피아노의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빛이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다. 또랑또랑한 피아노 소리는 노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될 수 있고, 내가 곡을 생각해서 칠 때마다 뿌듯한 느낌이 있다. 지금까지는 신곡들을 내가 아는 느낌으로 많이 쳤다. 내 마음을 빛으로 채우는 피아노가 좋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피아니스트 또는 아이유 같은 사람도 되고 싶다.

네 번째, 아나운서도 되고 싶다. 나는 뉴스 같은 곳에서 설명하는 아나운서가 눈에 띄었다. 아나운서는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티비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훌륭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소식을

알려주는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이 티비에 나오는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다섯 번째, 우리는 티비를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만 볼 수 있다. 그때 만화를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 그때 유튜버를 보고 눈이 빛났다. 나와 동생과 사촌 동생은 평소 연기를 하거나 진짜 올리진 않지만 영상도 찍는다. 그런데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으니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유튜버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도 머릿속에 추가되었다. 이것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 중요한 것 5가지만 뽑아보았다. 우리 아빠는 우리를 데리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라고 서울을 자주 가는데 키자니아라는 직업 체험 장소도 가보았다. 가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니 다 너무 좋은데... 뭘하지? 아무래도 아직 하나만 선택하지는 못하겠다. 나의 소망이 깃들어진 꿈은 모두 소중하다. 더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모두 이루고 싶다. 근데,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꿈이 많다. 아직은 딱 이거다! 라는 꿈 하나만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꿈을 하나하나 키워갈 것이다.

나의 꿈은 소망과 같이하기에, 더욱더 언제나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사실 나의 미래가 많이 궁금하기도 하다.

오늘도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즐겁게, 힘차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차상

한여름 엔딩 크레딧

우석중학교 2학년 염유은

이야기의 종점
서서히 밝아지는 극장
다들 뭐가 그리 바쁜지
어느덧 텅 빈 객실

검은색을 뒤로 한 채
월 새 없이 흘러 올라가는,
누군가의 꿈이었을 하얀 단어들
미처 쫓아갈 틈도 없이
희뿌연 잔상만 남긴 채
영영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바깥은 여전히 여름
줄곧 잊고 있던 열기가 물씬 밀려와
손톱 새로 올려다본 하늘은
푸른 내일과 하얀 꿈 조각,
한껏 펼친 내 손바닥에
더 눈부신 손인사로 반겨주는 햇빛

고여 있던 땀방울은 아래로
입꼬리는 위로 향한 채
새까만 끝 너머는 또 다른 푸른 시작
나의 길은, 아직 온통 파란색이라고

녹아내릴 것 같은 계절
끝없이 이어질 파랑 사이를 성큼 가로질러
앞으로 펼쳐질 하양을 향해 다시 내딛으며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

새파란 한여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엔딩 크레딧

차하

그대들과의 맹세

기린고등학교 1학년 한동우

나무여 우리들이 맹세하니
우리들이 너의 삶을 지켜주겠네
그러니 그때까지만 버텨다오

강이여 우리들이 맹세하니
우리들이 너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겠네
그러니 그때까지 버텨다오

숲이여 우리들이 맹세하니
우리들이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네
그러니 그때까지 버텨다오

그대들이여 우리들이 맹세하니
우리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겠네
그대들은 그저 그날을 기다려주시오

차하

솔직하게 말할래요

강릉 중앙초등학교 5학년 최윤영

부모님께서 물어보신다.

“너는 꿈이 뭐니?”

나의 꿈은 가수지만

가수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

“간호사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

사람들은 간호사라는 말에

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누군가 또 물어보면

내 꿈은 가수라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차하

부모님같이

근화초등학교 6학년 박경리

부모님같이 미안한 지구야,
자원을 마구 쓰고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 미안해

부모님같이 미안한 지구야,
우리들의 실수로 숲을 태워버려서 미안해

부모님같이 미안한 지구야,
동물 친구들의 삶을 망가뜨려서 미안해

부모님같이 고마운 지구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부모님같이 고마운 지구야,
동물들의 집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부모님같이 고마운 지구야,
잘 버텨주고 있어서 고마워

지구야, 미안해!
지구야, 고마워!
지구야, 사랑해! 우리 부모님만큼

차하

자연과 나 혼자만의 약속

함백중학교 2학년 조아라

안녕, 오늘도 보네 항상 너흰 내 주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너넨 너희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큼 큰지 아니? 나는 너희를 보며 공감과 위로, 생각과 영감 등 다양한 것들을 느껴 내가 얼마나 다양한 것을 느끼는지 말해주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해줄게.

꽃이 바람에 따라 흔들릴 때는 나도 흔들리더라도 누군가의 바람에 꺾이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

햇살이 내 몸에 닿을땐 따뜻하고 좋다는 위로, 비가 와 우산을 쓸 땐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는 영감. 겨울이 왔을 때 서로 다른 걸 했어도 겨울이라는 계절 안에서 한 일이라 서로의 한 일과 생각이 순수하고 감성 있다고 느끼는 공감. 등등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 생각이 많을 때 너희를 보며 정리하기도 해 물론 내가 하는 생각엔 정답이 없어서 끝을 내진 못해.

왜냐면 난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하거든 그리고 매일 생각할수록 느끼는 건 흘러가는 시간과 다가올 미래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나는 아직 안정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말도 안되지만 가끔은 이대로 어른이 되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아직 너무 애 같은데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까 또 이런 생각들 말고도 사람들은 너희들의 바뀌는 모습에 감정을 느껴.

벚꽃이 피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흥분해지고 들뜨는 듯한 여름 햇살이 서서히 비치다 갑자기 뜨거워졌을 때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잠시 행복한 가을은 빨리 지나가니 나무들이 각자의 색들로 물든 걸 눈에 담고도 아쉬운.

겨울에 첫눈이 내리면 몽글몽글한 너희는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 저장소야 너희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이 너희와 연관되어 있거나 아직 그때 머물러 있거든 끝으로 나 언젠가 너희만 있는 곳에 혼자 머물러보고 싶다. 그 순간만큼은 여유롭게 거닐며 정말 잘 즐길 자신 있는데 그럴 기회가 아직은 없어.

그리고 여기 쓴 말들은 언젠가 너희에게 꼭 한번 말해주고 싶었어 매일 생각한 거니까. 아무튼 다양한 의미로 고맙고 당연하지. 앓다는 거 알고 있어 혼자라도 나는 너희 사랑할게, 사랑이라는 말 원래 잘 안 쓰는데 약속할게 진심으로

너희 위해 이 글을 썼으니...

차하

신낙원(新樂園)

양구고등학교 1학년 홍찬우

우리는 가끔씩 신록의 들판에 누워 하염없이 태양빛을 받고 싶어한다. 그렇게 하면, 따뜻한 태양광과 나무끼는 풀들의 선율에 정신을 빼앗기게 된다. 그 아름다운 연주가 끝나면 놀랍게도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은, 인생의 온갖 사사로운 번뇌에서 잠시 해방되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확실히 그 신록의 오케스트라는 아름답지만,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지금의 우리는 푸르른 고향에서 벗어나 검은 연기가 자아내는 금속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 금속음은 듣기 좋고 편안한 신록의 뉴에이지 음악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우리의 생물학적 기원은 틀림없이 자연이다. 자연은 형성된 이래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기만 하였다. 자연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절대선이며, 모든 생물의 기원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자연 속에 돌아갔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자연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다.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더 종교적인 뜻으로도 통한다. 우리는 자연의 품 속에서 살아갈 때 안정감을 느낀다. 언제나 자연은 우리를 포용해주며, 자비롭게 베풀어주는 성인(聖人)인 것이다.

우리는 보통 받은 것이 있으면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않는가? 자연과 인류의 공생 속에서, 자연은 살아갈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그 인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연 파괴의 근본적 요인은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은 비가역적이다. 기술을 아는 상태에서 기술을 모르는 상태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기술은 일종의 선악과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기술이 보다 삶의 질

을 올려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은 발전할수록 자연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자연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도 얼마든지 있으나, 해가 될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애시당초 기술이라는 선악과를 베어문 것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이미 물은 엮질러졌고 우린 그 물을 기원으로 하는 땅 위에 서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연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모든 생물들이 원초적으로 가지는 마음의 고향이 자연이다. 그중 도구를 사용하고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에 서있는 것이 인간이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멋진 본보기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랑하던 낙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더럽혀진 땅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낙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른다. 이미 스며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제부터 들어가는 불순물을 감소시키고 불순물을 정화한다. 그것을 반복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의 원리인 것이다.

당장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안 쓰는 기계는 콘센트를 빼둔다던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장만한다던가가 있다. 낙원의 건설에 건강한 자연은 필요불가결함이다.

조금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불러온다. 나비의 날갯짓은 태풍을 불러온다. 조금이라도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연의 자애로움과 자비에 감사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뀌나갈 수 있다. 과거의 실낙원에 얽매이지 말고, 신낙원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자. 우리가 만든 신낙원에서, 신록의 오케스트라를 들으며 편히 잠들고 싶지 않은가? 그 선율을 미래에 넘겨주고 싶지 않은가?

생명의 고리가 100년 간 일순하는 동안,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 함은 후대에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다. 꿈을 꿀 수 없는 내일이 아닌 꿈을 꿀 수 있는 내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호소에도 독선적인 에고이스트들은 신낙원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 당장 내가 그렇다. 자연을 사랑하지만 자기 중심적 에고이즘에 빠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합리화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찌 인간이 광채만을 두르고 살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실로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다면, 이제라도 바뀔 수 있다.

자연은 죽어간다. 자연의 죽음이 찾아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윤동주의 시를 인용하자면,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있을 터이다. 누구보다 생동감 있는 존재인 우리가 생명의 근원지를 파괴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조만간 지구에는 해일이 들이닥친다. 그 해일을 막기 위해 신낙원이라는 방주가 필요하다. 나는 그 방주에 자랑스럽게 타고 싶다. 쉽 없는 기술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파도에 휩쓸려 꿈을 꾸지 못하는 내일을 보낼 것인가? 방주의 건설을 돕겠는가?

차하

꿈

강릉 해람중학교 1학년 김혜리

할머니 집 대문을 열고 나오면 쓰여진 벽화가 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라는 글이다. 그것을 볼 때면 나의 큰 꿈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하면 쉽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잘 부르진 못하기 때문에 영상제작회사나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장래희망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

현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미래를 어찌 생각할까. 요즘에는 간단하게 MBTI로 나를 이야기한다. 그것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 나의 MBTI는 eNFP이다. 나는 사람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만나면 너무 즐겁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중인격자처럼 다른 사람이 된다. 집이 정말 좋고 다시 나가기 싫어진다. 나는 16가지 MBTI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다시 나의 꿈으로 돌아온다면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살면 좋겠다. 잘사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수가 적었으면 좋겠다. 내가 의지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버킷리스트 1순위인 내 최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다. 앞에 너무 감성 있게 쓰다가 이게 무슨 말이나 싶지만 뭐 사실 이것만 이루면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생각될 것 같다. 나에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좋아했던 아이들이 있다. 사실 거의 데뷔 때부터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떤 영상만 봐도 설레었다. 현재는 좋아하는 감정은 같지만 편안함을 더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건사고

가 하나도 없었다. 그 멤버가 사건을 터트렸을 때 정말 내 세상은 무너지는 줄 알았다. 밥도 안 먹고 24시간을 울었다. 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팬과 아이들이 더욱 돈독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처럼 이 덕질은 내 삶의 전부이다.

어떤 삶을 살아도 아쉬울 것 같지만 위에 쓴 꿈들을 이루면 이 정도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사실 큰 꿈이나 작은 꿈이나 이루면 그 성취감은 비슷할 것 같다. 나의 최종적인 꿈을 정리하자면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고 싶다. 꿈을 꾸다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자 희망이니깐.

차하

북한 친구에게

청양초등학교 6학년 박서진

안녕? 북한 친구, 나는 청양초에 재학 중인 6학년 박서진이야. 직접 봐서 편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얼른 통일이 되어 만나서 떡볶이도 먹고, 마라탕도 먹고 싶다.

우리 학교, 청양초는 특별한 통일 연구학교야. 그래서 통일에 관심도 많고, 북한에도 관심이 많아서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북한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곽밥’이야. 왜 좋아하나고? 이유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된 북한말이거든.

또 이 학교를 다니면서 통일 현장 체험을 많이 다녔어.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땅도 직접 두 눈으로 봤었고, 북한 사람도 봤지. 그리고 통일 교육도 많이 받았단!

내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즘 뉴스에서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나는 핵, 폭탄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안 좋은 댓글이나 반응을 보이더라고. 사람들은 점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비록 어른들은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지지만, 어른들이 못 하는 통일을 미래 사회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남북한 어린이들이 정치, 외교, 핵, 경제 등을 다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통일을 한마음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거야. 내가 남한에서 더욱 노력할테니 북한 친구들도 힘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책에서도 봤는데 어떤 책이냐면 ‘남북공동초등학교’라는 책인데 책 내용이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비무장지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북한 친구와 남한 친구가 같이 학교 생활하는 내용이었어. 나는 그 책을 보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움, 신기함을 느꼈단다.

또한 나는 UCC라는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데, 통일 뉴스라는 콘텐츠를 만들거든. 기자와 아나운서, 진짜 뉴스처럼 운영되는 콘텐츠야.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그 통일 뉴스 아나운서다! 내가 진짜 아나운서가 된 기분이야. 내가 이 UCC 동아리에서 통일 뉴스 아나운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북한을 더 잘 알게 된 것도 있어.

그리고 텃밭 동아리도 들어가 있는데, 북한에서 자주 먹는 감자로 학교에서 ‘통일 텃밭 레시피’라는 공모전도 열었거든. 나도 집에서 감자 요리 개발을 열심히 해 보았단다. 나는 감자를 무척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하니? 얼른 통일이 되어서 감자 요리를 같이 먹고 싶어. 그리고 나 ‘왕감자’ 노래도 안다?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함께 포슬 포슬 맛있는 감자 먹으면서 왕감자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나의 긴 편지를 끝까지 읽어줘서 고마워! 나중에는 진짜 보자. 안녕.

-2023.10.20. 박서진이

차하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

청양초등학교 6학년 유태환

안녕? 나는 철원에 있는 청양초등학교에 다니는 유태환이라고 해. 초등학교는 북한 말로 소학교라고 하지? 너는 이름이 뭐니? 그리고 네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뭐야?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슨 과목을 배우니? 우리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등 여러 과목을 배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곳으로 통일, 북한에 관한 곳으로 체험학습을 가봤어. 그런데 북한에 있는 곳도 가고 싶은데 통일이 안 돼서 못 가더라.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너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여러 곳을 가보고 싶고, 이산가족 문제로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또 남한과 북한에 군사력이 합쳐지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북한에 자원도 많으니까 더 세지는 거 아니겠어?!!!

근데 북한에는 어떤 음식이 있어? 듣기로는 두부밥, 평양냉면이 있다고 하던데, 맛있어? 나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싶어! 너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말을 할 것 같니? 남한 말과, 북한 말이 합쳐지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치?

너는 남한에 오고 싶은 곳이 있니? 온다면 경주에 꼭 가봐.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신라시대의 유적물이 많이 있으니까 재미있을거야. 또 서울에도 한 번 가봐. 남한에 수도니까 꼭 한번 가보라구. 알겠지?

근데 북한에는 어떤 노래가 있어? 내가 노래 듣는 걸 좀 좋아해서 남한 노래는 많이 아는데, 북한 노래는 ‘대흥단 감자’ 밖에 몰라서…. 통일하면 꼭 여러 가지 알려주라, 알겠지?

또 너희 학교는 반까지 있니? 우리 6학년은 1반 밖에 없지만 22명이야. 너희는 한 반에 몇명이 있니?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나는 체육을 좋아하거든, 너희는 체육 시간에 무슨 수업을 하니? 피구? 축구?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나는 남한에 있는 라면이랑 피자랑 콜라를 좋아해. 나중에 만나면 서로 좋아하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어보자.

너는 ‘통일’하면 무슨 색이 생각나니? 나는 노란색이 생각나. 노란색은 웬지 희망이 느껴지는 색이잖아. 내가 질문이 정말 많았다. 우리 다음에 통일되면 꼭 만나서 밤새 수다 떨자.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안녕.

장려

꽃과 약속

강릉 중앙초등학교 5학년 고재용

장미는 사랑의 꽃
개나리는 따뜻한 봄을 알리는 꽃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우리가 꽃말 매어 주며
학교 화단의 꽃들과 했던
한 가지 약속

아껴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
예쁘고 빛나게 해주는 대신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향기를
듬뿍 뿜어주렴

장려

지키자

강릉중앙초등학교 5학년 박무영

맑은 공기 마시려면
자연을 소중히 여기자

산뜻한 바람을 느끼려면
자연을 포근히 안아주자

깨끗한 지구에 살려면
애초에 했던
자연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가자.

장려

그림

강릉 중앙초등학교 5학년 김민이

선글라스 낀 햇님
가지 없는 나무
선글라스 끼면 햇빛 없는데
나무에 가지 없으면
물이 이동하지 못하는데

자세히 보니
자연을 망치고 있는
나의 그림

장려

계절과의 약속

삼척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서영

발그레한 산속
설레는 마음의 사람들
보드라운 바람 속
분홍빛 잎이 휘날린다

다음을 약속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그들은 산을 내려온다

뜨거워진 산속
더위에 지친 이들
시원한 그늘 아래
싱그런 풀내음 날린다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정상을 향해 산을 올라간다

알록달록 산속
얼룩덜룩 마음 아픈 아이
차가운 바람 속
따뜻한 단풍 하나 내려준다

올라올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단풍잎 하나 고이 간직한 채
아이는 산을 내려온다

조용한 산속
겨울잠에 든 동물들
새근새근 숨소리에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간다

자신과의 약속
혹은 타인과의 약속
이뤄지길 바라며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

장려

견우와 직녀

신남고등학교 1학년 박소정

나는 여기에 있다
네게 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다

한 해 한 번 만나던 날
칠월칠석마저 만나지 못하게 한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비를 맞고 있지만
다음에는 칠석우를 함께 맞자구나

장려

공해 속 퀵-글루온 플라즈마

강릉 해람중학교 1학년 임가람솔

나는 다정해진 세계를 그려나가겠다는 큰 꿈이 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의 말처럼 허황된 꿈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믿는 걸 참 못하는 아이였다. 항상 의심부터 하며 결국에는 불신하는. 왜 인지는 모르겠다. 그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모두에게 마음의 벽을 두었고, 일종의 페르소나를 쓰며 나 자신을 숨겨왔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상상을 하게 되었다. 나의 색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나를. 무서웠다. 사실은 두려웠다. 나를 윤색했던 과거가 미래에 화살이 되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불행이라고. 그때부터 진퇴양난의 시기를 보냈다. 나에게 내려진 신의 벌을 발버둥 쳐서 벗어날 수 있을 리가 없다며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아는가. 수 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서 그 누구에게도 행복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나의 숙명인 것일까, 아니면 가혹한 신의 벌인 것일까. 그렇게 방황하던 중, 영화 <핵소 고지>를 보게 되었다. 작중 주인공이 하던 말. “제 신념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런 저 자신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이 말로 인해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머리로 향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신념에 충실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모색해 나갔다. 범죄가 없는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실패해도 서로 격려해 주는 세상 등등. 그 끝엔 모두의 행복이 있

었다. 단지 ‘행복’이라는 단어뿐이었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갔는지. 그리곤 생각했다.

‘모두의 행복’이라는 길의 첫걸음은 다정부터라고. 세상이 다정해지고 사람들이 다정해지면 그 끝엔 분명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기에 난 이 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설령 절체절명의 시기가 와도, 누군가 내게 이 꿈을 구실로 아픔을 줘도, 그 아픔을 이겨낼 만큼 가치 있는 도전이기에. 그 도전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용기를, 그 눈부신 용기를 이 세상에 전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내가 이 꿈을 가졌을 때 응원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앞으로도 믿을 것이다. 나는 분명 해낼 수 있다고.

‘쿼크-글루온 플라즈마’를 아는가? ‘쿼크-글루온 플라즈마’는 높은 온도로 인해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들이 쿼크와 글루온으로 녹아내린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한 마디로,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것 중 하나라는 뜻이다. 느닷없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이 ‘쿼크-글루온 플라즈마’가 아주 신기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강력으로 묶여있는 쿼크와 글루온은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한 강력으로 묶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나를 질타하는 핍박들 속에서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어쩌면 가장 뜨거운 존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꿈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꿈엔, 아직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걸어보는 나의 믿음도 포함하고 있다. 반드시 이 눈 가득 넘쳐흐르는 성실함으로 이뤄내고 말겠다.

장려

휴전선 이북,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내 또래 청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춘천고등학교 1학년 이강웅

먼저 내 소개부터 해야겠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휴전선 이남, 그중에서도 접경지역인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강웅이라고 해, 아무래도 이곳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실랑민도 많고, 아직도 휴전상태라 항상 긴장감이 감지되는 곳이지만, 지금은 대입이 코앞이라서 그런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럴 여유도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 그런 와중에 이 편지를 쓰게 됐지만, 현실을 상기하고, 직시해 주변을 한 번 둘러볼 좋은 기회라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먼저 너희들도 우리와 학제가 비슷해 지금쯤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고민 또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보면 같은 눈높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동정의 마음도 드는구나. 과거나 현재나 입시와 입사 시험이 힘들게 여겨지는 건 너희나 우리나라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장래 꿈의 실현을 위한 자기 계발 중이라고 여기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앞서 언급했다시피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따라서 휴전선 너머에 사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던 때 문일까? 지금 내가 너희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 형식을 빌려 막상 쓰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분단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도 지척인데도 심리적 거리는 엄청나게 먼 나라처럼 느껴지니 그도 그럴 것도 같고, 뭔 얘기부터 할지 막연한 것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요즘 우리는 한류나 K-POP이니 해서 전 세계 청년 문화를 선도하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는 그 문화를 전 세계 청년 친구들과 공유하며 문화 선진국이라는 부심도 충만해 있지만, 내가 듣기엔 너희

그것을 공개적으로 소비하거나 누릴 수조차 없다고 들었기에 가슴 아프기도 하거니와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

세계 공통의 문화 콘텐츠도 공유할 수 없으니 같은 세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힘든 처지다. 그러다 보니 뭐하나 딱히 꺼내서 이야깃거리를 형성하기도 그렇고 같은 조상과 역사를 공유하며 오천 년을 살아왔다지만 우리 세대에 이르러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전락하여 가슴 아프기만 하다. 그렇다고 푸념만 늘어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뭘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원래 하나였지. 분단의 원인을 논한다면 각자 처한 입장에서 볼 것이고 점점은 요원하고, 지리한 논쟁만 일삼겠지. 이런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하기에 일단 뒤로 제쳐놓고, 발전적 방향이라는 일념으로 나간다면 분단 이전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지금 개최되고 있는 각종 세계대회에 함께 출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물론, 이미 꽤 많은 시도가 있었고 기대 이상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것도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좋은 성과를 내는 법인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시류에 편승, 끌려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그것마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었기에 안타까워.

사랑하는 북한 친구들아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역이고 우리 손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우리가 기존의 것과 기성세대들의 관행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신질서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민족의 새길’을 개척하고 모색하느냐는 민족의 운명을 가를 핵심 사안이야.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나 평화의 통일을 이룰 때까지 손뼉아 기다릴게.

장려

북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용대초등학교 4학년 이지아

안녕?

나는 강원도 인제에 사는 지아라고 해. 내가 사는 곳은 어떻게 생겼니? 나도 가보고 싶어. 지금은 우리나라만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져 있어. 우리나라도 통일을 한다면 땅도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언젠가는 북한을 여행하고 싶어. 북한에는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많을 거야. 나는 빨리 북한으로 가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직접 보고 싶어. 마찬가지로 북한에 사는 너희한테도 빨리 너희가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해.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서 북한을 갈 때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기차를 타고 유럽도 갈 수 있대. 너도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지?

또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을 서로 오가며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 그리고 통일을 하면 이산가족도 사라지고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서로 만날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을 거야. 나는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언젠가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할거야.

그럼 안녕.

- 2023년 10월 26일

지아가

장려

북한의 친구들에게

춘천 근화초등학교 6학년 박지오

안녕, 친구야!

나는 남한의 초등학교 6학년 박지오야.

나는 북한에 있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우린 같은 땅을 밟대고 같은 나라에 살아가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워. 물론 어른들이 우리 땅에 선을 긋고 나누었으니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말이야. 어른들은 왜 서로 이토록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는 걸까?

너희 학교는 요즘 어때? 우리는 곧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 너희들은 금강산 아니면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니? 아, 제주도는 남한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큰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야. 자연이 아름다워서 세계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여행을 오기도 해. 얼른 남과 북의 사이가 좋아져야 나도 금강산 구경도 하고 너희들도 제주도 구경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쉬워.

공부는 어때? 너희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도 궁금해. 사실 나는 요즘 공부하기가 싫어. 이걸 너희들도 마찬가지이려나? 하하….

나는 가끔 뉴스로 북한에 있는 너희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 그런데 항상 나쁜 이야기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 안전하게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우리에게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고 전쟁 걱정도 없이 서로 즐기고 같이 공부하고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날 말이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도 단일팀으로 나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다 함께 응원을 하면 더 재미있을거야. 지금은 휴전선을 맞대고 서로 등보이며 살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의 어른들이 얼른 화해하고 통일을 해서 다 같이 희망과 평화로 가득한 학교에서 다함께 어울려 놀고 싶어.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어른이 된다면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남한에서 기다릴게. 건강하게 잘 지내. 안녕.

- 남한에 살고 있는 지오가

장려

나의 꿈

석정여자중학교 2학년 황수빈

작고 정갈한 글씨
지저분하고 휘갈긴 듯한 글씨
물먹은 듯 쭈글쭈글해진 글씨
여러 글씨들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작은 공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

여러 종류의 글자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속에서 감정들이 휘몰아칩니다
넓고 깊은 감정들의 파도에서
그저 가만히 누워있습니다

그대로 휩쓸려나가면 어떨까
그대로 흘러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27회 인제서회임서전

2023년 5월 26일(금)~ 28일(일)
인제문화원 전시관

출품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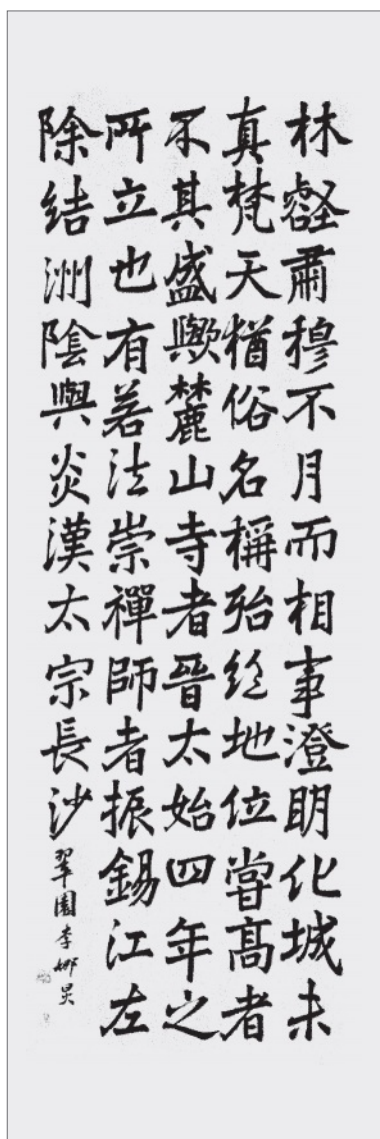
김순희	김옥화	김 향	김희수	민시홍	박정옥
사하정	서경숙	서성호	서자영	우성옥	유영희
유지영	이나경	임규현	장양희	전영옥	정길선
정숙자	조현태	지복연	한길용	한순자	한주림
홍연숙					

(이상 25명)

제 6 장

임서전

翠園 이나경



절임여사서 200cm x 70cm

翠園 이나경

과괴를오디첨업이 에어지사름의안 해오일흥난집넌이라스단이
삼가완전하고또형식스름해오단이라노공스치물인양아하가히
무엇스름만나구런이가하아름단사슴가히스모음스름시기
이것스름의의해설와스디모스름안저형아이에형을지어일흥
하야노와라형아저형아사르스름아노스름고한이게하구나만
이름이말에의지아면어스지어미되리라전사름이로양금해노천
고에아름단게아나형지나라이천이십삼불날여사서에서취원이나정

녹산사비(행서) 200cm x 70cm

고출노후시며백^白편^偏을노후사랑^兩분^分이후다안
조시니뜻이슬저지리라백^白편^偏머무드리랑^兩분^分
이같아안조시니무^無량^量건^健무테시니주거가
거시일음모모스름해모^無시리정^淨거^居터^天중^中澡^澡명^明
이조디말하노이양^兩분^分스디안그시니

제묘년 봄날
취원

절임월인천강지곡 200cm x 70cm

송은 유영희

박이숙 제충절 녀치 주속을 마다하고 장자방의 지혜 녀치
 사병 베풀며 허여스니 군주의 열치 본을 바다
 제발 그 용을 먹지 말대 장이란 놈이 큰 말이 도학 녀치도 쓸디 읊다
 안연조의 도학 녀치 습십전의 조소하고 장자방의 지혜 녀치
 적송조를 못따러가고 박이숙 제충절 녀치 적죽을 날을 물너쓰니
 예의 열치 쓸디 읊고 먹년기시 웃음이라 호다하의 보리 밤을
 유황숙이 달게 먹고 증홍황제 되여 이고

이란의 상상년 휘 불가 제 서 조다
 송은 유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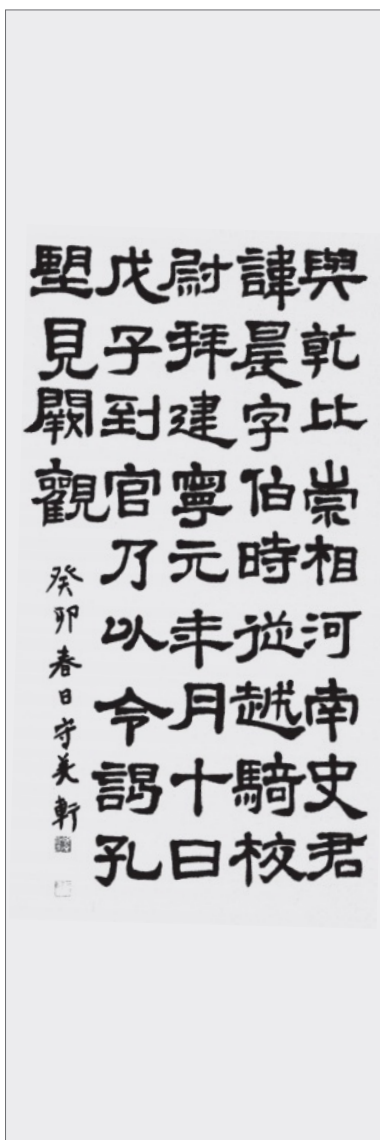
절임해몽가 200cm x 70cm

사를의 되호네를 행히니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를 행히니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그 자를 그 선그를 니으며 제 수를 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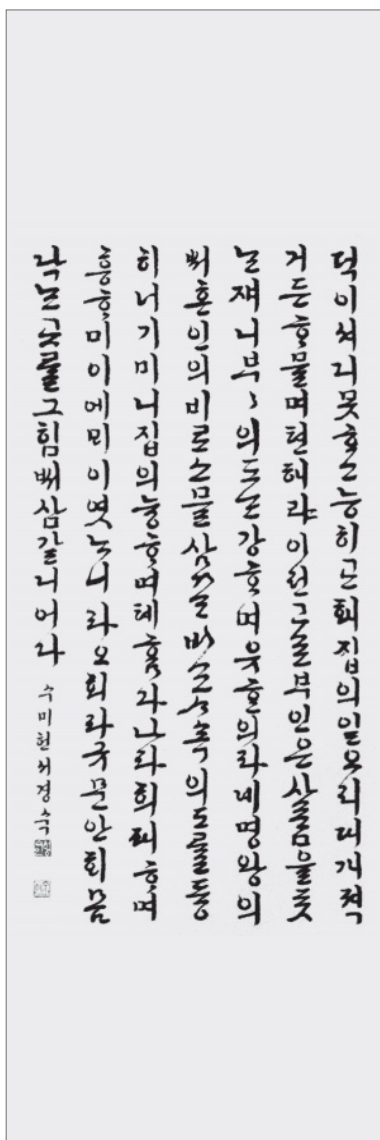
송은 유영희

절임여사서 200cm x 70cm

守美軒 서경숙



사신비(예서) 140cm x 70cm



절임여사서 140cm x 70cm

佳寧 유지영

牢長吏備爵所以尊先師
 重敦化也夫封為社立稷
 而皆百姓興利際厔以祈
 豐穰月令祀

癸卯春佳寧



사신비(예서) 140cm x 70cm

日臨臨이전일일이다섯빛치바로다니로리라만일
 그음죽이떠고요하미성할이떠로드르미섬
 화를이아들매서마리한을어지럽게이떠어려움을
 험슈록이나고나매는표표히되도를지스고만당
 이노리다아를파를노를파만당의보다아닐바
 네를만이의가아이의이전일일이다섯이떠서
 칠파로게모이이다이마그라

제27회인제서회 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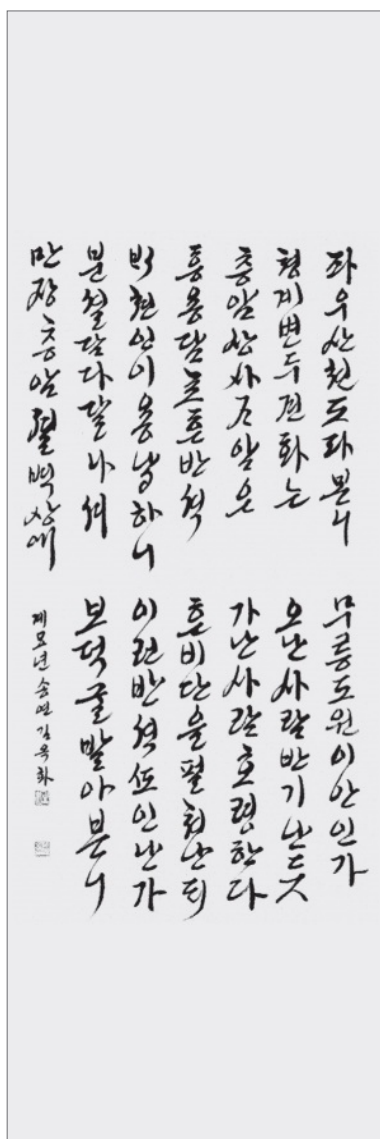
절임여사서 140cm x 70cm

꽃내 박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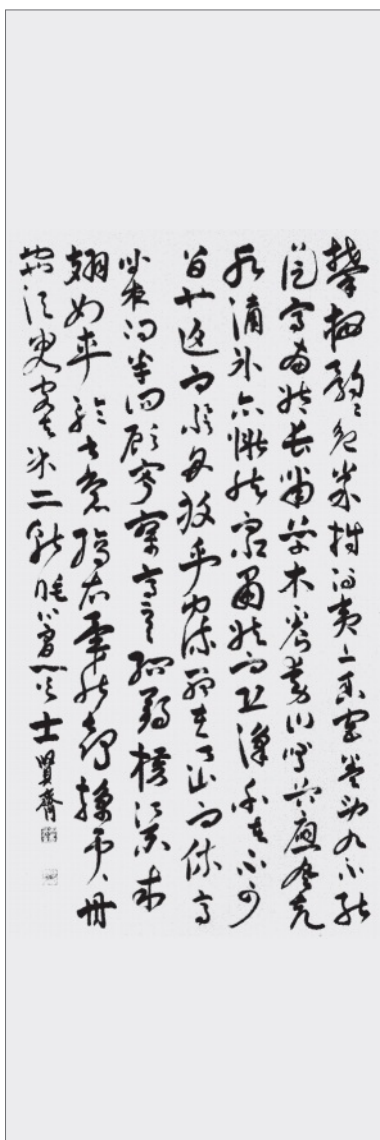
절임월인천강지곡 140cm x 70cm

송연 김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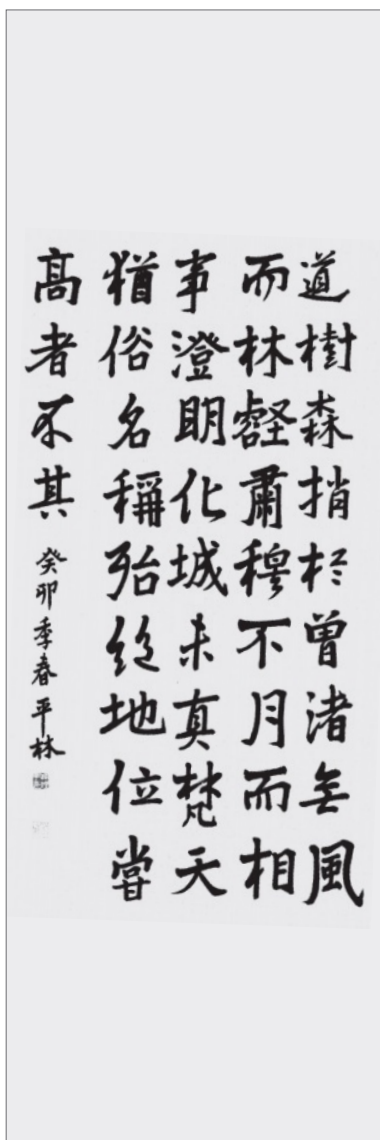
절임금강산가 140cm x 70cm

賢齋 전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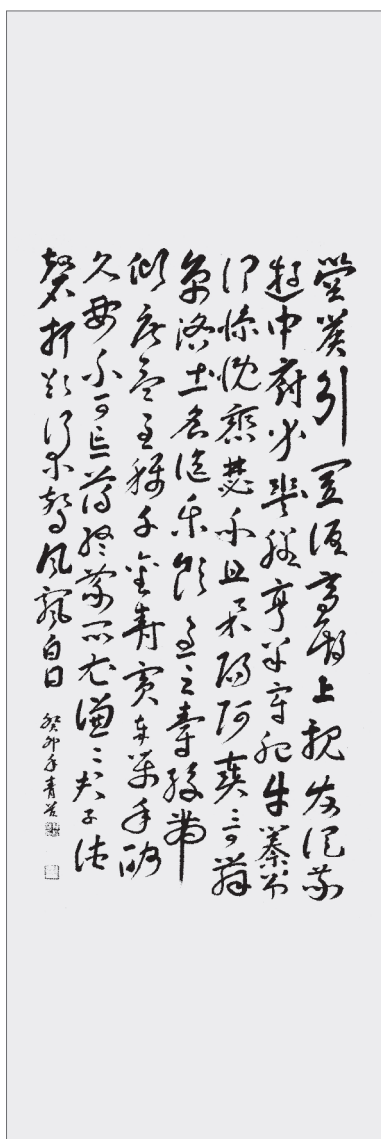
죽윤명(행초서) 140cm x 70cm

平林 한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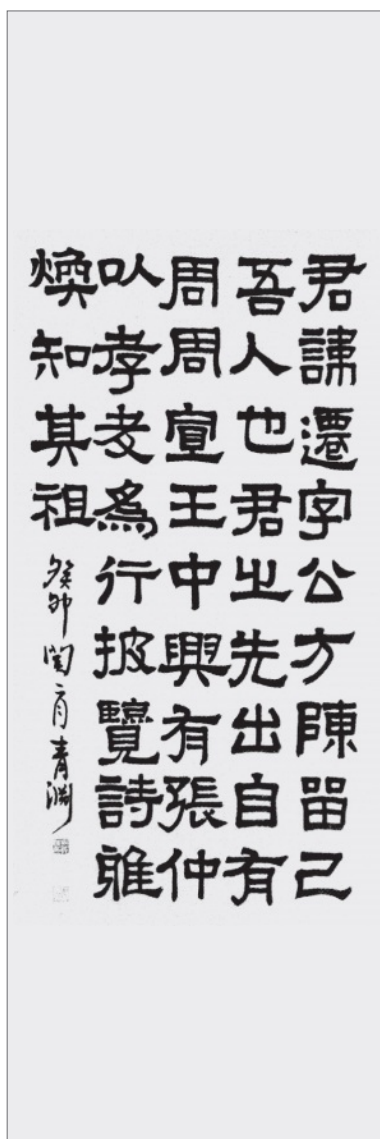
녹산사비(행초서) 140cm x 70cm

靑谷 한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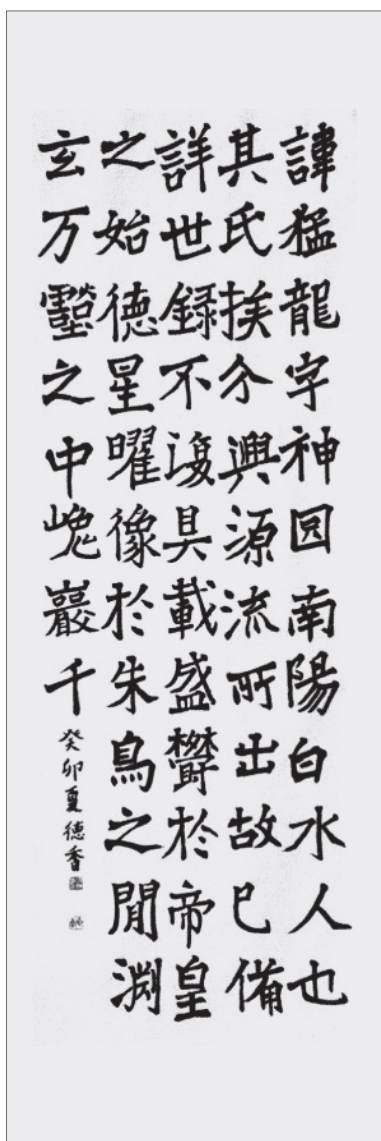
축윤명(행초서) 140cm x 70cm

靑淵 사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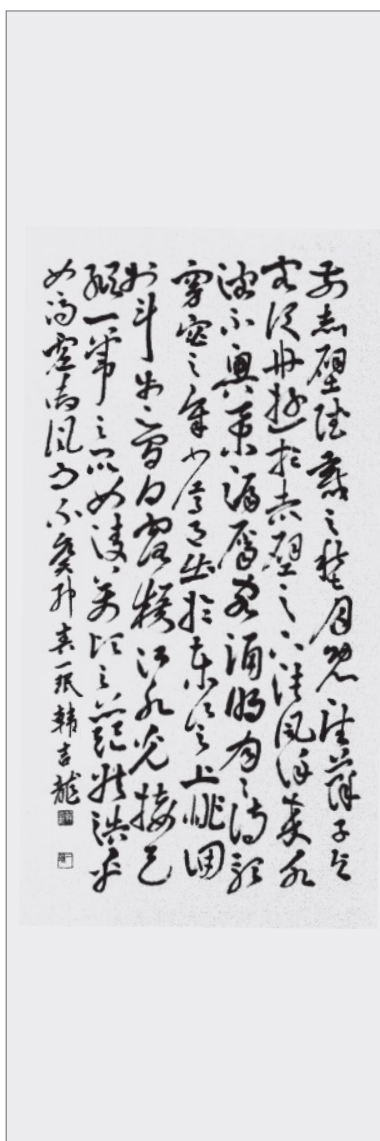
장천비(예서) 140cm x 70cm

德香 홍연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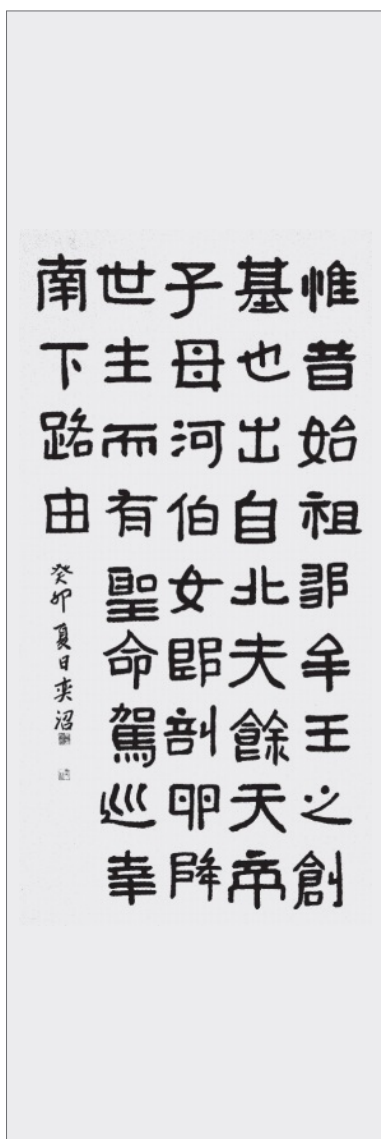
장맹용비(해서) 140cm x 70cm

一珉 한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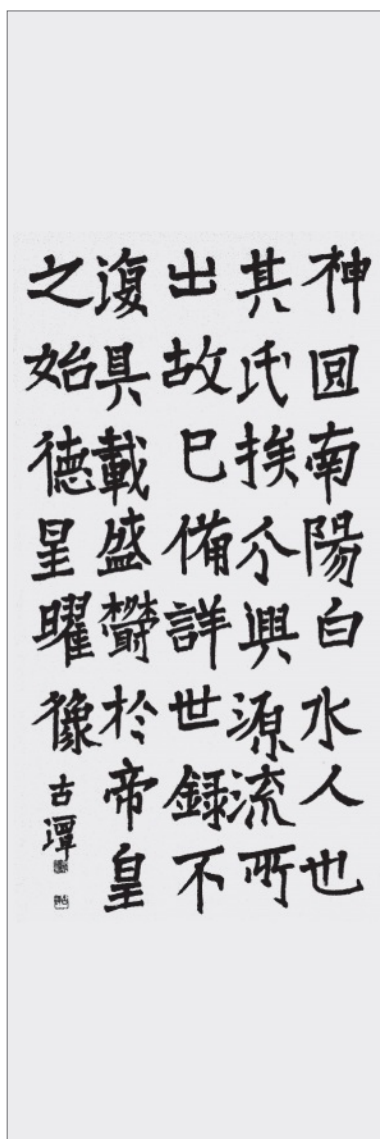
축윤명 140cm x 70cm

奕沼 민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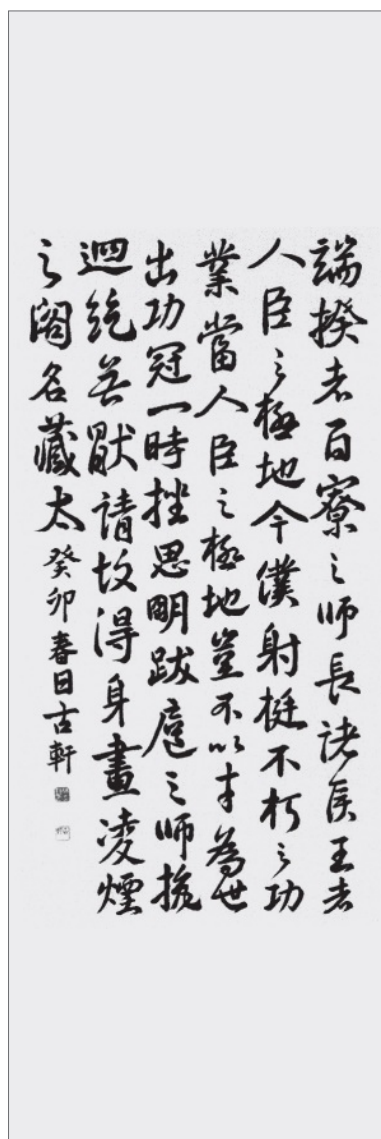
광개토대왕비(에서) 140cm x 70cm

고담 우성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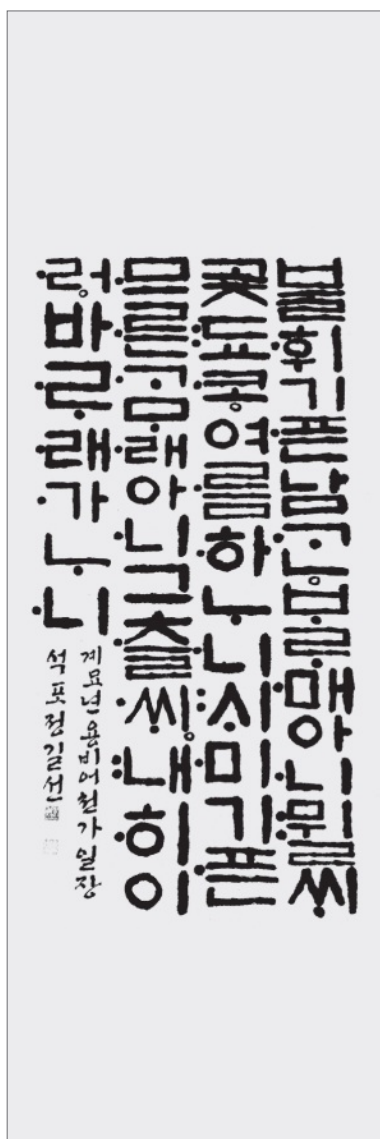
장맹용비(해서) 140cm x 70cm

古軒 임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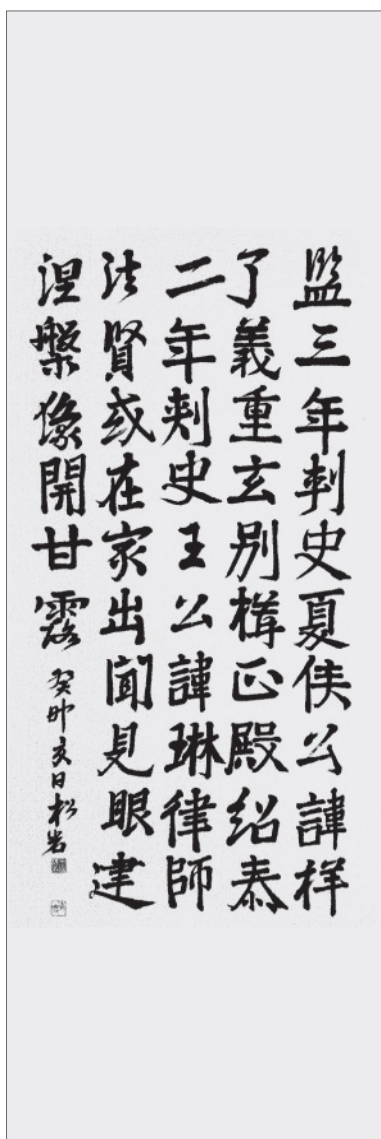
쟁좌위고(행초서) 140cm x 70cm

석포 정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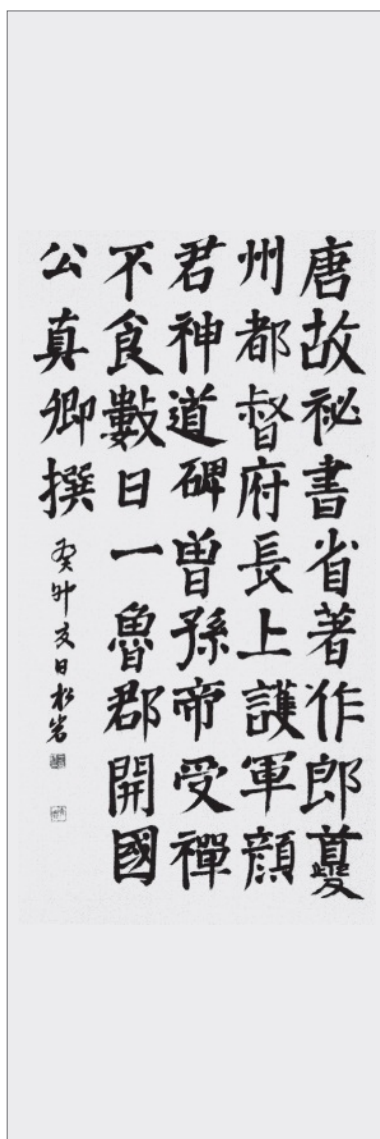


절임용비어천가 140cm x 70cm

松岩 김희수



녹산사비(행서) 140cm x 70cm



안근레비(해서) 140cm x 70cm

소연 장양희

몸세울법은오직머리고드물힘쓸지니머음면
몸이조흔하리고드면부양이영화롭느니라행하
매머리틀드루히디말며말슴승매임시을을들
치디말며안노매무릅을올조기디말며서매치
마를을드디말며기거노크게오사디말며노호와
노소리틀을히말며노외곳을각각하고나네무
리틀달나아바람을엇노디

소년자양희

절임여사서 140cm x 70cm

솔샘 김순희

공자의 말이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요, 배
나네가 지행은 실은 곧 배가 지단이라. 제 집이 배
가 지행은 실이 이시니 나행은 나론 제 집의 단을
러미오. 단행은 제 집의 말이오 세 나론 제 집의 일
과를 이오. 네 행은 나론 제 집의 공이오니 나 나론 제 집의
단이다. 만일 시지 조와 보려 미지 선 배이아면 타의 미
아니며 제 집의 말이 아니다. 시

제묘년 출생 김순희

절임여사서 140cm x 70cm

유현 지복연

부부의도느낌양의한양약한면신명의통달
 하느신실거탄디의도특의파인각의큰모디라
 일노쳐내외느남녀의조음을귀히너기고시전
 유관전의의탄나타내노일노말미안나르거
 디가히동타아나타아나타아나타라자아비어디못
 양면책안해탄저거타곳아나안해어지디못하
 면책지아비탄점기디못하라나

유현 지복연
 2019

절임여사서 140cm x 70cm

지도강사

석당 서성호

本位須別示有尊尊宗只可於宰相師保
 座南橫安一位如御史臺案尊和雜事
 御史別置一榻使使百寮共得瞻仰不
 亦可乎聖皇時開府馬力士承恩宣傳云只如此橫座心
 不聞別有禮數云何必令他失位如李輔國倚
 承恩澤徑居左右僕射及三公之上今天
 下疑嗟乎
 庚申年閏二月辛卯日書於石堂

軍有將軍之位此是開府特進並是勳
 官用蔭印者高卑會燕合倫敘豈可裂
 冠毀冕反易尋倫貴者却欲為卑所
 凌尊未為賊所偏一至於此振古未聞
 如魚軍容階雖開府官即監門將軍
 朝過列位自有次第但以功績既高恩
 澤莫二出入王命衆人不敢為此不可令居

쟁좌이첩(행초서) 140cm x 70cm

且鄉里上齒宗廟上膏朝廷上位皆有
 等威以嗣長幼故得尋倫敘而天下和
 平也且上自宰相御史大夫兩省至上供
 奉官自為一行十二衛大將軍決之三師三公
 今僕少師保傅尚書左右丞侍郎自為一行
 九卿三監對之從古以來未嘗參錯至如
 節度軍將有本班卿監有卿監之班將

지도강사

고운 김 향

숨지김을한절충고레로써마음을제어충고도로써
 욕심을제어충고덕성을길음으로써몸을유척충고
 비니가치삼가치아니충고본성에덜림이업노이
 가치써덕을길고덕에더레움이업노이
 본성을일월지라하물싸음은저근되로말미암스
 덕히로움은큰이되니고로큰집이문어짐을칩터
 완고치못춤이오몸유척지못춤은덕성이이치러짐
 이잇심이니라

이천이십삼년폭우절에여사서덕성장대일덕성을
 말한글이라에서쓰다고운김향

즈를싸충고아그라침을일위노지라이런고로써
 질므로써거충고의로써힘충고지체로써알며신스
 로써직히며레로써태बाट아레아니면밥지아니충고
 의아니면말미암지아니충고음지기위반다시도로
 말미암으며말충고면반다시신스말미암노말아
 니출의말충고지상이일위고레아닌의숨지기충고
 꼭충고편벽충고나타나노지라문덕문덕은한방스
 로써말을한게충고속

빛제녀즈속을차서칭보
 충고절치를하더니라

절임여사서 140cm x 70cm

덕성장대일

덕성을 말
호글이라

곳으며안점으며집속으며한가하며단절하며속
하며점성하며전일홈이며의덕성이니효도하며
공경하며어질며발으며인주하며화평하며유약
며손순하며덕성이갓초니라덕성이품슈호바에
근본축약키노의일위니니박그로말미암아이를
이아니소실상몸위근본축니넷제전내가성전을
다시리며심술을다시려도덕을돕피노고로능히군

■ 임원현황

직명	성명	연락처	직명	성명	연락처
원 장	이만철	010-2850-7005	이사	원종문	010-9647-7768
부원장	김남구	010-7173-1624	이사	유영미	010-9420-6009
이사	강순복	010-6382-4879	이사	이강희	010-6376-2849
이사	김영란	010-8919-6452	이사	이마숙	010-3115-4645
이사	고재욱	010-5364-7660	이사	이영자	010-5370-5560
이사	김재남	010-7200-7586	이사	이용호	010-5367-4354
이사	김종길	010-6373-6243	이사	이은수	010-9572-0006
이사	목병후	010-5228-1309	이사	정옥수	010-4255-3959
이사	박수홍	010-3474-5156	이사	최덕용	010-9114-7568
이사	방선수	010-3679-0879	이사	최영식	010-4841-5355
이사	손홍기	010-5364-8118	이사	홍방래	010-3453-4414
이사	심영배	010-5361-6238	감사	이춘식	010-3702-6024
이사	심종기	010-3044-3088	감사	정희은	010-5374-3032
이사	염종규	010-9109-1136			

■ 직원현황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무국장	백창현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과 장	이혜란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팀 장	이완기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박홍근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김진혜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이원희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관 리 인	백설애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39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가. 발굴수기: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 나. 시론 및 논단: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 다. 고향의 정취: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 라. 경로효친수기: 효행수기, 사례담
- 마. 테마, 기타: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39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인제문화원
T: 033-461-6678, F: 033-461-0220, E-mail: inje6678@kccf.or.kr

인제문화

제38집

인쇄 2023년 12월

발행 2023년 12월

발행인 이만철

편집인 백창현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TEL 033-461-6678 FAX 033-461-0220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산책

이 책은 인제군청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비매품>

